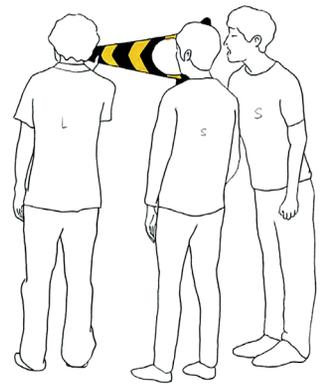


12.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1.0  
12.0



# 정기훈

이달의 표지 작가



정기훈은 시간의 규칙 안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의 흔적을 일상 속 사물을 활용해 보여준다. 그는 임의의 시간 규칙을 설정하고 그 규칙에 따라 수행하지만, 한편으로 특별한 의미가 없어 보이는 결과를 통해 무용과 유용의 가치를 교란한다. 궁극적으로 쓸모와 효율을 위해 살아가는 현대 삶의 방식·통념·기준과 상충하는 개인을 우회적으로 드러낸다. 2006년 인사미술공간을 시작으로 금호미술관(2009)·아트라운지디방(2011)·케이크갤러리(2015) 등에서 사회적 상징기호들을 재해석하는 내용의 개인전을 열었으며, 2015년 서울시립미술관 Emerging Artists 프로그램과 2018년 서울문화재단 예술작품지원사업을 통해 노동에 관한 시간 규칙에 역행하는 행위들을 설치와 비디오로 제작해 발표했다. 2010년 송은미술대상 우수상을 수상했고 금천예술공장·금호미술관·문화공장오산·송은아트스페이스·아트선재센터·인천아트플랫폼·벨기에 Ete78 등에서 다양한 주제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2020년 금천예술공장 11기 입주작가로 활동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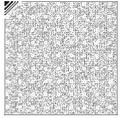
나의 관심은 여러 가지 사회 규칙을 발견하고 재해석해 일방적 규칙 때문에 사라져가는 개인의 개성이나 특성을 드러내는 데 있다. 이러한 관심은, 무수한 규칙이 개인을 지켜주고 있는지 아니면 규칙을 따르기 위해 개인이 존재하는지 예술가로서 사회 속 역할 갈등과 정체성에 관한 고민으로부터 출발했다. 그리고 최근에는 현대 사회의 노동과 시간의 규칙을 적극적으로 작업에 등장시키면서 효율성과 속도, 성과 중심에서 비껴간 행위와 과정을 보여주기 위한 작업을 펼쳐가고 있다. 그래서 나의 작업은 항상 작업의 시간을 설정하고, 그 시간의 규칙 안에서만 이뤄지는 여러 가지 수행을 기반으로 전개된다. 한편으로 예술과 노동의 관계를 증명해 보이려는 이러한 작업 태도는 쓸모의 가치와 연계되면서 헛수고 혹은 무용(無用)의 행위로 해석되기도 한다.

초기 작업에는 교통안전시설물처럼 도시 공간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상징기호들을 재해석한 사진, 드로잉 작품을 통해 규칙과 규범의 보편성과 획일성을 다뤘다. 이후 일상을 지배하는 규칙으로 관심이 이동하면서 2014년부터는 매일 8시간 동안 사물들을 손으로 갈아버리는 <9 to 5>를 통해 본격적으로 시간의 규칙을 설정하고 수행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했다. 48시간 동안 손으로 곱게 갈아버린 거울, 52시간 동안 맞춘 그림 없는 퍼즐, 납작한 수평으로 토막 낸 나무의자, 좁은 손금 간격으로 측량한 파편들, 분쇄된 행운의 열쇠를 본래의 질량과 무게로 되돌린 <열쇠의 행운>, 1년 동안 매일 같은 이미지를 1mm 크기로 줄여가며 사라져가는 과정을 그린 <연중무휴> 등 규칙에 따라 이루어진 결과물을 통해 작업의 메시지를 우회적으로 전달하고자 했다. 또한 <연마술>에서는 예리하고 손쉬운 도구를 내버려두고 돌을 갈아 생선을 손질하면서 결과에는 어렵게 도달하지만 효율성이 놓친 감각들을 설명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지난해에는 사회적 참사로부터 영향을 받아 가슴기에 일정 양의 물감을 섞어 시간을 두고 가슴해 수채화 형식으로 착색된 농담의 차이로 점유된 시간을 화면에 표현했다.

사람들의 시간은 각각 서로 다른 규칙으로 채워간다는 관점에서 나의 작업에는 역시 나만의 규칙이 지속적으로 등장한다. 표면적으로는 주어진 시간을 수치적 기준과 규칙으로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 느슨하고 유연한 규칙들로 천천히 시간을 채워가는 지점을 예술가로서 보여주고 있다.

표지 작품  
대화기술(How to be a Good Speaker)  
러버콘, 종이에 아크릴 | 60×80cm | 2010





**<9 to 5>**  
나무, 못, 배구공, 벽돌, 붓, 소주병, 숟가락, 천, 테이블, 표찰  
가변크기, FHD영상 | 2014



**<열쇠의 행운(Good Luck)>**  
금 | 4×8cm, FHD영상 | 2018



**<적정습도(Day and Night)>**  
가습기, 종이에 먹 | 200×300cm(각50×50cm) | 2020

# CONTENTS

2021 03 VOL. 169

## 서울문화재단 [문화+서울]

발행처 (재)서울문화재단  
발행인 김종휘  
편집 총괄 이규승  
기획·편집 김영민, 오니트(주)(이아림, 장영수)  
각원 편집위원 전민정  
사진 (재)서울문화재단  
디자인 오니트(주)(우인혜, 윤솔아, 손유리, 송채림)  
주소 서울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  
전화 02-3290-7063  
팩스 02-6008-7347  
홈페이지 www.sfac.or.kr  
웹진 www.sfac.or.kr/magazine  
발행일 2021년 3월 2일  
등록일 2005년 6월 8일

(재)서울문화재단에서 발간하는 월간지 [문화+서울]은 서울에 숨어 있는 문화 욕구와 정보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예술가들의 창조적 힘과 시민들의 일상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고자 합니다.

[문화+서울]에 실린 글과 사진은 (재)서울문화재단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문화+서울]에 실린 기사는 모두 필자의 개인 의견을 따른 것입니다.

## 01 커버스토리

이달의 표지 작가 정기훈

## 테마 토크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서울의 문화예술정책

## 06 워드클라우드

2021년 6대 문화예술 주요 정책

## 08 리포트 1

청년예술의 거점 공간 청년예술청

## 10 리포트 2

10대들의 삶이 예술과 만나는 공간 서울예술교육센터

## 12 리포트 3

서울예술지원 2차 공모, 예술기반지원

## 14 인포그래픽

서울문화예술지원시스템 SCAS

## 사람과 사람

## 16 문화인

변호사 김원영

## 22 작가의 방

장수호 감독·김세린 크리에이터



24 서울 할나

26 진실 혹은 대답

청년기획자 플랫폼 11111을 돌아보는 간담회

이슈 & 토픽

32 쟁점

문학 공모전 표절 논란

34 화제 1

자문박 미술관 프로젝트

36 화제 2

서울청년예술인회의 《숨은참조: 청년-예술인》발행

공간, 공감

38 공간

복합문화공간 스페이스독

40 공감 1

뮤지컬 <위키드>와 <베르나르다 알바>

42 공감 2

전시 <미술이 문학을 만났을 때>와  
<한겨울 지나 봄 오듯-세한歲寒·평안平安>

44 공감 3

책 <지렁이 울음소리>와 <기나긴 하루>



SOUL OF SEOUL



46 이경자의 서울 반세기, 공간을 더듬다 28

절망의 고향을 찾아서

48 김송희의 썰(說)

음성 기반 네트워크 서비스, 클럽하우스

50 류태형의 음악정원

탄생 100주년 아스토르 피아졸라

52 최재훈의 씨니컬(Cine\_Col: Cinema Column)

박지완 감독의 <내가 죽던 날>

WEBZINE+

56 웹진 [비유]

!, 문학과 우리 삶이 맺는 울퉁불퉁한 매듭

58 웹진 [연극in]

김초엽·김원영 <사이보그가 되다>

60 웹진 [춤:in]

오마이라이프 무브먼트 씨어터, 인정주+밝녕쿨

62 3월의 서울문화매뉴얼

68 편집 후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 서울의 문화예술정책



2021년에도 여전히 코로나19는 진행형이지만 서울문화재단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6대 문화예술 주요 정책 사업을 발표했다. 오는 6월 예술청 개관을 시작으로 새로운 대학로 시대가 펼쳐질 예정이며, 청년예술청과 서울예술교육센터를 중심으로 미래 예술을 선도하기 위한 실험을 진행한다. 재난 시기와 다양한 변수에도 예술가들이 안정적으로 창작 활동을 할 수 있게 결과보다는 과정을 지원하는 맞춤형 지원사업과 현장 예술인의 요구와 의견을 반영해 간편하게 만든 사용자 중심의 플랫폼 '서울문화예술지원시스템(SCAS)'까지 시민과 예술가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접근한 재단의 정책을 살펴본다.

# 예술가와 시민에게 전하는 문화 보탬

2021년 6대 문화예술 주요 정책



서울문화재단은 '위드 코로나' 시대에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는

2021년 6대 문화예술 주요 정책 사업을 발표했다.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문화예술 생태계를 열원하기 위해 발표한 여섯 가지 정책은 예술가가 지속적으로 작품 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예술가가 '주체'가 되는, 그리고 창의적인 결과를 위한 '과정'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대학로 시대를 잇다** 딱 1년 전, 2020년 3월 대학로 소극장 공연 티켓 취소율은 90%에 달했다. 피해액은 약 18억 원. 1년이 지난 현재도 무대에 오르고 싶은 많은 예술가가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위축된 대학로 예술을 살리고 대학로 시대를 잇기 위해 서울문화재단은 세 공간을 공개한다. 오는 6월 '예술청' 개관을 시작으로 2022년 '블랙박스 공공'(가칭) 과 리모델링한 '서울연극센터'가 차례로 문을 연다. 특히 현장 예술가들과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협치형 예술공유 공간 '예술청'은 향후 문화예술 공공공간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다.

**기술과 예술이 만난다** 빠르게 변하는 문화예술 환경을 대비해 '융복합 창·제작 사업'을 추진한다. 기술 기반 창·제작 전문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융·복합 창작 사례와 적용을 통해 예술의 가능성을 탐구한다. 이를 위해 '청년예술청' '서울예술교육센터' 등 여러 창작공간에서 미래 예술을 준비한다. 특히 청소년·미디어·미래를 핵심 가치로 품은 '서울예술교육센터'를 기점으로 권역별 거점 중심 예술교육사업을 진행한다. 등교가 어려운 상황에서 학교를 벗어나, 일상 속에서 예술가와 시민이 '서로 배우는 공동창작' 경험을 보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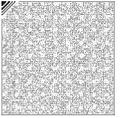
**가까이 다가가는 축제** 지난한 거리두기 속에서 고립과 단절을 느끼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새로운 축제 방식도 선보인다. 서울광장과 평화문광장 등 대형 광장에서 펼쳐진 기존의 대규모 축제에서 벗어나 축제가 품은 치유와 희망의 메시지가 일상에 스며들 수 있도록 기간을 늘리되 권역별로 분산한다. 비대면을 위한 온라인 스트리밍뿐 아니라 영상을 통해 관객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체험형 거리예술 작품도 개발한다. 축제가 있어야 할 '장소'와 만나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탐색하면서 거리예술과 축제의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나갈 예정이다.

**지속 가능한 예술 활동을 위해**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맞춤형 창작지원사업도 펼친다. 그중 하나인 '예술기반지원'이 3월 8일 시작한다. 이름 그대로 예술가가 창작 기반을 다져 오랜 기간 창작물을 만들 수 있도록 창작 구상과 준비 과정을 지원한다. 창작 구상과 준비를 돕는 '리:서치'는 300명에게 시상금 300만 원씩, 작업실·연습실 등으로 구분했던 공간은 '창작예술공간지원'으로 통합해 평균 400만 원(최대 1,000만 원)의 임차료를 지원한다.

**결과가 아닌 과정 중심의 예술** 서울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장르별 창작공간인 문래예술공장(음악·전통, 시각·다원), 서울연극센터(연극), 서울무용센터(무용) 등에서 총 10여 개 팀을 선정해 '작품 준비 리서치~연습-리허설~작품 발표' 등 전 과정을 지원한다. 작품 '결과' 보다는 '과정' 중심으로 운영 방식을 개편해 예술가에게 안정적인 중장기 활동을 보장하고 성장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간편한 지원 플랫폼** 마지막으로 '서울문화예술지원시스템(SCAS)'이 지난 2월 전격 오픈했다. SCAS는 서울문화재단이 매년 130여억 원 규모로 진행한 예술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자와 예술가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개발한 플랫폼이다. 그동안 예술가들은 창작 활동을 지원받기 위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등을 사용했으나, '문화예술'과 '서울'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힘들다는 한계가 있었다. SCAS는 서울문화재단만의 지원사업 맞춤형으로 재구성해 기존 시스템과 차별화했다.

정리 김영민, 서울문화재단 홍보팀, 장영수, 객원 기자



포스트 코로나 문화예술 생태계 거버넌스

2021 서울문화예술지원시스템 일상속으로

위드 코로나 서서울예술교육센터 창작활동

거리예술 협치형 예술 공유플랫폼 청소년

공동운영단 블랙박스 공공 예술기반지원

서울예술교육센터 청년예술청 지속가능한

예술가 지원 새로운 대학로 시대 융합TFT

창작지원사업 미래예술 주체와 과정 중심

예술과 기술 민간 기업 후원 서울연극센터

예술적 민주주의 융복합 블랙박스 공공

잠실창작스튜디오 공동창작 경험 예술청

서울의 6대 문화예술 예술가 참여구조

권역별 거점 중심 예술교육사업 미디어서울

## 예술가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도록

청년예술의 거점 공간 청년예술청



2020년 8월 충청로역 청년주택 건물의 지하 2층에 개관한 청년예술청은 주된 이용자들이 청년예술인이면서, 공간의 운영수칙 결정부터 지원사업 설계까지 청년예술인이 직접 하는 공간이다. 첫 지원사업으로 '스페이스랩: 아직' 공모를 2차까지 진행했고, SNS 등을 통해 입소문을 타며 공간의 이용도도 높아지고 있다. 새로운 거버넌스 실험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실험은 계속 영역을 확장해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2월 충청로 청년예술청 '그레이룸'. 천장이 높고 널찍한 공간 한편에 서너 사람이 자유롭게 몸을 풀고, 맞은편의 대형 LED 화면에는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이날 공간을 대관한 이들은 <포즈들: 접근 연습>(가제, 이하 <포즈들>)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하상현 작가 팀이었다. <포즈들>은 일상에서 마주치는 멈춰 있는 몸, 이를테면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몸, 구걸하는 몸 등을 공간에서 재배치해 보여주는 작업이다. 하상현 작가는 무용수들과 함께 이 공간에서 몸의 방향, 무용수와 관객의 동선 등을 다양하게 실험해 보며 초기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같은 날, 그레이룸과 인접한 '연습실'에서도 작업이 한창이었다. 기타·키보드·전자드럼 등 악기와 음향 장비를 갖춘 이곳은 밴드 연습부터 사운드아트 작업까지 가능한 공간이다. 이날 연습실에서는 전형석 작가가 <도자기 목소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는 직접 만든 도예품(사물)과 사람(몸), 그리고 이를 바라보는 카메라의 관계를



청년예술청 입구(사진 가운데 위)에서 회의실로 이어지는 공간.  
사진 중앙에 있는 작품은 체육관을 콘셉트로  
가구제작자 '소목장 세미'가 제작한 작품으로, 실제 활용이 가능하다.



실험한다. 그는 창작 '과정'을 지원받으며 작업을 편하게 진행할 공간이 있다는 점에 큰 만족감을 표했다.

하상현 작가의 <포즈들>과 전형석 작가의 <도자기 목소리>는 청년예술청의 과정 지원 프로그램인 '스페이스랩: 아직'의 2차 공모 선정작이다. '스페이스랩: 아직'은 청년예술청에서 공간 운영 및 사업의 설계·실행을 담당하는 '공동운영단'이 기획한 첫 사업이다. 대개 예술지원사업은 정해진 기간 안에 작품을 완성해 발표하고 그 결과를 문서로 작성해 보고해야 하지만, '스페이스랩: 아직'은 아이디어를 작품으로 이어가는 '과정'을 지원하며 이후 공동운영단과의 인터뷰로 정산 등 사업 보고를 대체한다. 지원 방식에 대한 일종의 실험인 셈인데, 사업을 설계한 공동운영단 구성원 역시 모두 예술 현장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이기에 이런 실험이 가능했다. '거버넌스' 운영의 효과다. "예술가들은 지원사업을 경험하며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돼요. 기관에 제출할 정산보고서·사업보고서에 '나는 이렇게 잘했습니다'라는 내용을 글로 적고 사진을 붙여 내야 하는데 저희는 그 과정을 생략하고 대신 인터뷰를 하죠. '당신은 하고 싶은 걸 하세요. 그걸 증명하는 데 필요한 건 저희가 대신 할게요' 라는 마음이랄까요."(청년예술청 배소현 매니저)

예술가들이 당사자성을 지니고 수평적으로 의사소통해 이끌어낸 여러 실험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공간 가동률이 90%를 넘는 점과 '스페이스랩: 아직' 참여 예술가들의 호응 등으로 서서히 그 가치를 입증하는 중이다. 공간 운영 외에도 청년예술청에서는 청년예술인이 제작한 가구와 미디어·영상 등 작품을 구매 및 설치해 공간의 정체성을 다지고 있다.

새로운 가능성을 선보이는 이러한 거버넌스 실험은 다른 공간으로도 조금씩 확장한다. 서울문화재단이 오는 6월 말 대학로에 문을 여는 '예술청'(종로구 동숭길 122)이 그것이다. (구)동숭아트센터를 리모델링한 이 건물의 지하에는 약 240석 규모의 공연장 '블랙박스 공공'(가칭)도 자리 잡는다. 젠트리피케이션과 코로나19로 위축됐던 대학로에서, 예술인이 직접 운영하고 창작하는 공간은 예술과 민주주의의 상징인 대학로의 정신을 이어갈 거점으로 기대해 볼직하다. 예술은 결국 사람의 일. 수평적인 연대가 예술 생태계에 새바람을 불어넣기 시작했다.

글 이아림\_객원 기자 사진 제공 서울문화재단



**박휘민·정혜진**  
청년예술청  
공동운영단

## 당신의 가치를 우리가 증명해 드릴게요

### Q. 공동운영단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정혜진 처음 운영단에 홍보할 때 '충정로 콜렉티브'라는 이름을 쓰고 있었는데 그 감각이, 행정적이기보다 예술가들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공간이라는 느낌을 줬다. 여기서는 다른 걸 시도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원했다.

박휘민 개관기획단에서 활동했는데, 콜렉티브 형식의 거버넌스였고 즐거운 소통을 계속 이어가고 싶다는 생각에 지원했다. 충정로에서 일종의 '신(scene)'을 형성하는 상상을 한다.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이 모여 실험하고 창작하면서 새로운 영감이 샘솟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싶다.

### Q. '스페이스랩: 아직'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 다른 지원사업과 차별화하기 위해 시도한 것이 있다면?

정혜진 사업 전반을 설명하는 글부터 양식까지 모든 부분에서 최대한 예술가의 언어를 사용하려고 노력했다. 또, 지원사업에서 심사할 때 작가의 포트폴리오와 이전 경력을 보는데 우리는 그것을 보지 않았다. 이전 경력과 상관없이 지금 발아하는 프로젝트만 본다는 것이 큰 차별점이다.

박휘민 '과정'을 지원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발표만을 지향하는 사업이 아닌, 발전을 지향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했다.

### Q. 청년예술가들이 겪는 가장 힘든 점, 혹은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박휘민 음악을 하는 입장에서, 일단 무대가 없어졌다. 많은 라이브클럽이 문을 닫고 있고, 활동에 제약이 많이 생겼다. 온라인 플랫폼은 자본을 지닌 이들에게 유리한 곳이어서 인디뮤지션에게 음악을 소개하거나 소통할 방법이 없어졌다는 게 가장 힘든 점이다.

정혜진 격려와 칭찬이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웃음) 예술가들은 항상 심사를 받고 나를 증명해야 하는데, 그에 대한 보상이나 격려를 받을 기회는 정말 없는 것 같다. '스페이스랩: 아직'에서 인터뷰를 꼭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은 그 때문이기도 하다. 자신을 증명하는 데서 예술가들이 자유로워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 청년예술청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26-26 102동 지하2층, 청년예술청 SAPY  
문의 0507-1324-9745 | 누리집 www.sapy.kr | 인스타그램 @sapy.kr

## 청소년이 예술로 스스로를 표현하는 곳

10대들의 삶이 예술과 만나는 공간 서울예술교육센터



지난 2월, 용산의 고층빌딩 사이에 위치한 서울예술교육센터를 찾았다. 신축 오피스 건물에 들어선 서울예술교육센터 스튜디오 바닥엔 나무·톱·망치와 같은 공구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언뜻 보면 건물 내부 공사가 아직 진행 중인가 싶지만, 예술교육 프로그램이 한창인 현장이란다. “어떻게 하면 돼요?” 세상에 없던 나만의 도구를 만드는 프로그램 ‘공소(工所)’에 참여한 한 청소년이 질문을 던지자 함께하는 예술가가 답한다. “정해진 답은 없어요. 무엇이든 답이 될 수 있어요.” 질문을 한 10대 참여자는 하얀 종이를 한참이나 쳐다보다 연필로 끄적거리더니 속속 스케치를 해나간다. 곧이어 “이렇게 만들래요?”라며 손을 번쩍 든다.

### 서울예술교육센터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미래 예술교육

“서울예술교육센터는 어른이 참견하는 교육을 지양해요. 대신 질문을 던지죠. 청소년 자신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인지, 어떤 도구로 표현하면 좋을지.” 서울예술교육센터의 운영 철학을 고민하고 공간을 가꾸는 조인호 기획감독의 말이다. 서울예술교육센터는 청소년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내놓으면, 그 메시지를 표현하기 위한 도구로는 무엇이 어울릴까 스스로 고민하도록 돕는다. 경험이 풍부한 예술가가 곁에서 함께해 청소년의 상상을 현실로 구현하는 공동창작의 경험을 나눈다.

서울예술교육센터는 2030년까지 서울 권역별로 총 10개소가 조성될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의 시작점이다. 이곳은 누구나 사색하고 그 경험을 교류할 수 있는 1개의 라운지와 청소년을 위한 워크숍과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2개의 스튜디오로 구성됐다.

먼저 6층 스튜디오는 도구가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졌는지 탐색하는 곳이다. 예술은 어떤 도구를 활용해 어떤 메시지를 표현하느냐에 따라 새로울 수도, 때론 진부할 수 있다. 이곳에서 말하는 ‘도구’는 정해진 규격이 없다. 길이를 재기 위해 줄자에 표기된 1cm 대신, 자신의 머리카락을 뽑아 ‘1머리카락’을 사용할 수 있다. 물론 뽑을 때마다, 그리고 사람마다 ‘1머리카락’의 길이는 달라 효율은 떨어지겠지만, 6층에서는 상관없다. 청소년들이 다양한 도구를 직접 만들면서 ‘도구가 무엇일까?’ ‘내 생각은 어떤 도구로 표현해야 정확하게 전달될까?’ 같은 고민을 스스로 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은 청소년이 도구의 본질을 처음부터 고민하도록 함께 따라간다. 길이뿐만 아니라 성형을 위한 도구, 재료를 담거나 이동하는 도구 등 세상에 널린 많은 도구를 재탐색한다.

6층이 도구를 만들고 도구에 대해 고민하는 공간이라면, 5층 스튜디오는 미디어를 다루는 공간이다. 글·그림·책·슬라이드필름 등 로테크(lowtech)부터 영상·사운드·AR(Augmented Reality, 증강현실)·VR(Virtual Reality, 가상현실) 등 하이테크(hightech) 미디어까지 다양하다. 이 공간 또한 청소년들이 미디어의 본질을 처음부터 고민하도록 돕는다. 미디어는 우리말로 매체다. 어떤 작용을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물체, 또는 그런 수단을 뜻한다. 우리는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중간에서 전달 역할을 하는 미디어를 사용한다. 서울예술교육센터는 청소년들이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 때, 그 사이에 수많은 미디어가 있음을 가르친다. 책을 예로 들면, 청소년들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직접 정하고 글을 쓴다. 주제에 맞는 책의 판형과 어울리는 질감의 종이를 정하고 제본 방법도 고른다. 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경험



‘공소: 세상에 없던 도구를 만드는 소규모공작소’ 워크숍 현장

하며 책이라는 미디어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5층에서 청소  
 년들은 미디어를 수동적으로 소비하던 습관에서 벗어나 미디어를 직  
 접 만드는 과정을 체득한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수많은 미디어 중  
 어떤 미디어가 적합할까 고민해 보고, ‘내 이야기는 이 크기의 책에 담  
 을래’ ‘내 영상은 모니터보다는 종이박스에 매핑해서 보고 싶어’ ‘영  
 상의 길이는 몇 분이 좋겠어’ 등을 스스로 판단하게 된다.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조명받는 VR·AR 또한 미디어 역할을 할 수 있  
 다. 오는 4월부터 ‘청소년 대상 VR&AR 기술 활용 창작워크숍’과 디지  
 털 네이티브인 청소년과 함께하는 ‘TA(Teaching Artist, 예술교육가)  
 대상 융합예술 시즌 워크숍’도 진행할 예정이다. 물리적 한계가 없는  
 가상공간에서 청소년은 자신의 이야기를 맘껏 꾸밀 수 있다. 무한한  
 상상력으로 스토리텔링을 하고, VR과 AR 프로그램으로 이미지와 소  
 리를 직접 만든다. 미디어아티스트와 함께 미디어 콘텐츠를 비판적  
 으로 바라보고 재창작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도  
 구를 창조하는 경험을 쌓는다.

### 미래 예술을 준비하는 서울

비단 청소년뿐만 아니다. 서울문화재단은 지난 10년간 총 116팀(인)  
 의 국내외 미디어아티스트가 참여한 미디어아트 축제 <다민치 크리  
 에이티브>와 이를 확장한 융합예술 플랫폼 <언폴드 엑스>로 축적한  
 경험을 기반으로, 융합예술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청년 문  
 화예술기획자를 위한 ‘융합예술기획사관학교’, 장애예술인의 작업  
 영역 확장을 위한 ‘장애예술인 매체확장 워크숍’ 등을 진행하며, 오는  
 10월에는 <언폴드 엑스> 전시와 함께 교육 프로그램 결과를 선보일  
 예정이다. 한계와 제약을 가져온 위드 코로나 시대에 기술과 예술의  
 만남이라는 도구를 활용해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보려는 시도다.

글 장영수\_객원 기자 사진 서울문화재단

### 서울예술교육센터

주소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17  
 문의 02-3785-3199 | 인스타그램 @artsforteens

## 예술의 결, 예술정책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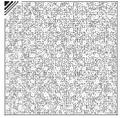
서울예술지원 2차 공모, 예술기반지원



서울문화재단의 예술기반지원사업은 2020년, 서울예술지원 2차 공모로 처음 시작했다. 코로나19 이전 설계된 사업이었지만 팬데믹 상황을 거치면서 예술기반지원사업은 재난 시기에 더욱 필요한 사업이라는 예술계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THE 넓은 라운드 테이블' 현장(2019)



### 지속 가능한 안정적 창작 환경을 위한 지원

2020년의 시간이 덩어리가 됐다. 마치 푼 끊어진 다리 위에 선 것처럼 건너는 법도 되돌아가는 법도 모른 채 모든 기억이 뭉쳐졌다. 평온하던 시간이 삐걱거린다. 일상, 더 심각하게는 생계가 불안해지는 동안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전시장을 닫고 객석을 비워 예술을 향유하는 시간도 멈췄다. 예술가들의 창작이 완전히 멈추지는 않았지만, 소통의 플랫폼이 닫힌 곳에서 예술가들은 사람들과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를 뿌리부터 다시 고민해야 하는 시간 속에 있었다. 2021년이 시작됐지만 코로나19는 현재 진행형이다. 예술가들의 창작 기반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목표는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당위성은 더욱 강해졌다.

생계가 휘청이는 위기의 시대에도 예술인들은 서울문화재단의 창작 지원사업이 예술인을 위한 복지사업이 아니라 예술의 가치와 예술인의 활동을 단단하게 지원하는 사업이길 바랐다. 그들의 간절한 요청은 본 사업의 근원적인 고민에 무게를 더해줬다.

이에 2021년 예술기반지원사업은 서울문화재단 2021년 문화예술 주요 정책사업 중 하나인 '위드 코로나·포스트 코로나'를 근간으로 설계됐다.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를 꿈꿔왔지만, 어쩌면 올 한 해 동안 코로나는 우리와 함께하는 일상일 수도 있다. 따라서 코로나19 등의 재난 및 다양한 변수에도 흔들림 없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기반지원사업 확장의 필요성을 반영했다.

예술기반지원사업은 창작의 결과물뿐만이 아닌 창작 사전 단계, 창작 준비, 창작 공간, 창작물에 대한 연구 및 평가·창작물의 가치 기록 등 위기 상황에도 지속돼야 하는 예술 생태계의 근간을 지원하도록 설계됐다.

예술가 입장에서 한결 직관적이고 단순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발간·기록·연구 등 전 사업 지원금을 정액 1,000만 원으로 일원화했다. 창작예술공간지원사업은 실(實)임차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단순화하고, 선정 대상과 범위를 넓혔다. 리:서치(RE:SEARCH, (구)창작준비지원사업) 사업의 경우, 지원금 현실화의 요구를 반영해 기존 정액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사업 공고는 2월 22일(월)부터, 접수는 3월 8일(월)부터 3월 19일(금)까지이며, 총 6개 사업에 19억 원을 지원한다.

### 듣는 입장에서 예술인들과 대화하는 단계로 변화

서울문화재단은 다년간 예술 현장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일방향 지원사업이 아닌 현장 예술인의 요구와 의견이 지원 제도에 반영되는 양방향 지원사업을 지향하고 있다. 기존 지원사업 관행에 대한 문제의식을 반영해 지원사업의 역할 확장 및 재설계를 위해 2019년 대규모 공청회·간담회를 진행했고, 이후 안건의 심화와 긴밀한 소통을 위한 소규모·다회차 간담회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온·오프라인 예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리한 2019년 'THE 넓은 라운드 테이블'에 이어 2020년에는 예술인 개개인과 마주하고 대화하는 '100개의 의자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듣는' 역할을 넘어 '대화하는' 역할에 대한 현장 요구를 반영해,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심화했다.

또한 문화예술과 서울에 특화된 사용자 중심의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현장 요청에 따라 서울문화예술지원시스템(SCAS)을 처음으로 도입했다. 서울문화재단의 지원사업에 특화된 기능을 보완하고 예술인들이 예술지원시스템에서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던 절차를 간소화했다.

영화의 특수효과는 가장 전문적인 영역이지만, 그 실체를 최대한 숨길 때 더욱 빛난다. 예술의 곁에 선 예술지원사업의 역할 역시 그럴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예술 생태계와 마주 했지만 서울문화재단은 단절되지 않는 예술 활동을 복돋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현장과 소통을 통한 지원의 현장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결국 우리는 전시장이, 공연장이, 예술과 만나는 현장이 예술가에게, 관객에게 되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다. 더 불어 위기의 예술계를 위해 서울문화재단의 역할이 일시적으로 가뭄을 해소하는 소나기가 아니라, 든든한 저수지를 만드는 일이라는 믿음도 변하지 않았다. 올해도 서울문화재단은 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예술 현장의 곁에 단단하게 서 있을 예정이다.

글 최재훈\_서울문화재단 예술기획팀장 사진 서울문화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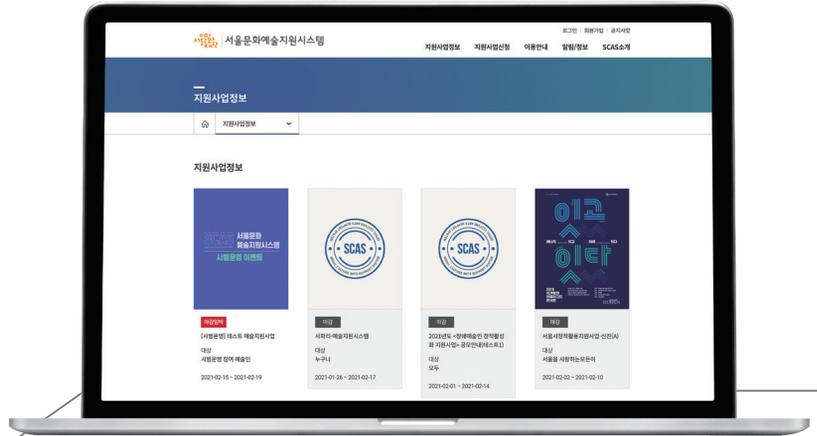
# SCAS는 이런 점이 편해요!

서울문화예술지원시스템 SC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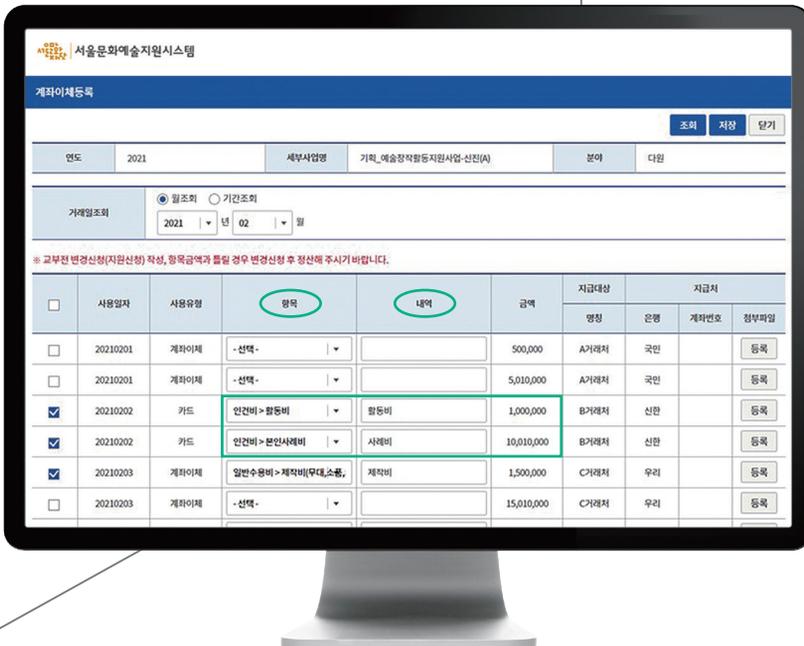
서울문화재단이 예술 창작 활동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지원신청·심의·교부·정산 등 일련의 과정을 손쉽게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서울문화예술지원시스템(SCAS, Seoul Culture and Arts Support System)’으로, 신청자는 서울문화재단의 지원사업에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다. 공모 사업별 자격에 적합한 경우 개인·단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정리 장영수\_객원 기자  
누리집 서울문화예술지원시스템 www.scas.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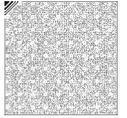
## 1. 지원사업 정보가 한눈에 들어와요

지원 가능 대상이 누구일까? 접수 기간은 언제까지?  
그동안 어떤 사업이 진행됐나?  
힘들게 찾지 않아도 쉽게 볼 수 있도록 페이지가 나타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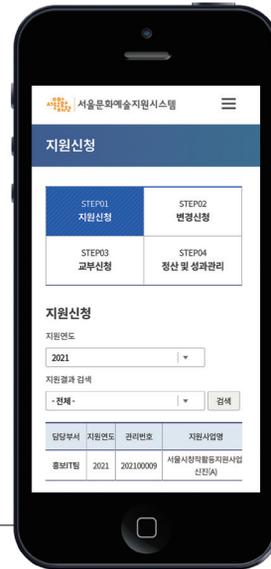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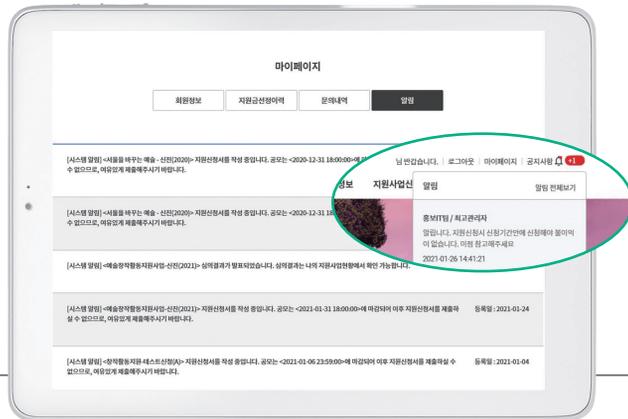
## 2. 보조금 계좌 시스템과 연동돼 사용 내역이 자동으로 나타나요

‘계좌내역등록’ 버튼을 누르면  
지원사업 전용 계좌로 사용한 목록이 노출돼요.  
지출 항목 선택과 증빙자료 첨부만으로도  
자동으로 교부금 사용이 연동돼 간편해졌어요.



### 3. 마감 및 주요 일정을 알려줘요

지원자가 신청 및 정산 마감일을 깜빡하지 않도록 알림이 울려요.  
사업 담당자가 공지하는 알림도 확인할 수 있어요.



### 4.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정산할 수 있어요

전국 최초로 개발한 정산 기능 모바일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지원사업을 정산해요.



### 5. 온라인으로 심사를 진행해요

전문가 심의위원이 심사의 전 과정을 온라인에서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개별 심의평을 기록해요. 신청자는 심의 진행 현황을 볼 수 있어요.



### 6. 나의 지원사업 선정 이력이 정리됐어요

지원한 사업 현황이 박스에 나타나 진행 상태가 시각적으로 정돈됐어요. 선정된 이력 목록은 연도별로 확인할 수 있고, '선정 확인서'도 온라인에서 직접 출력할 수 있어요.

# 당신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무대

변호사 김원영

1급 지체장애인이자 변호사 김원영은 '1인 다역'을 한다. 칼럼니스트·작가·연극배우로도 활동하고 있다. 2018년 6월에 펴낸 사회비평 에세이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이 독자의 사랑을 받아 베스트셀러 작가로 이름을 널리 알리기도 했다. 창작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는 그는 최근에 김초엽 작가와 함께 쓴 《사이보그가 되다》를 펴냈다. 장애인의 관점에서 바라본 과학기술의 문제를 탐구한 사회과학서다. 다양한 활동을 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는 그를 이메일로 서면 인터뷰했다.



**작은 방에서 넓은 세상으로**

여러 영역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는 지금과 달리, 어린 시절 그는 시골 마을의 작은 방이라는 좁은 무대에 갇혀 있었다. 뼈가 쉽게 부러지는 골형성부전증이라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그는 이 희귀난치성질환으로 1급 지체장애인 판정을 받았다. 자주 골절상을 입고 10여 차례 수술대에 올랐다. 어린 시절의 그는 “스무 평 남짓한 시골집을 두 팔로 기어 다니는 것이 전부였다”고 한다. “외출이라고는 병원에 갈 때 뿐”이었다. 초등학교에 다니지 못한 그는 또래 친구들이 학교에 갈 때 방에서 혼자 노는 시간이 많았다.

“사춘기가 올 무렵부터 아주 강한 에너지가 있었는데 나의 세계는 너무 좁았어요. 밖에 나가 놀 수 없으니 머릿속으로 월드컵 토너먼트를 운영했어요. 말하자면 FIFA 온라인 같은 게임을 머릿속에서 혼자 구축하고 플레이를 한 거죠.”

책을 좋아하는 어머니 덕분에 독서의 세계로 빠져들 수 있었다. 책이 친구였다. “제가 어릴 때 《○○은 왜》 시리즈 만화책이 있었어요. 그중 《우주는 왜》를 자주 읽었어요. 《컴퓨터 길라잡이》라는 책도 좋아했어요. 이 책에 애플의 초기 컴퓨터인 매킨토시 이야기가 나와요. 그걸 읽고 컴퓨터를 직접 써보고 싶었지만 그때 제 주위에는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뒤늦게 초등학교 졸업 인정 검정고시를 본 그는 16세에 경기도의 한 재활원에 입학했다. 재활원은 지체장애인을 위한 특수교육기관이다. 처음으로 고향 마을을 떠나 낯선 지역으로 간 그는 그곳에서 “태어나서 나 이외의 ‘장애인’을 처음으로 만났다. 그가 살던 시골 마을에 장애인은 그 혼자였다. 정규 교육과정을 거치지 못한 그는 집에서 배운 한글 읽고 쓰기, 사칙연산, 다장조 음계와 알파벳 읽기만 할 수 있었다. 재활원에서 영어의 문장 형식을 배우고 수학의 분수를 알아갔다. 배움의 즐거움이 컸다.

새로운 경험도 했다. 재활원에 입학한 첫해 여름, 교회에서 여는 연극의 주연을 맡았다. 작은 방에서만 지내던 그가 사람들 앞에 나선 건 그때가 처음이었다. 첫 무대에 선 느낌을 책 《희망 대신 욕망》(2010년에 펴낸 《나는 차가운 희망보다 뜨거운 욕망이고 싶다》의 개정판)에 이렇게 썼다. “도대체, 도대체 당신은 어디 있는 겁니까!” 무대를 위해 첫 번째 대사를 말하던 저 순

“이건 고등학교를 가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야.

이건 네가 앞으로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의 문제야.”

간이 가장 분명하고 상세하다. 큰 목소리가 터져 나올 때의 예상치 못한 후련함, 사람들이 놀리는 표정, 그 목소리를 시작으로 비로소 ‘연극’이라는 특정한 예술의 현장으로 순간 이동한 듯한 긴장감, 이 모두가 생생하다.” 이날의 경험은 그를 변화시켰다. 그 이후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즐기게 되었다고 한다.

존경하는 선생님도 만났다. 당시 재활원에서 만난 박현국 영어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영어의 문장 형식과 영어 표현을 가르쳤으며, 영문법의 5형식 문형을 알기 위해 애쓰기를 시작하기만 해도, 더 큰 꿈을 꿀 자격이 있음을” 알려주었다.

장애인 특수교육기관인 재활원은 안락하고 즐거운 공간이었다. 하지만 그 안락함과 즐거움에 익숙해진다면, 평생 이곳을 벗어나 다른 곳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서 살고 싶었다. 재활원을 졸업한 뒤 장애인들만 다니는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 고등학교에 가려고 결심했다. 그럴 수 있도록 도움을 준 분이 당시 사회복지사였던 박찬오(현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다. 재활원에 학습 자원봉사를 온 대학생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분이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입학을 거부당하자 일반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걸 포기하려고 하는 그에게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건 고등학교를 가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야. 이걸 네가 앞으로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의 문제야. 이 껍질을 평생 안고 가느냐 깨고 나가느냐.” 특수학교라는 세계를 깨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갈 힘을 준 ‘용기의 말’이었다.

재활원에 다니던 시절 인연을 맺은 박현국 선생님과 박찬오 소장은 그의 인생 스승이다. “제가 있던 특수학교에 찾아와 저를 일반 고등학교에 가도록 도와준 박찬오 님의 영향이 크지요. 당시 영어 선생님이던 박현국 선생님을 비롯해 특수학교 시절 선



생님들 모두 제 삶에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어떻게 자존감을 지키면서 장애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현실에서 생존하기 위한 역량과 기지를 길러야 하는지 알려준 사람들입니다.”

### 자신의 정체성과 장애인 문제를 고민하다

어렵게 일반 고등학교에 들어간 뒤 그는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2009년 서울대 로스쿨 1기로 입학했다. 2013년 변호사시험 합격 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맡는 조사관으로 변호사 경력을 시작했다. 그는 졸업 후 법적·제도적 측면에서 장애인 인권 문제를 해결하고자 로스쿨

에 진학하고 변호사가 된 것이다. 첫 직장인 인권위에서 정신장애로 강제 입원된 분들을 만났다. 그중 기억에 남는 한 분이 있다. 그는 자신이 정신장애인이 아니라 부당한 인권침해의 피해자라고 말했다. “저는 사건을 조사하면서 위법한 입원이라는 증거를 찾지 못했어요. 그분에게 정신장애 등록을 하면 사회보장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은 ‘자기가 정신질환이 없는데 왜 정신장애인 등록을 하느냐’고 답답함을 표하셨어요.” 그 당시 자신의 역할이 가진 한계 등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었다. “프란츠 카프카의 소설 《소송》에 나오는 주인공 K를 어느날 갑자기 영문도 모르고 체포하고, 판단하는 ‘법’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는 변호사 업무를 보면서 글 쓰는 걸 멈추지 않았다. 2018년에 펴낸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은 장애인으로 살아온 자신의 경험과 법학을 결합해 장애를 사회적 차원에서 고민하도록 하는 화두를 던졌다. 이 책에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다. “한편에는 장애, 질병, 가난을 이유로 소외받는 동료들이 있고 다른 한편에는 좋은 직업, 학벌, 매력적인 외모로 세상의 ‘중심’에 서 있는 동료들이 있다. 그 가운데서 진동하듯 살면서, 또 사회학과 법학을 공부하면서 자신의 정체성과 장애인 문제를 사회적 차원에서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 책에서 선천적 장애를 안고 태어난 자신과 마찬가지로 ‘잘못된 삶’ ‘실격당한 인생’이라 낙인찍힌 이들도 존재 자체로 존엄하고 매력적임을 증명해 보인다. 모든 존재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특징과 경험과 선호와 고통을 가진 사람인지 드러낼 무대를 열어준다면, 소수자들 스스로가 ‘인간 실격’이라는 낙인에 맞서 자신을 변론할 수 있다고 그는 말한다.

그의 관심사는 사회학과 법학을 넘어 과학으로 뻗어간다. 올해 1월 청각장애인 김초엽 작가와 함께 쓴 《사이보그가 되다》를 펴냈다. 이 책은 출판계에서 ‘믿고 읽는’ 작가로 불리는 둘의 만남으로 출간 전부터 주목을 받았다. “김초엽님을 SNS에서 알게 된 후에 쓰시는 글을 관심 있게 읽었어요. 그러다 SF 작가가 되신 후 펴낸 데뷔작을 읽고 함께 장애나 몸, 감각에 대한 이야기를 써보고 싶다고 마음먹었어요. 김 작가와 이야기를 나누다 그것을 과학기술과 관련해 다뤄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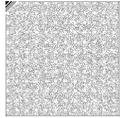




하게 됐지요.”

앞서 그가 과학기술에 관심을 둔 계기는 16년 전 ‘황우석 사건’이다. 당시 대학생이던 그는 학교 정문에서 매일 황우석 교수를 지지하는 장애인과 가족들의 모습을 봤다. “당시 황 교수의 연구가 거짓임이 밝혀진 다음에도 끝까지 그 믿음을 철회하지 않는 지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들 중에는 장애인 가족과 당사자들이 있었어요.” 이때 그는 ‘장애의 종식’을 예언하는 미래 과학기술의 문제를 목격한다. “장애나 질병을 치료하는 과학기술에 대한 희망은 어찌 보면 자연스럽게 누구도 의문을 제기하기 어렵게 만드는 주제예요. 하지만 황우석 사건은 비판적 논의 없는 상태에서 과학기술을 향한 희망과 사회적 관심이 쏠려 만든 결과가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사이보그가 되다》에서 “장애를 교정과 치료의 대상”으로 보는 ‘비장애 중심주의’를 비판한다. 비장애 중심주의는 장애가 없는 ‘비장애 신체성’을 ‘정상’과 ‘표준’의 몸으로 제시하며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다른 몸들을 배제하고 억압하기 때문이다. 결국 그 안에서 장애를 더욱 소외시키고 소비하는 대상으로 만든다. 이 관점에서 벗어나 그는 ‘장애 중심적 과학기술’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특정한 기술의 구체적 모습보다는 기술의 도입과 활용 과정에서 장애 중심적 과학기술을 주로 상상합니다. 이를테면 최근 열풍을 불러일으키는 ‘클럽하우스’ 같은 SNS를 생각해 보면요. 음성 중심의 서비스이다 보니 청각장애나 언어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애초에 접근이 배제되지요. 이러한 플랫폼을 설계하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초기부터 음성 중심



의 이 소셜네트워크가 가진 매력과 특성을 추구하면서도, 어떻게 청력이 낮은 사람들도 가능한 한 쉽게 참여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절차·책임감·합의 같은 것이 당연시되면 좋겠습니다.”

### 자기만의 아름다움을 지닌 개인

그는 연극무대에 올라 사회를 향해 목소리도 내고 있다. 로스쿨에 다닐 때 지인들을 모아 장애인·비장애인이 함께 공연하는 예술단체인 ‘장애문화예술연구소 짓’을 만들었다. 장애가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저마다의 매력을 살려 즐겁고 의미 있는 공연을 하려고 꾸린 것이다. 연극에도 직접 출연했다. 2019년 7월 서울변방연극제에서 공연한 1인 연극 <사랑 및 우정에서의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에 관한 법률>의 무대에 오르며, 같은 해 극단 ‘애인’과 함께 <인정투쟁:예술가편>에 출연했다.

“연극무대에 처음 선 건 재활원에 있을 때였어요. 그때 제가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에너지가 내 안에 있음을 발견했어요. ‘내가 이렇게 말하고 움직이고 공간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이었나’ 싶었어요. 늘 누군가에게 ‘기이하게’ 보이는 존재였다면, 처음으로 내가 사람들의 시선을 나의 행동과 말로 주도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을 드러내는 시각예술 전시에도 참여했다. 또 하나의 무대를 만든 것이다. 사진작가 이지양 씨와 협업한 2018년 시각예술 전시 <당신의 각도>와 2019년 <정상제도>가 그것이다. 자유로운 몸의 움직임이나 춤을 추는 장면들을 사진으로 촬영해 시각예술로 보여주는 전시회였다.

본업인 변호사로 일하면서 연극을 하고 글을 쓰는 건 삶의 활력소가 된다. “법이나 규범, 언어의 세계와 비언어적이고 정서적 표현이 더 중요한 세계가 각각 서로의 작업 과정에 자극을 줍니

“결국 우리에게는 각자 가진 생생한 고유성과 숨겨진 ‘아름다움’을 전개할 무대와 관객이 필요하다.”

다. 우리 모두 각자의 무대가 있을 텐데, 저에게는 말 그대로 공연장에서의 무대, 또 책이라는 매체가 그 무대겠지요. 독자분들과 관객들이 계셔서 이 모든 작업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과 소통하는 무대는 각자 고유성과 매력을 발산하는 곳이다. “결국 우리에게

는 각자 가진 생생한 고유성과 숨겨진 ‘아름다움’을 전개할 무대와 관객이 필요하다. 나는 이러한 무대가 설계되어 진지한 관심을 가진 관객을 만날 수 있다면, 우리 모두가 훨씬 존중을 받으며 매력적인 관계로 진입할 자격이 있는 사람임을 보이고자 한다.”(《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중에서)

그에게 몸·매력·욕망 등은 말하고, 표현하고 싶은 창작의 주제다. “표현이나 창작에 대한 욕구가 강한 사람이에요. 저는 분명한 색과 고유성을 가진, 말 그대로 자기만의 아름다움을 지닌 개인이 되고 싶었어요.”

올해 그는 “작은 무용 공연을 하고 책을 펴낼” 계획이다. 당장 책 출간 작업 일정이 빠듯하다. “법과 도덕의 세계가 아니라, 사람들의 취향과 선호, 욕망의 세계에서 (상처 입을 걸 감수하고) 자기를 당당히 드러내고 새로운 시각과 감각을 발명하려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무대에 올라 연기를 하고 춤을 추는 장애인들의 이야기도 그중 하나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담은, 평등이라는 가치와 장애 예술의 관계를 다룬 글을 쓰고 있습니다.”

더불어 글로, 연기로 자신을 스스럼없이 드러내면서 한편으론 내면을 단단히 다지는 중이다. 앞으로 해나갈 ‘마음속 계획’이다. “저는 모든 것이 너무 두렵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비난이나 혐오의 말을 들을까 두렵고, 반대로 혐오나 차별에 맞서기 위해 저를 내세우고 맞서는 과정은 한편으로 장애를 소비하고 저의 소수성을 정치적으로 상품화하는 것 같아 불안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취약한 몸 상태에 있고, 경제적으로는 많은 책임을 지고 있기도 해서 편한 마음으로 잘 살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늘 중심이 무겁고, 단단한 인간이고 싶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좀 귀엽고 웃긴 사람이고 싶습니다. 진지하고 재미없는 아저씨가 되고 싶진 않아요.(웃음)”

글 허윤희, <한겨레> 기자 사진 제공 김원영

# 확장현실 적용 3D 나무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아니라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고 싶어요.”**

삼성동 코엑스의 아티움 외벽미디어에 설치된 대형 엘이디(LED) 사이니지(다양한 정보를 디지털 화면으로 보여주는 영상장치)에 송출되는 ‘당산나무(Pivotal Tree)’ 영상을 제작한 장수호(사진 오른쪽) 감독은 이렇게 말했다.

농구장 4개를 모아놓은 크기의 압도적인 스크린 속에는 실재하는 나무라고 착각할 정도의 거대한 나무 한 그루가 바람에 흔들린다. 작품명 ‘당산나무’는 동료 작가들과 함께 구성한 프로젝트 그룹 ‘피보탈 랩(Pivotal Lab)’에서 따왔다.

세상의 중심에 선 나무와 그가 말한 고난을 극복하는 믿음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우리 선조들은 마을의 안녕을 위해 나무를 심고 정성을 다해 신목으로 가꿨잖아요? 그걸 ‘당산나무’라 불렀는데, ‘세상의 중심에 선 나무’가 마을을 지켜준다는 신념이 있던 거죠.”

이 영상은 ‘전통의 현대적 재해석’이라는 주제를 담은 공모 ‘서울미디어아트’에서 선정된 결과물이다. 그는 오랜 세월 지켜온 전통을 단순히 시각적인 것이 아니라 정서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어떻게 고민했단다. 이어서 작품의 화두는 ‘오랜 생명력과 마을 사람들의 염원’이라며, “이를 위해 실시간 콘텐츠와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데이터 연동 플랫폼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그래서 ‘당산나무’는 실시간 그래픽 구현이 가능한 3D 가상환경으로 구축됐으며, 작품에 몰입되도록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을 넘어 확장현실(XR) 기술을 활용했다.

이 얘기를 들으니 코로나19로 한 치 앞을 모르는 현대사회에 던지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지 궁금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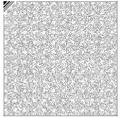
“당산나무는 사실 특별한 나무가 아니에요. 하지만 특별하다는 신념이 오랫동안 전해오지 않았나요? 이처럼 불안한 요즘, 평안과 안녕을 바라는 상징으로 인식되길 바랍니다.”

## 장수호

감독



장수호는 중앙대학교에서 예술공학을 전공했으며, 비주얼케이 비주얼아트디렉터로 일하고 있다. 주요 활동으로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5·18 기획전시 <오월, 별이 된 들꽃>(2020), 한아세안정상회담 문화혁신포럼: 방시혁 기조연설 비주얼아트디렉터(2020), <BTS: Map of the Soul 7> 기자간담회 비주얼아트디렉터(2020), 유니버설발레단 <춘향> 영상디자이너(2018) 등이 있다.



### “혹시 유튜브에 나오는 분 아니세요?”

서울문화재단 영상 채널 ‘스팍TV’를 관리하는 김세린 씨는 출근하는 승강기 안에서 우연히 마주친 동료들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고 귀띔했다. 비록 수십만 명의 구독자를 자랑하는 인플루언서는 아니지만, 회사의 일상생활을 전하는 브이로그 주인공으로 데뷔한 그를 알아보고 주위에서 인사를 건네기 시작했다.

졸업 이후 우연한 기회에 재편집한 여행 콘텐츠를 올리는 것으로 시작해 이제는 서울을 대표하는 문화예술 공식 계정인 ‘스팍TV’에서 크리에이터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 원래는 젊은 창작자를 지원하는 서포터 역할이었는데, 구독자의 가려운 부분을 알아챘을까. 전면에 나선 그가 지루한 기관 영상이 톡톡 튀는 콘텐츠로 주목받는 데 일조한 것이다.

“처음 카메라 앞에서 어쩔 줄 몰라 쪼쪼매던 기억이 나네요. 하지만 촬영을 거듭할수록 익숙해져 마지막 에피소드까지 마쳤습니다.” 출근길 편, 점심 편, 사진작가 편, 재택근무 편, 출장길 편 등 반년 가까이 참여한 작품 수만 해도 이미 10편이 넘는다. 한 주에도 수십 편씩 쏟아지는 콘텐츠 중에서 유독 눈에 띄는 그의 영상은 다른 것에 비해 100배가 넘는 조회수를 자랑할 정도다.

때로는 조연으로, 때로는 주연으로 정반대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아쉬운 점이 없었는지 궁금했다. “괜찮은 영상인데 계약 요건 때문에 홍보가 안 돼 사장되는 안타까운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뻑뻑한 마음으로 영상을 돌려 보니 대중이 원하는 공감 요소를 찾을 수 있더라고요.” 대단원의 막을 내린 마지막 에피소드 ‘해단식 편’을 공개하며 유튜브 활동에 대한 꿈을 밝혔다. “몇 달간 이어온 작품들을 되돌아보니 그동안 고생한 기억이 머리를 스쳐요. 이제는 영상을 꾸준히 기록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 같아요.”

글 이규승\_서울문화재단 홍보IT팀장

## V로그, 톡톡 튀는 기록

### 김세린 크리에이터



김세린은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를 졸업했다. 병원 마케팅 회사의 글로벌마케팅팀에서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상담과 내원 통역을 맡았다. 해외여행과 비행기 탑승 리뷰를 주제로 유튜브 활동을 시작했으며, 서울문화재단 홍보IT팀에서 재단의 공식 계정을 운영·관리했다. 영상 분야에서는 ‘삼성화재 다이렉트 걱정없이 지금 출발 여행 서포터즈’ 크리에이터 3기로 활동한 바 있다.

동장군(冬將軍)과  
함께 왔던  
불청객  
입춘(立春)  
우수(雨水)  
다 지나고  
꽃피는  
춘삼월(春三月)  
호시절(好時節) 오면  
꽃가마 타고  
오던 길 돌아  
멀리멀리 떠나기를

\*경동시장: 400여 개의 한의원과  
건재상들이 밀집해 있는 한약재 집산지.  
전국 약재의 80%가 거래되는  
대표 재래시장이다. 현재 청량리청과물시장과  
연결돼 1,000여 개가 넘는 농수산 및  
생활품 전문 시장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다.

글·사진 김영호 서울문화재단



국산 (야생) 적하수오  
국산 천문등  
백출 <삼주백>  
차가버섯  
국산 강원도 정약도라지  
국산 산지치  
국산 백도라지 강원도산  
산더덕  
동배  
황기 제천황기  
초석잠  
진음금  
최고사리 124,000원  
자연산 등이버섯  
등이버섯  
등이버섯



등골레  
(3개)

돼지갈자  
(북은)  
한국산

노니  
베드나

느릅나무  
<유근피> 강원도양양

우사  
한국산

금보배주  
한국산

특자연산  
오스  
(사우물피부)

특자연산  
자가비섯  
우물<라바>

특자연산  
영경키  
한국산

특자연산  
상항배섯

한국산  
특망키  
한국산

생자연산  
허개열매  
(가원도 영월)

참웃

특자연산  
산장대  
역사

특자연산  
<능이버섯>

특자연산  
생치  
1kg 6,000원

기암가래채우  
천근

배하수오  
은조종

특자연산  
우서니

특자연산  
우스  
(사우물피부)

특자연산  
여주

영경키  
한국산

산대

특자연산  
여주

특자연산  
산대

특자연산  
느릅나무

# 하나하나 함께 만들어가며 기여하는 커뮤니티를 꿈꾼다

## 청년기획자 플랫폼 11111을 돌아보는 간담회

청년기획자들의 성장·협업·연대를 위한 커뮤니티 플랫폼 '11111' (one.parti.xyz)은 2020년 서울문화재단과 청년기획자 그룹 '11111'이 진행한 청년기획자 플랫폼 기반 조성 프로젝트를 통해 만들어졌다. 청년기획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청년기획자들이 주체가 되는 기획자들의, 기획자들을 위한, 기획자들에 의한 커뮤니티를 꿈꾼다. '11111'은 커뮤니티 가입자가 필수로 거치는 '설문 인터뷰'부터 참여자와 교류하는 공론장 '온라인 살롱', 민주적 절차로 진행된 '커뮤니티 기여전'까지 새로운 실험을 거듭하며 운영되고 있다. 초기부터 청년기획자 플랫폼을 함께 구상하고 꾸려나간 3명의 기획자와 3명의 참여자가 만나 지난 1년을 돌아보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상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일시** 2021년 2월 16일(화) 오전 10시 30분~오후 12시 30분  
**장소** 청년예술청 그레이룸  
**진행** 임현진(면지) #거리예술 #축제 #독립기획자  
**참여** 장경수(하리) #영상기획 #출판기획 #2020년 메인테이너  
김문성(문성) #전시기획 #시각기반 예술기획 #2020년 오거나이저  
정한나(서유) #커뮤니티아트 #커뮤니티 #워크숍자판기  
#2020년 오거나이저  
목민우(마띠) #공연기획 #무대 #연출 #2020년 오거나이저  
정승구(씽) #빠띠 #민주주의 #커뮤니티 #플랫폼

\*( )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사용하는 별명이다.

## 나 같은 기획자를 만날 수 있을까

**임현진** 청년·기획자·플랫폼 세 단어는 사람을 혹하게 하는 매력이 있는 동시에 모호함도 갖고 있는데요. 11111이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건 이 사업을 기획하면서 공유한 '나 같은 기획자 만나기'라는 말이 그 모호성을 보완해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오신 다섯 분이 11111에서 만난 청년기획자는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된 동기도 덧붙여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한나** 최초에 '나 같은 기획자'라는 말이 나온 배경을 말씀드리면요. 저는 저처럼 30대 정도의, 장르는 불명확하고, 경력이나 경험도 어중간한 경계에 서서 각자도생하는 기획자들에게 누군가 연대의 단초를 제공하면, 모여서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책의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나 같은 기획자'를 공식적으로 지원해 달라는 제안을 서울시 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자율예산' 문화분과에 했고, 시기가 잘 맞아서 여기까지 왔어요. 실제로 나 같은 기획자를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상대적으로 필요가 더 간절하거나 시간 여유가 있는 신진 기획자가 많이 모인 것 같긴 해요. 플랫폼 전체적으로는 나 같은 기획자의 존재를 분명 확인할 수 있었고, 앞으로 더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김문성** 저는 플랫폼에서 만난 사람들을 규정하는 것이 조심스러운데요. 그래서 이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들어보고 지켜보면서 같이 가는 입장으로 제 자신을 포지셔닝한 것 같아요. 만나다의 자체가 제게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자 이 사업에 참여한 이유였어요. 청년·기획자·플랫폼 이 세 단어는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다 생각해요. 2015년 유엔에서 연령대 기준을 바꿨는데 65세까지가 청년이에요. 청년기본법은 34세, 서울시는 39세인데 유엔은 60대로 넘겨버린 거죠.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기획자로서 저의 정체성이 모호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저와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규정을 같이 해보고 능동적으로 활동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상투적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혼자 하면 상상이



되고 함께 하면 현실이 된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기에 그렇게 모인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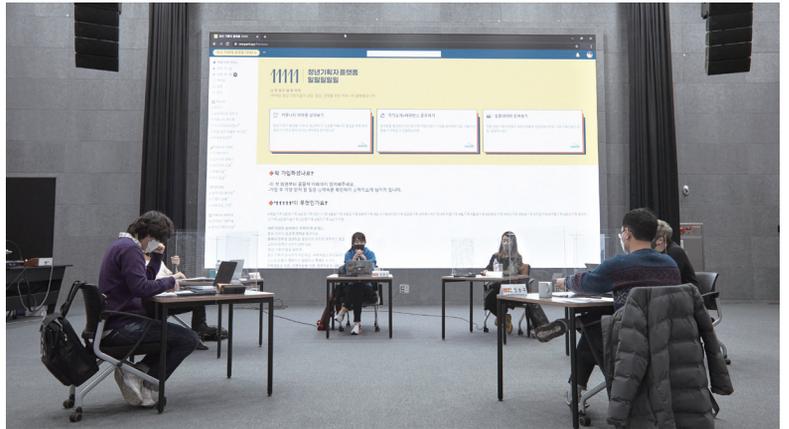
**장경수** 저도 ‘나 같은 기획자’를 호명한다는 이야기에 호기심이 생겼어요. 개별 사례나 목소리를 취합하는 과정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참여했구요. 막상 만나 보니 갈증이 있는 사람들이 모였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특정 분야의 동료들 만나서 소통하고 싶은 갈증뿐 아니라 같이 어울리고 유대하는 것에 대한 갈증도 느껴졌어요. 많은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교차로 같은 플랫폼이라고도 생각했구요.

**육민우** ‘나 같은 기획자’가 상징하는 것이 있고 여기에 반응하는 방식은 다 다를 텐데요. 뻘한 구조에 적응하는 기획자가 아닌 구조 밖에서 자기 시도를 하는 기획자를 플랫폼에서 만나는 것을 상상하고 시작했어요. 그게 과연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은 있었어요. 저희끼리 내린 결론은 ‘나 같은 기획자’보다는 경험이 없는 사람들을 만날 수 밖에 없고, 스스로 활동하는 기획자는 프리랜서로 존재하기보다 시장 안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나 같은 기획자’는 많이 만나지 못했지만 주체적인 기획자는 만났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정승규** 이 사업은 청년정책 제안으로 시작했고, 당사자의 문제에서 출발해 실행도 당사자가 한다는 점이 신선해서 참여해 보고 싶었어요. 빠띠<sup>1</sup>의 중요한 활동 중 하나가 민주적인 커뮤니티를 만드는 일인데요. 청년기획자 한명 한명이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같이 실험해 보면 재미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일반적으로 커뮤니티에 참여하기보다는 서비스만 이용하는 사람이 많은데, 여기에는 마음의 씨앗 같은 질문을 갖고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데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 남기고 싶은 한 가지

**임현진** 2020년에는 예기치 못한 변수가 많아서 변수에 적응하는 데 도가 텃을 것 같은데요. 많은 것을 덜어내고



새로 더한 과정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고요. 그 과정에서 한 가지 남길 수 있다면 무엇을 남길지 질문드리고 싶어요.

**정한나** 하나만 남긴다면 사람 아닐까요. 저는 스스로를 기획자라고 정의하지만 엄격한 동료들은 ‘너는 기획자가 아니다’라고 했어요. 기획자는 짜놓은 계획대로 가야 하는데 그 자리에서 계획을 다 바꾼다는 거예요. 코로나19라는 엄청난 변수가 있었지만 이런 제 작업의 특이성과 탄력성과 융통성 있는 동료 덕분에 거센 파도를 헤쳐올 수 있었어요.

**김문성** 저는 단 하나만 남긴다면 만나서 무언가를 하는 접점이 생기는 순간, 특정할 수 없는 상대와 상호작용하는 순간 말고는 없을 것 같아요. 플랫폼을 설계할 때 모든 기준은 규정할 수 없는 청년기획자에 맞춰졌어요. 각각의 청년기획자들이 서로 모른다면 먼저 자기를 소개하며 상호작용하는 안에서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했구요. 어떤 방식으로 할지 고민이 많았는데 오히려 코로나19가 온라인 플랫폼으로 실험할 수 있게 해줬어요.

**육민우** 하나만 남길 것은 저도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청년기획자 플랫폼 11111  
간담회 현장

<sup>1</sup> 11111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인 빠띠 카누(parti.xyz/about)와 협업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현진, 장경수, 정승구

없을 것 같아요. 저희 3명(따띠·서유·문성)의 기획자는 영역과 경험치가 다 다르고 풀어나가는 방식도 달랐어요. 혼자서는 하루 이틀이면 끝날 일도 3명이 만나서 협의해야 했는데요. 각자의 경험치를 조금 내려놓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도 많이 배웠어요. 코로나 시기에는 서유(정한나)의 주도적인 스타일이 잘 먹혔던 것 같아요. 중간에 포기하고도 싶었지만 결국 해낼 수 있었던 힘은 연대와 동료에 있어요. 인내하지 않으면 사람을 얻을 수 없고, 기다리지 않으면 완성된 그림을 보지 못해요. 상대방을 신뢰하는 데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했어요.

**장경수** 저는 온라인 살롱의 진행 방식과 같이한 사람들의 반응을 관찰하고 참여하면서, 코로나19 이전에는 잘 몰랐지만 이렇게 해도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온라인에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식, 알 수 없는 랜선에서의 감정과 분위기가 느껴지는 생경한 경험이었어요. 거부감을 갖기보다 낯설지만 친숙하게 느낀 부분이 분명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승구** 플랫폼을 시작할 때 변수를 다루는 것이 따띠의 역할 중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따띠는 살롱과 기여전의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실험하는 역할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 살롱의 경우 참여하는 분들이 호호하고 실험적인 형식을 낯설어하면서도 흥미로워하며 적극적으로 피드백을 주셨어요. 이렇게 실험하고 피드백하며 개선해 나가

는 문화가 이 플랫폼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하나를 남긴다면 '실험'이 아닐까 생각해요.

### 반응하는 참여자

**임현진** 저는 첫 경험인 온라인 살롱이 정말 흥미로웠고, 이곳에 내가 아는 용어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좋았어요. 제가 주로 사용하는 말과 문장을 쓰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궁금했거든요. 플랫폼을 열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만나면서 여러 반응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정한나** 저는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대응하면서 진행되는 편인데 온라인은 가늠이 잘 안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오디오와 비디오를 끄고 사라지면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다 쳐고 만나는 게 예의라고 사전에 아무리 안내해도 다들 그렇게 행동하는 거죠. 따띠가 큰 틀에서 살롱을 진행하는 약속문을 공유하고 약속을 하면서 시작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간 것이 좋은 단초였고요. 구글 공동문서와 같은 툴을 사용했는데 저도 많이 배웠어요. 우리 안에서 경험과 학습이 같이 일어난 유의미한 자리였어요.

**임현진** 저도 온라인으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면서 참여자와 교감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았는데요. 여기는 여러 장치가 마련돼 있어서 참여해볼 만하고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얻을 수 있다는 안정감을 줬어요. 따띠는 이런 것을 원래부터 알고 있었는지 궁금했어요.

**정승구** 따띠 팀은 살롱을 단순한 네트워킹 모임이 아닌 기획자들의 이슈에 관한 공론장으로 기획했거든요. 말하고 흩어져 버리는 게 아니라 남기고 재해석하고 여기서부터 다른 실험이 생기는 구조를 만들어보자는 의도였어요. 살롱 참여자들의 참여 수준을 골고루 끌어올리기 위해 여러 가지 장치를 두긴 했어요. 주제와 살롱의 의도를 구체적으로 제시했고, 모임 모집 글에 세부 질문을 올려놓고 사전 읽기 자료도 준비했어요. 이런 구조화된 살롱 경험을 '좋은 경험'으로 말씀해 주신 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김문성** 초기에 사람들을 직접 만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온라인 설문조사로 시작하면서, 우리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사람들에게 말을 건넨다면, 사람들이 분명 반응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기쁘고 놀라웠던 건 다른 많은 기획자가 진짜 그렇게 반응해 줬다는 사실이에요. 우스꽝스러운 이미지를 넣어가면서 기획자로서 우리의 고민을 담은 설문조사에 솔직하고 개인적인 고백에 가까운 이야기로 응답해 줬어요. 온라인 플랫폼으로 전환해도 텍스트와 톨 너머의 사람을 발견하고 연결감을 가질 수 있다면 계속 갈 수 있겠다는 감각이 있었어요.

**목민우** 살롱에서 한 경험이 모두가 다 갖지는 않았을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쉽고 익숙했지만 누군가에게는 어려울 수 있었고요. 사람을 만나려는 욕구와 필요를 주체적인 방식으로 푸는 기획자가 있는가 하면 기획자의 정체성은 있으나 누군가 설정한 방식에 따라 받기만 하려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 구성원들이 지금 플랫폼에 섞여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주체적인 기획자를 만나기 위해 플랫폼을 열었지만 반응하는 방식은 다 달랐다는 경험이 있습니다.

### 경쟁적으로 커뮤니티에 기여하는 일

**임현진** 설문조사의 섬세함이 '이 사람들은 내 얘기를 제대로 들어줄 것 같다'는 신뢰가 형성되게 한 것 같아요. 이제는 언제까지 들어줄지 고민이 생길 시점 같은데요. 그래서 반가웠던 접근이 '기여전'이었어요. 사업을 직접 하는 것이 빠르고 편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참여를 우선에 두고 설계한 이유가 궁금해요.

**김문성** 저희는 먼저 시작한 사람이지만 층위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저희도 일원으로 참여해 플랫폼을 통해 동등하게 만나고 같이 무언가를 만들어나가는 장으로서의 커뮤니티를 생각했기 때문에, 민주적으로 논의하고 콘텐츠도 모두가 원하는 방향으로 채워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목민우** 저희는 누가 물어보면 같이 만들었다고 해요. '기여전'이라는 단어도 온라인 회의에서 기여로 풀면 좋겠

다고 얘기하다가 썸(정승구)이 '기여전인가요'라고 하면서 처음 나왔어요.

**정하나** 처음에 브레인스토밍을 하다가 '기여를 경쟁적으로 한다'는 발상이 재미있다고 생각했어요. 이미 플랫폼 안에 그런 오라(aura)와 방향성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촉발됐고요. 설계할 때는 기획자들이 각자 자기 실험을 펼치면서 커뮤니티에 기여도 하는 것을 얼마나 이해하기 쉽게 전달할지가 고민이었어요. 작년 12월부터 3개월 동안 진행된 기여전은 플랫폼을 활성화해 주는 좋은 장치이자 활동이었어요. 플랫폼 안에서 작은 활동도 일종의 실험을 계속하는 것이라 앞으로도 실험적인 부분은 남아야 한다고 썸(정승구)이 얘기했어요.

**정승구** 기존 공모전에 대한 비판 의식이 있었고, 우리 플랫폼에서 공모전 형식으로 하는 것은 도전이라 고민이 길었지만 결과적으로 재미있는 실험이 됐어요. '기여전'이라면 전시·축제 등 여러 의미를 담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돌아보면 기획자들이 모여서 한 기획인데 색다른 방식이었어요. 설문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살롱을 하고, 살롱에서 나온 이야기를 참고해서 출발한 실험이 기여전이예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기획된 것은 아니고 중간에 소음과 불필요한 정보도 있었지만 양질의 의미 있는 이야기를 계속 쌓아나가면서 전진해 온 것 같아요.

**김문성** 기여전은 유의미한 실험이었다고 생각해요. 기존의 공모전 방식이 아닌 기획 노동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방식으로 구성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기획자



11111가 입을 위한 설문조사 시작 화면

에게 전권을 주면서도 일종의 파트너십을 갖고, 비판이 아니라 실제 도움을 줄 수 있게 피드백하는 방식을 고민하고 진통을 겪으면서 과정을 만들어냈어요.

**임현진** 저는 오거나이저들은 기여전이라는 실험을 하고 참여자들은 기여전을 통해 실험하는 구조가 흥미로웠어요. 참여한 사람 입장에서서는 정산을 하는 사업보다 내부 검열이 심했구요.

**정승구** 개인적으로 영감 받은 것은 참여예산제도였어요. 커뮤니티 안에서 공공재인 예산을 커뮤니티를 위해 어떻게 쓸지 함께 결정해 보자는 것이었어요.

**독민우** 연대를 실험하는 또 다른 방식이 기여전이었는데요. 공모전 문제를 토로하는 과정에서 나온 핵심 가치는 ‘얼마나 믿을 수 있는가’였어요. 청년들에게 예산을 맡기면 제대로 써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했어요. 주체가 명확한 지속성 있는 커뮤니티로 존재해야 신뢰를 쌓을 수 있다는 것이 작년에 만들어가고자 한 플랫폼의 방향이었는데요. 명확한 주체인 저희 3명이 얼굴을 내놓고 설문을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문성** 참여자들에 의해 여지가 발생하고 이것이 쌓여가면서 다음 작업으로 들어가는 것이 커뮤니티의 특성이라고 생각해요.

**정한나** 청년들도 막상 주체성이 주어지면 혼란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기여전을 설계할 때 참여자들이 어느 선에서 정리하고, 그 기준선은 어디에서 기인하는지 보고 싶었어요. 예를 들면 300만 원이라는 비용을 각자 어떻게 정산할지 궁금한 거예요. 기존의 지원사업 안에서 관습적으로 정산하던 버릇이 있는 사람도 있을 테고요. 저희는 가이드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 공유회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데이터가 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단서가 될 수 있겠죠.

### 기획자의 정체성에서 힌트를 찾다

**임현진** 저는 플랫폼에서 진행한 데이터 분석과 심층 인터뷰가 플랫폼의 존재 이유를 설명했다고 생각해요. 하리

(장경수) 님과 문성(김문성) 님이 진행하면서 발견한 부분과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고 발전시키면 좋을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문성** 저는 설문 의 응답과 플랫폼 내의 기록 등을 갖고 빅데이터 분석을 주로 진행하면서 거리를 두고 그림을 그려나갔다면, 하리 님은 내부에서 세밀하게 들여다보면서 그려나가는 작업을 하면서 각각의 단면을 모아 기획자의 정체성과 노동을 살펴봤어요.

**장경수** 심층 인터뷰로 기획자가 사회적인 직업군으로 정당하고 명징하게 분류되고, 구조화된 시스템에서 위치를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한 거시적 시선과 내부적 시선이 드러났어요. ‘기획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질문에 기획 분야에서의 자리매김과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많이 나왔고요. 기획자들이 자신이 느낀 문제의식을 바꿔야겠다는, 행위를 수행하는 전환점을 수집할 수 있었어요. 플랫폼 안에서 기획자의 인건비를 잡아보자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저도 기획자의 정체성에 대한 힌트 중 하나가 노동에 대한 확실한 포착일 거라 생각해요.

**임현진** 하리님은 빅데이터로 분류한 기획자의 5가지 유형<sup>2</sup>을 어떻게 봤는지 궁금해요.

**장경수** 데이터를 통해 얻은 명제 중 하나는 ‘기획자는 주변의 삶에 관심이 깊고 반영하려는 의식이 있다’는 것인데요. 인터뷰를 통해서도 빅데이터에서 분류한 유형의 성격이 느껴졌어요. 이런 군집화가 올해 11111의 사업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 같아요.

**김문성** 유형화는 MBTI처럼 사람들을 분류해 넣는 작업이 아니라, 청년기획자들이 다양한 현장에서 고민에 부딪히며 이를 타개해 온 방식이 5가지로 나온 건데요. 이를 유형화해서 공유한 것은 기획자들이 만나는 접점을 확인하고 연대해서 다음 방향을 모색하는 데 힌트를 주는 지형도를 보여주기 위해서였어요.

<sup>2</sup> 실행중심형, 프로젝트 주도형, 콘텐츠 주도형, 네트워크 추구형, 자기성장형 5가지이다.



저는 현장에서의 고민이나 사례를 통해 거시적인 관점에서 청년기획자를 그려냈는데요. 청년기획자들은 구조적으로 양극화된 사회에서 주체적으로 활동할 공간은 없지만, 능동적으로 자기 목소리를 내고 사회에 기여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 뻔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실제 데이터를 통해 명징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활동은 직업군이나 직위, 명칭으로 규정되지 않고,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아우르면서 그림자 노동을 해야 하는, 아직은 현대사회에서 주목하지 않는 부분이었던 거죠. 유형화는 이들이 무엇을 해왔고 어떤 고민에 부딪혔는지에 대한 구체성을 보여주는 작업이었어요. 데이터를 다루는 용어 때문에 '타입'으로 나왔는데, 규정화되거나 틀에 갇히지 않게 언어적으로 잘 전달하는 부분은 저의 숙제 같아요.

### 내가 상상하는 플랫폼

**임현진** 마지막으로 2021년 이후에 상상하는 청년기획자 플랫폼은 어떤 모습인지, 기획자 개개인이 하고 싶었던 실험은 무엇인지를 얘기해 주세요.

**정한나** 하고 싶은데 못 했고 앞으로도 못 할 것 같은데요. 저는 정말 자주 만나서 놀고 싶었어요. 기획자들은 일단 모아놓으면 뭐라도 벌어진다는 것이 대전제였거든요. 5인 미만으로 100번 만나볼까 봐요.

**목민우** 이 플랫폼이 자발적으로 돌아가는 커뮤니티로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있어요. 올해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기획자들의 주체적인 활동이 담기면 좋겠고, 무엇이든 기획자들이 그냥 해보는 실험이 많이 일어나면 좋겠어요.

**정승구** 올해는 좋은 협업을 경험하는 그룹이 만들어지고, 이 그룹들이 기여하는 프로젝트가 더 안전하면서도 실험적으로 진행되고 자연스럽게 커뮤니티에 기여하는 단계로 가면 좋겠어요. 분석한 유형이 올해 협업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참고자료가 되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다음을 기약할 수 있는 그룹이 만들어지고 이 그룹들이 커



뮤니티에 기여하는 기둥이 되는 모습을 상상해 봤어요.  
**장경수** 2020년에는 기획자들의 협업에 대한 갈증이 많이 보였는데요. 2021년에는 다양한 분의 갈증이 충족되고 시너지가 잘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지금 11111은 협업을 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공간 같은 느낌이예요. 이 플랫폼에 모인 사람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공간에 한층 더 축적되는 해가 됐으면 합니다.

**김문성** 저는 데이터가 공공재로서 기능하는 플랫폼이기를 바랐어요. 당사자들에게는 자신의 현재를 확인할 수 있고 나아가 성장·협업·연대 3가지 키워드로 시너지가 일어나고 확장되는 공간으로 기능한다면 2021년의 가장 좋은 모습일 것 같아요. 반추해 보면 다정하고 예상치 못했던 솔직함으로 반응해 준 순간이 기억에 남아요. 설문에 자신을 알아주는 것 같아 눈물이 났다는 고백으로 반응해 준 누군가, 자신의 레퍼런스를 정성스럽게 남기고 함께하고 싶다는 댓글을 달아주던 누군가, 이런 상호작용의 장면들이 결국 플랫폼에 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임현진** 다정함과 진솔함을 기반으로 서로 배려하고 기여하겠다는 마음을 기본값으로 하고, 어떤 주제에 대해 같이 토론하고 의견이 다르더라도 건강하게 질문하고 새로운 관점을 가져볼 수 있는 질문이 많은 플랫폼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리** 전민정, 객원 편집위원 **사진** 서울문화재단

(왼쪽부터)  
김문성, 목민우, 정한나

## 문학작품 표절 방지 노력이 필요하다

문학 공모전 표절 논란

이번 사건의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문학작품 표절에 대한 개인의 윤리 의식이 낮았다는 것. 표절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 높아진 만큼 문학계 내부에서도 각 개인이 저작권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수밖에 없다. 가장 뜨겁게 논의되고 있는 건 두 번째다. 이번 사건이 표절을 거를 수 없는 문학 공모전의 구조적 문제였다는 것이다. 지난해 문학 공모전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사이트 ‘엽서시문학공모전’에 게시된 공모전 수는 836건에 달할 정도로 난립한 상황이다. 규모가 작거나 새로 생긴 공모전 운영 업체는 예산 부족으로 표절을 걸러낼 시스템이 사실상 없었다. 이 같은 문제 때문에 그동안 운영을 자율에 맡긴 문학 공모전에 최소한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 울타리인가, 올라미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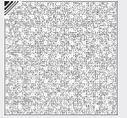
먼저 문화체육관광부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학 공모전에 ‘표절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나섰다. 전국에서 열리는 문학 공모전 실태를 조사하고, 이에 맞춰 표절을 적발하는 메뉴얼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일부 작가 단체도 문학작품 데이터베이스를 마련해 표절 여부를 검토하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러나 현직 작가들은 비판적이다. 한 소설가는 “문장과 표현을 섬세하게 파고드는 문학작품을 일률적인 기준으

표절보다 도용에 가까운 일이었다. 최근 A 씨가 기존 문학상 수상작을 베껴 5개 문학상을 수상한 사건 얘기다. A 씨는 “사과를 받아주는 분이 한 분이더라도 있다면 찾아가서 무릎 꿇겠다”고 했지만 사건은 잠잠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로 판단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다. 다른 소설가는 “문학작품은 논문과 다르다. 표절 방지를 위한 울타리가 아닌, 창작을 제한하는 올라미가 될 수 있다”라고 했다. 최근 가수 홍진영, 스타 강사 설민석의 논문은 인공지능으로 표절 여부를 검토하는 ‘카피 킬러’를 통해 표절임이 밝혀졌지만 문학작품은 이와 달리 표절을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유명 작가가 쓴 문학작품의 표절 여부를 판단하는 일은 쉽지 않다. 2015년 소설가 신경숙의 단편《전설》이 일본 작가 미시마 유키오의《우국》을 표절했는 것이라 의혹이 제기됐지만 문학계에선 표절 여부를 두고 의견이 아직도 분분하다. “표현에 유사성이 있지만 창작의 일부”라는 의견과 “사실상 베낀 것과 다름없다”는 반박이 6년 가까이 이어지며 문단의 상처도 깊어졌다. 지금도 문학작품의 표절 여부를 제대로 심사하는 사이트는 없다. 결국 작가 스스로 표절을 인정해야만 논란이 종결되곤 한다. 소설가 박민규는 2015년 장편소설 데뷔작《삼미 슈퍼스타즈의 마지막 팬클럽》과 단편《낮잠》이 각각 인터넷 게시판 글과 일본 만화를 표절했다는 의혹에 직면했다. 박 씨는 처음에는 “혼자 동굴에 앉아서 완전한 창조를 한다고 해도 우연한 일치가 일어날 수 있다”며 표절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논란이 이어지자 “명백한 도용이고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사과하며 중지부를 찍었다.



### 어떻게 검토할 것인가

문학작품은 표절 여부를 가리기 쉽지 않다라도 공모전에선 현실적으로 표절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특히 유명 작가가 아닌 작가 지망생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전이라면 표절을 검토하기 위한 최소한의 합의가 필요하다. A 씨 도용 사건의 경우엔 '구글링'만 했어도 표절임을 알 수 있었는데 최소한의 검토도 이뤄지지 않았다. 심사 과정에서 "모든 당선 작품은 검색 엔진을 통해 표절 여부를 검토해 보자"는 말만 나왔더라도 이번 사건은 벌어지지 않았다.

최소한의 기준을 만든다면 문체부가 2007년 내놓은 '영화 및 음악 분야 표절 방지 가이드라인'을 참고해볼 만하다. 당시 문체부는 표절 여부를 판단하는 데 일반인의 시선에 무게를 뒀다. 각 분야의 전문가가 표절 여부를 논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결국 작품을 보고 듣는 일반인의 눈높이가 표절의 1차적인 판단 기준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또 각 작품을 접하는 이들이 판단 주체가 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어린이들이 주로 보는 애니메이션 영화는 어린이들이 판단 주체이고, 주 시청자층의 연령대가 높은 드라마는 노인들이 유사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출판사 관계자는 "표절 논란이 일어날 때마다 독자들이 실망하고 먼저 떠난다. 작가나 평론가들끼리 '표절이다' '아니다'를 두고 싸우기보단 일반인의 시선에서 표절 여부를 바라봐야 한다"고 했다.

양질의 문학 공모전이 생기도록 지원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주장도 있다. 대학 문예창작학과에 입학하려는 입시생들과 명함에 시인이나 소설가라고 새기고 싶은 '문청'들의 욕망에 따라 문학 공모전이 우후죽순 생겨났지만 제대로 된 조직 체계도 없었다. 한 작가는 "정부가 제재보단 지원에 초점을 맞춰 문학 공모전을 관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했다.

글 이호재<동아일보> 기자

## 자문밖을 밝힐 미술관들

자문밖 미술관 프로젝트

서울에서 자연환경과 문화예술 인프라를 두루 품고 있는 곳이 어디일까? 평창동·부암동·구기동·홍지동·신영동 등 문화예술인들이 거주하며 작업하고 있는 예술 동네 ‘자문밖’이다. 서울에 남아 있는 사소문 가운데 하나인 자하문 밖을 의미하는 이 자문밖 동네 일대에는 화가·조각가·건축가·디자이너·소설가·음악가 등 예술문화인이 다수 거주하고 있다. 현재 윤명로·이종상 등 원로 작

북한산 자락이 부드럽게 흘러내린 동네, 서울 도심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한 걸음 더 들어가면 도시의 번잡함을 잊게 하는 곳. 의외로 서울 곳곳엔 이런 고즈넉한 곳이 꽤 있다. 그런데 종로구에 자리한 이 동네엔 다른 지역과 확연히 다른 것이 또 하나 있다. 구석구석 ‘보석’처럼 박혀 있는 문화 예술 공간이다.

가가 여럿 살고 있고, 김종규 한국박물관협회 명예회장, 화가 임옥상·박영남도 주민이다. 이 동네엔 미술관과 갤러리만 해도 40여 개가 넘는다. 예술인들이 모이다 보니 음악회와 전시 등 작은 축제도 자연스럽게 열렸다. 그러면서 ‘자문밖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품기 시작했다. 세상에 이런 동네가 또 있을까. 그리고 이들은 동네의 남다른 가치에 주목하며 함께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게 바로 ‘자문밖 미술관 프로젝트’다.

자문밖 미술관 프로젝트는 가나문화재단(이사장 김형국), 자문밖문화포럼(이사장 이순중), 종로구청(구청장 김영중)이 함께 추진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자문밖에 거주해 온 작가들의 자택과 작업실을 미술(자료)관으로 활용하고, 한국 근현대 화단을 대표하는 거장들의 미술관을 이곳에 설립하지는 것이다. 또 현역 작가의 아틀리에를 앞으로 미술관 등으로 공개해 문화유산으로 활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 김창열, 박서보, 김구림... 거장의 터가 미술관으로

우선 이 프로젝트의 중요한 계획 중 하나로 지난 1월 타계한 ‘물방울 화가’ 김창열(1929~2021) 화백의 미술관이 지어질 예정이다. 김창열 화백은 1980년대 중반부터 평창동에 집을 짓고 타계할 때까지 살았다. 이 집 지하의

1 고(故) 김창열 화백  
자택 사진





작업실에서 그의 대표적인 ‘물방울 그림’ 다수가 제작됐다. 이 집은 재미 건축가 우규승 씨가 1988년 환기미술관 설계에 앞서 먼저 설계한 곳이기도 하다. 우규승은 후에 광주의 랜드마크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도 설계했다. 이 자택이 미술관으로 조성되면 한국 미술사뿐만 아니라 건축사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 공공 공간으로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창열 작가의 아들 김시몽 고려대 불문과 교수는 “아버지의 지하 작업실은 간접적으로 빛이 들어오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라며 “이곳이 서울의 빛나는 명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창열 화백이 타계하기 전 그의 가족은 2020년 9월 종로구와 함께 ‘구립미술관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 업무협약엔 김 화백 외에도 미술 교과서 출판과 한국적 판화의 선구자 고(故) 이항성 화백(1919~1997), 미술 애호가(소장가)이자 도서출판 삶과 꿈 김용원 대표도 참여했다. 종로구는 앞으로 (가칭) 이항성 미술관·김용원 미술관도 건립하겠다는 계획이다.

단색화의 기수 박서보, 조각계의 거장 최중태, 한국 전위 예술의 선구자 김구림을 기리는 미술관도 건립한다. 종로구는 지난 1월 19일 3인의 원로예술가와 함께 ‘구립미술관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지난해 업무협약에 이은 두 번째 협약으로 종로구는 구기동과 평창동에 새로 부지를 마련해 각각 박서보 단색화 미술관과 최중태 미술관을 지을 계획이다. 종로구는 부지를 제공하고,

작가들은 작품 100점 이상을 기증하고 건립 비용을 대는 방식이다. 김구림 미술관은 작업실이 있는 자택을 활용해 조성한다.

이 프로젝트의 하나로 ‘자문밖아트레지던시’도 출범했다. 레지던시는 젊은 아티스트들을 위한 공간이다. 현재 이 레지던시엔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친 작가 11개 팀 14명의 아티스트가 입주해 있다. 미술·건축·미디어아트·연극영화·음악·엔지니어링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이다.

### 자연과 예술이 어우러진 ‘예술밸리’ 만들 것

가나문화재단과 자문밖문화포럼은 현재 평창동 가나아트센터에서 ‘자문밖 미술관 프로젝트’ 전시를 열고 있다. 자문밖 미술관 프로젝트에 참여할 작가들을 대거 소개하며 프로젝트의 추진 동력을 확인하는 자리다. 2월 28일(일)까지 열린 1부 전시에서는 김구림·김창열·박서보·유영국 등의 작품을 선보였다. 이어 3월 5일(금) 개막하는 2부 전시에서는 고영훈·박대성·박영남·박항률·안규철·이배·이수경·이원희·임옥상·전병현·최영욱·한만영 작가의 작품을 소개한다.

2013년부터 조직을 꾸리고 해마다 예술 축제를 벌여온 자문밖문화포럼 이순중 이사장(전 서울대 미대 학장)은 “앞으로 차례로 조성될 기념 미술관들은 이곳이 세계적인 예술 밸리가 되는 데 큰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재 수석 부이사장(서울옥션 회장)은 “자문밖 동네만큼 아름다운 자연과 풍부한 문화예술 인프라를 갖춘 곳도 세계에 드물 것”이라며 “이곳을 세계인들이 꼭 방문하고 싶어 하는 동네로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중 종로구청장은 “구립미술관 1호 박노수 미술관과 2호 고희동 미술관을 통해 예술가의 집이 어떻게 많은 관람객과 소통하는 문화 공간이 될 수 있는지를 경험했다”며 “앞서 두 미술관을 운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미술관 건립을 차근차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글 이은주<중앙일보> 기자 사진 제공 종로구청, 가나아트재단

2 서울 구기동에 지어질 박서보 단색화 미술관 이미지. 정윤서 건축가가 설계를 맡았다.

## 청년예술을 다시 쓰며

서울청년예술인회의 《숨은참조: 청년-예술인》발행

지난 2월, 서울청년예술인회의는 2020년 활동 내용과 사업 결과를 공유하는 단행본 《숨은참조: 청년-예술인》을 발행했다. 서울청년예술인회의는 청년예술인을 중심으로 문화예술정책의 협치 구조를 모색하기 위한 서울문화재단의 거버넌스이다. 청년예술인이 주체성을 갖고 자신의 이야기를 발화하는 동시에 정책을 제안하는 플랫폼이 되기 위해 가장 먼저 한 일은 답문을 형성하는 것, 즉 현장의 목소리를 모으는 일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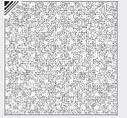
### 청년예술을 다시 쓰는 이유

시작은 정체성에 대해 스스로 던지는 질문이었다. 서울청년예술인회의에서 의미하는 ‘청년예술인’은 누구인가? 나이나 활동 경력이 적으면 청년예술가인가? 알려지지 않았거나 생계가 어려우면 청년예술가인가? 그것도 아니면 도전적이고 실험적인 예술 활동을 하면 청년예술가인가? 애초에 이 질문에 하나의 정답만 있지는 않다. 다만 대부분의 청년정책에서 규정하는 청년예술인은 위

기준을 복합적으로 따라왔다. 기준이 혼재하는 문제 이전에, 우리가 주목한 점은 사회적으로 규정하는 ‘청년’의 정의를 과연 예술 현장에서 ‘청년예술인’ 합성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나아가 사회적으로 일반화된 시선이 청년예술(인)의 특정 상을 고착하고 내재화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타인이 규정하는 하나의 정체성이 아닌, 청년예술인 스스로 말하는 다양한 정체성을 찾고자 했다.



1 다양한 예술인이 각자의 작품을 매개로 대화를 나누는 집담회 (타격감) 3회차 진행 모습



### 숨은참조: 청년-예술인

《숨은참조: 청년-예술인》은 청년예술인들의 이야기를 다양한 형식으로 엮어냈다. 서울청년예술인회의에서 운영하는 웹진의 이름이기도 한 ‘숨은참조’는 우리가 말하는 현장에 숨어 있던 이야기가 정책의 변화를 이끄는 데 참조가 되길 바란다는 의미를 담았다. 또 관련 분야에서 사업을 설계하고, 연구를 위해 사례를 찾고, 현장의 동료로서 함께 고민을 나누고 싶어 하는 누군가에게 이 책이 숨은참조가 되길 바라는 의미가 있다. ‘청년-예술인’이라는 부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책의 목적은 예술인에게 부여된 청년의 의미를 잠시 거리를 두고 살피는 것이다. 그래서 이 탐색 과정은 결국 사람을 만나는 일이었다. 포럼을 비롯한 다양한 형식으로 청년예술인의 이야기를 말하고, 듣고, 읽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한 예술인의 사적인 목소리가 모여 예술 현장과 정책을 변화시키는 담론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책의 내용은 웹진 <숨은참조>의 이야기를 갈무리하며 이를 전체 맥락 속에서 재구성했다. 구성은 1장 ‘예술인으로 살아가기’에서 2장 ‘정책의 안팎에도 살펴보기’로 이어진다. 1장에서는 청년이라는 공통 이름표를 떼고 예술가 개인의 삶을 주목했다. ‘현장인터뷰’는 익명의 예술인을 만나 그가 예술인으로서 지나는 시간과 고민을 담았다. ‘미니포럼’은 예술대학생이 말하는 포스트 예술대학을 위한 공론장을 기록했다. 마지막으로 ‘타격감’은 ‘타인을 향한 격한 공감’의 줄임말로, 다양한 예술인이 각자의 작품을 매개로 나눈 잡담회다. 2장에서는 현장의 언어가 정책 테두리까지 닿도록 연결하는 시도를 모았다. ‘미래를 여는 예술문’은 정책에서 규정하는 예술인의 의미를 재점유하고 나아가 정책 방향을 결정할 선언문을 쓰기까지의 과정을 담았다. ‘연구릴레이’는 하나의 연구 주제를 바탕으로 여러 연구자가 각자의 학술적 관점을 연재하는 프로젝트다. 마지막으로 ‘청년예술 모아 읽기’에서는 청년예술과 관련된 정책 보고서·학술연구 등을 아카이브하고 이를 주제별로 분석했다.



2 단행본  
《숨은참조: 청년-예술인》

이렇게 이 책은 예술인 각자가 느끼는 사소한 고민에서부터 이를 둘러싼 정책의 테두리를 타진하기까지의 과정을 그렸다. 그렇다면 다시 질문으로 돌아와,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청년예술인은 누구인가? 이 다층적인 이야기 속에서 어떤 맥락으로, 어떻게 엮어 읽느냐에 따라 각자가 생각하는 청년예술인의 상이 그려질 것이다.

### 담론을 형성하는 일

서울청년예술인회의는 예술인이 주체성을 갖고 자신의 이야기를 발화하는 동시에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고자 한다. 단행본에 수록된 다양한 형식의 기획사업은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담론을 형성하는 일이기도 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담론을 형성한 걸까? 우리의 이야기가 하나의 담론으로 현장을 대변하고 정책을 바꿀 만한 힘이 있을까? ‘연구릴레이’의 마지막 장 제목을 빌려 표현하자면 이것은 ‘겨우, 나침반 하나’일지 모른다. 그렇지만 나침반 하나를 얻었으니 우리는 이제 옳은 길로 나설 수 있다. 지금까지의 활동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듣는 일이었다면, 이제 더 많은 이가 자신의 이야기를 스스로 말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 할 차례다.

\* 서울청년예술인회의는 3월 중 단행본 《숨은참조: 청년-예술인》의 온·오프라인 북토크를 계획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앞으로 활동을 함께 모색할 파트너를 모집할 예정이다.

글 윤동주\_서울문화재단 청년예술청 사진 서울문화재단

## 연희동에 우주개가 불시착했다

### 복합문화공간 스페이스독

날씨 좋은 날 옥상에서 책을 읽고, 커피 마시며 친구와 수다 떨고, 예술 영화도 감상하고, 각종 '굿즈'도 구매하고, 전시도 보면서 심리 상담도 받을 수 있는 곳이다. 복합문화공간 스페이스독은 말 그대로 복합문화 공간이다.



1 라이카시네마 방문을 환영하는 마스코트

2 카페 스페이스독 2층 내부

### 당신의 소우주를 환영합니다

스페이스독... 곧이곧대로 직역하면, 공간개? 우주개? 무슨 생각으로 이름을 지었는지 궁금해 스페이스독(SPDG) 이한재 대표를 만났다. “회사 철학을 반영해 말씀드리면, 인간이 바라보는 지구 밖을 대우주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우주의 일부분인 인간은 소우주라고 말하고요. 조그만 인간도 무한한 우주를 이뤄 끝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는 거죠. 스페이스독을 사람과 사람, 소우주와 소우주가 연결되는 정거장으로 만들고 싶어요. 삶의 여정에서 잠시나마 머물기 좋은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독’은 두 가지로 읽혀요. 개(dog)와 독(dock). 개는 우리가 아는 친숙한 동물이잖아요. 친숙한 느낌을 풍기는 공간이 되고 싶었고, dock은 도킹(docking)으로 이어져 아까 말했듯이 소우주와 소우주를 연결·결합하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스페이스독은 지하부터 4층을 지나 옥상까지 각 층에서 ‘도킹의 가치’를 실천했다. 예술영화관 ‘라이카시네마’(지하), 음료를 판매하고 여유를 제공하는 카페(1·2층), 공유 오피스 스튜디오(3·4층), 옥상 ‘스페이스독 테라스’로 구성된다. 이곳은 단순히 공간을 운영하고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여러 사람 혹은 팀과 협업해 시너지를 발휘한다. 라이카시네마는 자체 기획을 통해 단순 영화만 상영하는 공간으로 머물지 않는다. 개봉 작품뿐만 아니라 직접 주제를 정해 다시 보고 싶은 영화를 선정한다. 사랑을 주제로 고르거나 배우를 주목해 하루 종일 그의 영화를 상영하는 방식이다. ‘양조위 기획전’으로 배우 양조위가 출연한 영화 <해피 투게더> <화양연화> 등을 상영한 바 있다. 상영이 끝나면 국내 영화인과 만나는 시간을 마련하거나 영화에 따라 엽서나 A3 크기 포스터를 나눠주기도 한다. 지난 2월에는 <윤희에게>로 제41회 청룡영화상 감독상·각본상을 수상한 임대형 감독을 만날 수 있었다. 또한 서울 예술영화관 중 유일하게 돌비 애트모스(Dolby Atmos) 음향 시스템을 구비했다. 영화에서 비행기가 지나가는 장면이 나오면, 실제로 비행기가 지나가듯 음향이 앞에서 뒤로 흐른다. 입체적이다. 덧붙여, 라이카시네마의 ‘라이카’는 1957년 스푸트니크 2호에 실려 생명체 최초로 지구 밖을 떠난 모스크바의 떠돌이 개 라이카를 기리며 지은 이름이다. 라이카는 지구로 돌아오지 못했다.

### 창작이 흐르는 복합문화공간

스페이스독은 ‘창작이 흐르는 복합문화공간’을 표방한다. 라이카시네마에서 창작물을 소비·경험·공유하듯, 1층과 2층 카페도 마찬가지다. 커피를 마시며 휴식을 즐길 뿐만 아니라 창작의 교류가 이루어진다. 작년 10월



2

에는 디자이너 브랜드와 협업해 팝업스토어를 열었다. “2층에는 물이 흘러요. 행사 기간에는 물을 빼고, 디자이너가 옷을 설명했죠. 물론 판매도 하고요. 저희는 외부 업체가 공간 대어를 요청하면 함께 기획해서 저희와 어울리는 조합을 만들고자 해요. 간단한 예로 당시에 저희가 디자인 컬렉션 주제를 재해석해 카테일 메뉴를 제조했어요. 이처럼 여러 브랜드와 협업해 기획을 더하면서 공간을 활용하고 싶어요.” 1층에서는 반려동물용품 디자인 브랜드 포유니온(PAW UNION)과 협업해 ‘SPDG’를 새긴 반려견 옷을 판매한다. 오는 4월에는 스페이스독 준공 1주년을 기념해 일러스트 작품을 전시하고 캐릭터 ‘굿즈’를 판매하는 팝업스토어가 열릴 예정이다. 3층은 창작자가 사용하는 스튜디오다. 뮤지션·사진작가 등이 방에 들어와 자신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중 한 방에서는 호시담심리상담센터가 청소년·성인·커플·가족의 상담을 진행한다. 이들 역시 스페이스독과 함께 일을 꾸린다. 뮤지션은 스페이스독이 낸 음원에 작곡가로 참여하고, 사진작가는 카페 메뉴나 공간을 촬영했다. 호시담은 상반기에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4층은 이한재 대표가 콘텐츠총괄이사로 있는

21STUDIO와 함께 SPDG 사무실로 사용한다.

다음은 스페이스독 공식 소개 글 중 일부다. “동네 주민들이 문화생활을 편하게 향유할 수 있길 바랐고, 청춘들의 창작 활동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길 바랐습니다. (...) 동네와 창작자들에게 영감과 힘이 될 수 있는 곳이 되길 바라며.” 더불어 이한재 대표는 말했다. “이곳에만 있어도 하루를 재미있게 보냈으면 좋겠어요. 책도 읽고, 수다 떨고, 영화 보면 서너 시간 금방 흐르잖아요. 복합문화공간으로 잘 이뤄졌구나 느낀다면 만족합니다. 창작자에게는 이곳에서 무언가 해보고 싶다, 저희에게 무언가 제안하고 싶은 생각이 들게끔 영감을 드리고 싶어요.” 스페이스독은 지하에서 2층으로, 2층에서 옥상으로, 그리고 다시 아래로 창작의 기운이 흐르는 공간이 되고자 한다.

---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8길 18  
 이용시간 카페: 화~일 오전 10시 30분~오후 9시 | 영화관: 매일  
 누리집 [www.spacedog.co.kr](http://www.spacedog.co.kr) | 문의 0507-1360-2135

글 장영수\_객원 기자 사진 제공 스페이스독

## 폭력과 마주친 여성들의 이야기

뮤지컬 <위키드>와 <베르나르다 알바>

편견 때문에 초록 마녀로 불리는 엘파바가 역경을 겪으면서도 곳곳하게 날아오르는 이야기 <위키드>. 현재의 평화를 즐기기 위해 모든 상황을 통제하는 베르나르다 알바의 폭력성과 폭력의 역사를 표현하는 뮤지컬 <베르나르다 알바>. 폭력적인 상황에 놓인 여성의 이야기가 화려하게, 그리고 위태롭게 그려진다.

※ 해당 공연 일정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무대는 화려하게 메시지는 확실하게

<위키드> | 2. 16~5. 1 | 블루스퀘어 신한카드홀

공연이 시작되는 순간 관객은 오즈의 세계로 빨려 들어간다. 환상의 세계 오즈를 재현한 거대 무대세트와 의상, 소품들로 가득 찬 무대는 눈을 땔 수 없을 정도로 화려하다. 12.4m의 타임 드래곤, 수천 개 비눗방울을 뿜어내는 버블 슬라이딩, 날아다니는 원숭이, 단 한 번의 안전도 없는 54번의 무대 전환, 350여 벌의 휘황찬란한 의상 등으로 가득 채운 공연은 '블록버스터 뮤지컬'이라는 수식어가 아깝지 않다.

국내 초록 돌풍을 일으킨 초록 마녀가 돌아왔다. 이번 공연에는 가수 옥주현·손승연(엘파바), 정선아·나하나(글린다)를 비롯해 피에로 역의 서경수·진태화, 그리고 남경주·이상준·이소유·김지선·이우승·전민지·임규형



<위키드> 정선아·옥주현



등이 출연한다. 2016년 이후 5년 만의 공연이자, 5월에는 부산 초연도 예정돼 코로나19 때문에 위축된 공연 시장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위키드〉는 〈오즈의 마법사〉를 유쾌하게 뒤집은 그레고리 머콰이어의 소설을 뮤지컬로 옮긴 작품이다. 〈오즈의 마법사〉에 등장하는 초록 피부의 마녀가 원래부터 사악한 존재는 아니라는 설정에서 출발한다.

환상처럼 기억된 오즈의 세계는 사실 편견과 차별이 만연한 사회였다. 절대 권력의 말 한마디에 엘파바는 초록 마녀로 몰리면서 ‘마녀사냥’이 시작된다. 다르게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악’이 돼버린 엘파바를 감싸 안은 건 내면을 들여다보는 글린다와 피에로뿐이다. 개성을 상실한 사회에 날리는 일침 같다.

특히 초록 마녀 엘파바가 차별과 불의에 맞서 한계 없이 비상할 때 부르는 곡 〈Defying Gravity(중력을 벗어나)〉는 가사를 곱씹게 된다. “시도하기 전엔 그 누구도 알 수 없어. 너무나 오랫동안 두려워한 것 같아. 이제는 나 중력을 벗어나. 날아올라. 날개를 펼칠 거야.”

〈위키드〉는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었던 ‘킬러 콘텐츠’다. 2003년 브로드웨이 초연 이후 모든 도시에서 흥행 기록을 새롭게 갈아치웠다. 16개국 130여 개 도시에서 6,000만 명가량 관람했다. 토니상, 드라마 데스크상, 그래미상 등 전 세계 100여 개 메이저 상을 휩쓸기도 했다. 긴 기다림을 입증하듯 이번 한국 공연도 준비된 전 좌석이 예매 시작 당일 매진됐다.



〈베르나르다 알바〉 오소연·정영주

## 췌! 그녀들은 지금 ‘태풍전야’

〈베르나르다 알바〉 | 1. 22~3. 14 | 정동극장

흰 바탕의 벽뿐인데, 배우 10명의 움직임에 따라 공간이 수없이 변하는 듯하다. 무대는 꽃이 가득한 정원이 됐다가 핏빛으로 물든 저택이 되기도 한다. 배우들의 억눌렀던 감정이 움트며 완벽해 보이던 집이 파국으로 치달을 땐 온몸에 소름이 돋고 허리를 곧추세우게 된다. “침묵! 췌!” 90분간의 공연은 시작부터 끝까지 긴장이 가득하다.

작품은 1930년대 스페인 지방의 농가에 사는 여인 베르나르다 알바의 두 번째 남편 안토니오가 죽으며 시작된다. 남편의 8년상을 치르는 동안 베르나르다 알바는 다섯 딸에게 극도로 절제된 삶을 강요한다. 알바는 “이제는 베르나르다 알바의 집”이라며 “내 보호 안에서만 편하게 숨 쉴 수 있지”라고 말한다.

여성 기장의 권위적이고 강압적인 통솔은 그 어떤 독재보다 살벌하다. 그의 딸들은 각자의 개성은 무시된 채 검은 상복을 입고 십자수를 놓으며 지낸다. 마을 사람들과 교류도 차단된다. 딸들의 욕망이 스멀스멀 꿈틀대기 시작하자, 알바는 이를 저지한다.

숨 막히는 절제는 ‘안정’이 아닌 ‘대립’의 전초전일 뿐이다. 억지로 욕망을 억누른 탓일까. 첫째 딸이 청년 뻘뻘과 결혼을 약속한 이후 자매들의 욕망은 더욱더 부풀어 오른다. 그의 사진을 훔치거나 언니 몰래 밀회를 즐기는 동생들의 모습은 이성을 잃은 듯하다. 집은 전쟁터이자 탈출해야 할 지옥이 돼버린다. 이 사랑을 갖기 위해선 반드시 벗어나야 할 옥쇄다.

자유에 대한 갈망은 격정적인 플라멩코로 표현된다. 검은 원피스와 슈트를 입은 배우들의 몸짓은 일체적이지만, 왠지 모르게 위태롭다.

작품은 초연 당시 전 좌석 매진 기록을 세우며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올해는 정동극장에서 볼 수 있다. 정영주를 비롯해 이소정·강애심·황석정·한지연·김환희·이영미·최유하·김려원·임진아·황한나·정가희·김국희·전성민·오소연·김히어라·이진경·이상아 등 무대 위에서 한창 활약 중인 여배우 18명이 참여했다. 정영주는 주연과 함께 직접 제작을 맡았다. 총 연습 기간만 7개월이다.

작품은 약자에게 가해지는 폭력의 역사를 짚어낸다. 여성 서사극이기 때문에 약자에 대한 폭력의 대물림이 더 강렬하게 다가온다. 연태흠 연출은 “폭압적인 알바가 왜 이렇게 됐나, 알바 안에 내재한 폭력성은 결국 역사로부터 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글 김소희·〈이투데이〉기자 사진 제공 에스앤코, 정동극장

# 언제까지고 회자될 작품이 모이다

전시 <미술이 문학을 만났을 때>와  
<한겨울 지나 봄 오듯-세한歲寒·평안平安>

알다시피 미술관·박물관의 핵심 기능 중 하나는 전시다. 전시 가운데서도 기획전은 의미가 크다. 기획전이야말로 미술관·박물관의 총체적인 능력을 단적으로 드러내서다. 기획 단계인 전시 주제 선정부터 전시품 확보, 작품 배치, 관람객 동선과 조명 등 갖가지 요소에 많은 공을 들이는 이유다. 관람객으로선 흥미로운 주제, 관련 출품작들을 더 감동적인 전시장에서 만나는 즐거움이 있는 게 기획전이다. <미술이 문학을...>와 <한겨울 지나...>도 그렇다.

※ 해당 전시 일정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미술이 문학을 만났을 때> 전시 전경

## 곁에 있어 더욱 아름다운

<미술이 문학을 만났을 때> | 2. 4~5. 30 | 국립현대미술관(덕수궁)

미술과 문학, 문학과 미술가들이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들은 텍스트와 이미지라는 표현 방식은 달라도 누구보다 예민한 감각으로 삶과 세상을 살피는 사람들이다. 장르는 다르지만 예술적 영감을 주고받고, 서로의 예술혼을 자극한다. 그리하여 더 수준 높은 문학·미술 작품이 탄생한다. 그들의 만남 속에 문화예술 생태계는 훨씬 풍요로워지는 것이다.

이 전시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전시의 시대 배경은 1930~1950년대 전후다. 일제강점기의 울분, 광복의 기쁨이, 6·25전쟁의 상처와 또 희망이 꿈틀대던 시대다. 격동의 시대를 살아간 유명 문학과 미술가들의 삶과 예술 세계, 갖가지 일화, 당대 문화예술계 풍경을 살펴볼 수 있다.

회화 140여 점과 시집 등 문학작품, 관련 자료 등 총 600여 점의 출품작이 4개의 소주제 아래 4개 전시실을 가득 채운다. 방대한 전시품만큼이나 많은 화가와 시인·소설가가 등장한다. 다른 미술전과 달리 좀 더 시간 여유를 갖고 꼼꼼하게 둘러볼 만하다.

전시는 문학과 미술·음악·영화 등을 넘나들며 전위적 작업을 한 1930년대 예술가와 작품들로 시작된다. 예술가들의 사랑방인 '제비' 다방을 종로에서 운영한 시인 이상을 비롯해 문인 박태원·김기림 등과 화가 구본웅·황송조·길진섭·김환기·유영국·김병기 등이 나온다. 당시 인기 높았던 신문 소설과 삽화, 시와 그림이 함께한 시화 등 '인쇄 미술' '지상(紙上)의 미술전'도 이어진다. 김소월의 <진달래꽃>, 운동주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백석의 유일한 시집 <사슴> 등의 원본 시집, 이상범·노수현·안석영 등의 삽화에서는 예상을 초월하는 다채로운 이미지를 만나게 된다.

정지용과 장발, 백석과 정현웅, 김기림과 이여성, 이태준과 김용준 등 작가들의 각별한 만남과 작품도 한 전시실에 꾸려졌다. 화가 이중섭이 시인 구상의 집에 거거하면서 그린 <시인 구상의 가족>은 안타까운 사연으로 유명한 작품이다. 장욱진과 한묵·박고석·천경자·김환기 등 화가이면서 문학적 재능도 뛰어난 작가들의 작품도 한곳에 모아놓았다. 김환기의 <자화상> 등 처음 공개되는 작품도 많다. 전시회 관람과 더불어 봄이 찾아드는 덕수궁을 여유롭게 거닐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듯하다.



〈세한도〉 앞쪽

### 다시, 기억에 간직할 우리 예술

〈한겨울 지나 봄 오듯-세한歲寒·평안平安〉

2020. 11. 24~2021. 4. 4 | 국립중앙박물관

세계적인 박물관·미술관은 저마다 수많은 사람을 불러 모으는 대표적인 명작 소장품이 있다. 루브르박물관의 〈모나리자〉(레오나르도 다빈치), 우피치미술관의 〈비너스의 탄생〉(보티첼리), 뉴욕현대미술관(MoMA)의 〈별이 빛나는 밤〉(반 고흐) 〈아비뇽의 여인들〉(피카소) 등이 대표적 사례다.

국립중앙박물관에도 한국 역사와 문화를 빛내는 많은 명작, 국보·보물이 있다. 추사 김정희(1786~1856)의 〈세한도(歲寒圖)〉도 그중 하나다. 국보인 〈세한도〉는 그림 자체를 넘어 그려진 배경, 유명 서화가들의 감상평, 일본으로 유출됐다가 돌아온 과정, 소장가의 기증 등 숱한 사연으로도 유명하다.

‘세한’과 ‘평안’을 주제로 한 전시는 당초 1월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관람 요청이 많아 연장됐다. 이 전시는 사실 개막 때부터 관심을 모았다. 평소 예보기 어려운 〈세한도〉가 출품되는 데다, 두루마리로 된 〈세한도〉 전체가 14년 만에 전시장에 펼쳐지면서다.

세한도에는 청나라인과 한국인 20명의 감상 글이 붙어 있어 전체를 펼치면 가로 14m에 이른다. 그동안 전체를 펼치기 힘들었고, 앞으로도 쉽지 않은 일이다. 전시장에는 〈세한도〉와 함께 추사의 다른 작품들, 손재형이 일본에서 찾아온 감동적인 사연, 또 〈세한도〉 등을 기증한 손창근 선생의 송고한 뜻을 되새기는 공간도 마련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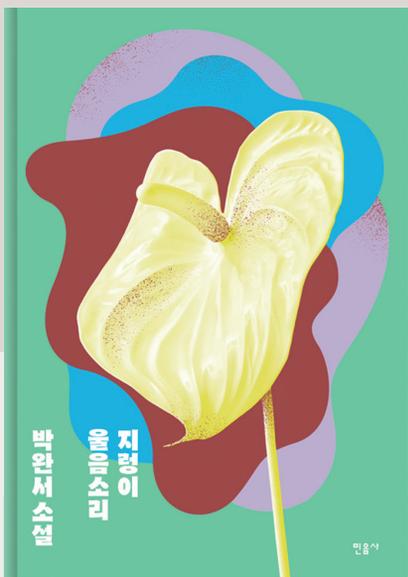
〈세한도〉를 중심으로 삶의 시련을 뜻하는 겨울, 즉 제한을 느꼈다면 이전 작품 〈평안감사향연도〉를 통해 또 다른 전시 주제인 따뜻한 봄날 같은 평안을 만날 차례다. 〈평안감사향연도〉는 조선시대에 평안감사가 평양에 부임하면서 벌어진 잔치 장면을 담은 그림이다. “평안감사도 저 하기 싫으면 그만”이라는 속담이 말해주듯 평안감사는 조선 관리들이 선망하던 자리였다. 〈평안감사향연도〉는 사실 잔치 광경을 넘어 지방 연회를 상세하게 기록한 기록화이자 평양 사람들의 일상도 엿볼 수 있는 흥미로운 그림이다. 다양한 관련 영상과 자료도 작품의 이해를 돕는다. 전시 제목처럼 자연도, 인간의 삶도 한 겨울의 세한·시련을 견디면 따뜻한 봄날·평안이 찾아오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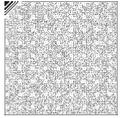
글 도재기\_〈경향신문〉선임기자 사진 제공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중앙박물관

## 박완서의 가장 처음과 끝

책 《지렁이 울음소리》와 《기나긴 하루》

2021년 1월 22일은 고(故) 박완서 작가의 10주기였다. 1970년 마흔 살에 데뷔해 2011년 1월 22일 81세를 일기로 별세하기까지, 40년 남짓한 동안 박완서 작가는 훗날의 독자들이 두고두고 읽어도 모자람 없을 무수히 많은 작품을 남겼다. 최근 10주기를 맞아 각 출판사들은 박완서 작가의 대표작들을 잇달아 개정판으로 재출간했다. 그중 박완서라는 세계의 가장 처음과 끝을 살펴볼 수 있는 두 권을 골라봤다. 초기 대표작 선집인 《지렁이 울음소리》와, 작고 직전 마지막 쓴 소설들이 실린 《기나긴 하루》다. 두 책 사이 놓인 40여 년의 간극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작품은 저마다의 생동감으로 빛난다.





### 박완서라는 문학적 사건의 시작

《지렁이 울음소리》 | 박완서 지음 | 민음사

《지렁이 울음소리》의 전신은 '민음사 오늘의 작가 총서' 시리즈 중 한 권인 《나목·도둑맞은 가난》이다. 1970년 《여성동아》 장편소설 공모 당선작이자 박완서 작가의 데뷔작인 중편소설 《나목》을 비롯해 《지렁이 울음소리》(1973)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1974) 《도둑맞은 가난》(1975) 《이별의 김포공항》(1974) 《카메라와 워커》(1975) 《부처님 근처》(1973)까지 1970년대 초반에 쓰인 박완서 작가의 초기 대표작 7편이 실린 책이다.

본래 표제작은 오늘날 독자에게도 널리 알려진 《나목》이었지만, 새로 다듬어 출간하는 과정에서 다소 낮은 《지렁이 울음소리》가 표제작이 됐다. 작품의 순서를 재배열하고 책의 제목을 달리 하는 것만으로 이야기는 새롭게 읽힌다. 특히 표제작이 된 《지렁이 울음소리》는 여성지로 데뷔해 대중소설 작가로 인식되던 작가에게 최초로 제대로 된 문학적 평가를 가져다준 작품이라는 점에서 이번 기회를 통해 특히 재조명되면 좋을 소설이다.

“침실에 일요일 아침 시간이 늦처럼 고이고, 음습하고 권태로운 욕망이 수 초처럼 흐늘흐늘 흐느적대며 몸에 감긴다. 나는 남편에게 익숙하게 붙잡힌다. 나에게 그의 문로가 돼 달라는 눈치다. 나는 그의 문로가 된 채 내가 짜낸 이태우 선생의 비명을, 신음을 생각한다(…) 그건 어떤 소리 빛깔을 하고 있었을까. 지렁이 울음소리 같았을까 몰라.”(《지렁이 울음소리》 중)

소설 속 선연한 문장에서도 알 수 있듯, 일상의 권태와 이에 대한 저항을 지렁이의 울음소리로 표현하는 작가의 통찰은 섬뜩할 정도로 날카롭다. 이외에도 여고 동창들의 위선을 간파하고(《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 부자들의 염치없는 욕망을 꿰뚫어보며(《도둑맞은 가난》) 절에서 가장 속된 기도를 올리는 여자들을 응시한다(《부처님 근처》). 인간의 가장 내밀한 속을 들여다보고, 이를 다시 바깥으로 태연하게 꺼내 보이고, 끝내는 공감하게 만들었던 작가의 재능이 데뷔 초기에도 어김없이 발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작가가 남긴 마지막 선물

《기나긴 하루》 | 박완서 지음 | 문학동네

생전 펴낸 마지막 소설집 《친절한 복희씨》(2007) 출간 이후 작고 전까지 박완서 작가는 총 세 편의 단편소설을 더 발표했다. 《석양을 등에 지고 그림자를 밟다》(2010) 《빨갱이 바이러스》(2009) 《갱년기의 기나긴 하루》(2008)다. 2012년 문학동네에서 출간된 《기나긴 하루》는 작가 타계 1주기를 맞아 이 세 편에다 김윤식 문학평론가·신경숙 소설가·김애란 소설가가 각각 추천한 세 작품을 더해 하나로 엮은 책이다. 이 역시 최근 타계 10주기를 맞아 새 옷을 입고 특별판으로 재출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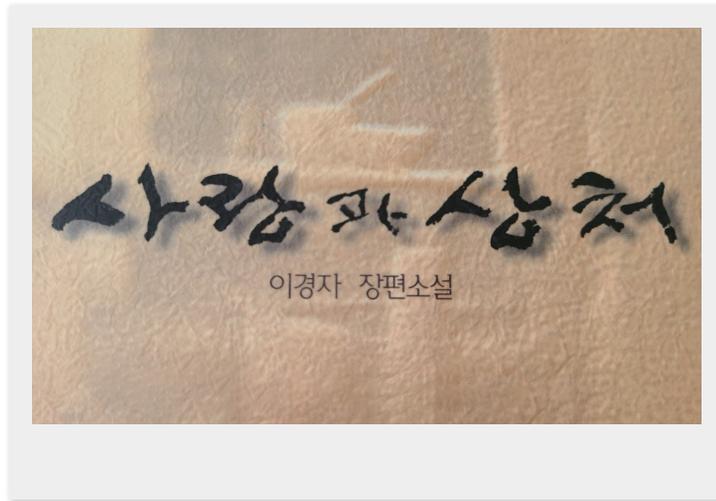
단편 《빨갱이 바이러스》는 세 여인의 각기 다른 사연을 통해 6·25가 남긴 상처와 이념 갈등, 가부장제와 가정폭력 등 작가가 40년 세월을 걸쳐 탐구해 온 주제를 응축시킨 소설이다. 이외에도 갱년기를 거쳐 완전한 노년에 이르기까지 작가의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은 사유가 세 편의 소설에 집약돼 있다. 함께 실린 《카메라와 워커》(1975) 《나의 가장 나중 지니인 것》(1993) 《젊은 방들》(1974) 등 다른 시대에 쓰인 작가의 작품들과 비교해 읽어보는 재미도 있다.

박완서 작가는 숨을 거두기 전날에도 제2회 젊은작가상 후보에 올라온 젊은 후배 작가들의 단편소설 심사를 보고 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병석에서도 후배 작가들에게 줄 의견을 살폈을 만큼, 마지막 순간까지도 문학의 최전선을 지키고자 애쓴 영원한 현역 작가였다.

실제로 박완서 작가는 2009년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죽을 때까지 현역작가로 남는다면 행복할 겁니다.” 작가의 소망은 이뤄졌고, 나아가 그는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빛나는 별이 됐다. 그의 육신이 소임을 다하고 세상을 떠났을지라도, 그가 남긴 정신과 문장이 여전히 우리 곁에 살아 숨 쉬고 있기 때문에.

글 한소범 《한국일보》 기자 사진 제공 민음사, 문학동네

## 절망의 고향을 찾아서



이경자 장편소설《사랑과 상처》표지 일부

하루하루가 점점 빠르게 느껴지는 나이가 됐다. 오감(五感)으로 확인되는 세상과의 이별이 멀리 있지 않다는 걸 인정하는 게 쉽지 않지만, 아니 몹시 아쉽지만 어쩔 수 없다. 성장쇠멸(生長衰滅)은 자연의 이치고 그래서 귀하고 아름다우며 존중할 가치가 있을 테니까.

그런데 이런 이치가 내 삶과 상관없다고 느끼던 때가 있었다. 이른바 젊은 날에. 아니 욕망이 부글거리던 때에. 나는 죽기 살기로 일했는데 왜 일하는지도 몰랐다. 현재를 성찰하지 않았다. 성찰하면 부끄러워질 테니까. 자연히 내 현실은 쓰지 않은 에너지가, 몽친 지방질처럼 여기저기 덩어리졌다. 작업실에 나가 일하고 인세도 잘 들어오고 연재소설도 쓰고 책도 자주 냈다.

이런 어느 때였다. 마음이 허공에서 거처를 잃은 혼령처럼 방황하기 시작했다. 작업실을 처음 내고 지나치게 기뻐던 것도 단물 빠진 과육처럼 시들해졌다. 1초라도 빨리 작업실로 가고 싶던 그 안달은 마음에 남아 있지 않았다. 집에서 나와 골목을 걷고 오른쪽으로 구부러져 경사진 길을 오르고 내려 중학교와 초등학교 사이로 빠져나가, 찾길을 건너 다시 골목과 골목을 골라 걷다 보면 한일병원과 건널목, 다시 건널목을 지나 지하도로 들어간다. 그리고 승강기 앞에 선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갇혀 있던 공기가 둔중하게 나를 덮친다. 벽에 가득 쌓인 책들은 죽은 허영심, 혁명·평등·자유 따위에 사로잡혀 사들였던 책들.

그때, 우울증을 앓았을까?

몹시 화가 나지만 그 화를 풀면 질서가 무너져 버릴 것 같고, 억울한데 억울함을 풀려면 일상의 관계들이 없어질 것



같았다. 무당, 점쟁이, 교회, 나 나름으로 읽은 칼 용에게서도 희망이나 위로를 얻지 못했다. 아무렇게나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음반을 살피다가 선택에 실패하고 책상 앞에 앉았다가 일어서서 북으로 난 통창 앞에 바투 선다. 시선을 가로막는 삼각산의 웅장한 화강암 덩어리 인수봉, 만경봉, 백운봉. 곧 시선을 끌어당겨 앞으로 오면 가지가지 차들이 오고가는 길, 건물목에서 신호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 길가의 간판과 상점들. 시선은 서둘러 직각으로 떨어져, 바닥에 널브러진 선명한 시신(屍身)에 부딪힌다. 죽은 나…

이런 극단적 심리 상태에 이른 어느 날, 부적 같은 문장 하나가 떠올랐다. 원고지를 찢어 문장을 써서 책상 앞 벽에 붙였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인생을 이해하고 용서하면 내 삶이 평화를 얻을 수 있을까? 나를 사랑할 수 있을까?*

의자에 앉으면 눈높이에 있던 부적(符籙). 부적을 붙인 뒤로 길바닥에 널브러진 내 주검을 상상하지 않게 됐다.

나라는 생명을 만든 남자. 아버지는 누굴까. 아버지가 없으면 집안이 평화롭던 성장기. 그의 권위는 억압이고 폭력이었을까? 그리고 엄마. 엄마를 경멸하고 엄마를 닮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썼던지. 엄마는 대체 누굴까?

같이 살지 않기를 바라던 아버지, 닳을까 봐 지레 넌더리를 내던 어머니. 나라를 사람을 만든 두 사람. 나라를 생명 속에 이미 유전자로 존재하는 그들. 누굴까…

바로 이 의문에서 내 존재의 신명이 살아나기 시작했다. 두 사람을 공부하기로 결심하면서 재활이 시작됐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나서 그와 단둘이 마주할 수는 없었다. 어머니도 내 곁에 있지 않았다. 동생을 따라 미국으로 이민을 가신 어머니는 내 인생의 먼 점이였다.

우선 아버지의 인생을 더듬기로 했다. 아버지의 성장기를 알고 있는 분들을 찾아다녔다. 그가 태어나 성장하던 시대. 일제강점기, 해방 공간과 전쟁, 분단과 냉전, 경제개발의 물질주의가 가져온 혼란 등등. 그의 자기중심적 가치관의 성립 과정과 생활습관엔 농경시대의 남아 중심, 장자 상속의 가족제도에 깃들인 유교 윤리가 있었다.

어머니를 공부했다. 어머니의 자매들, 친척들을 두루 찾아다녔다. 그리고 미국으로 가서 어머니를 만났다. 어머니는 자신을 돌아볼 기회가 생긴 것을 다행스러워하는 것 같았다. 당신이 태어났을 때, 알지 못하지만 어른들로부터 들었던 일들과 당신의 운명의 기둥을 만든 절체절명의 사건들을 이야기해 줬다. 내가 모르던 엄마,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으나 내면에 체(滯)한 상태로 박혀 비극을 만든 불행의 덩어리들. 어머니의 증언엔 그 시대가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그 중에서도 남존여비(男尊女卑). 두 분의 삶에 삼강오륜의 전형이 보였다.

어머니와는 대개 저녁부터 잠들기 전까지 이야기를 했다. 가난한 이민자들을 상대하는 양품점에서 재봉틀로 옷을 줄여주는 일을 해, 몹시 고단할 터였지만 이야기를 멈추려 하지 않았다.

어머니의 이야기 중엔 놀랍지 않은 것이 없었다. 특히 자신이 낳은 첫 번째 아이가 딸이었을 때의 공포감. 먹지 못해 췌이 나오지 않아 피골이 상접한 딸이 겨우 백일을 넘기고 당신 품에서 숨을 거뒀을 때, 안도했다고! 여자로 사느니 죽는 게 더 낫다고!

…이런 공부 끝에 벽에 붙여놓았던 부적대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인생을 이해하고 용서'하게 됐다. 그리고 장편소설 《사랑과 상처》를 썼다.

나를 사랑하는 것? 여전히 노력 중이다.

글·사진 이경자, 서울문화재단 이사장, 소설가

# 거수다떨기 딱 좋은 곳이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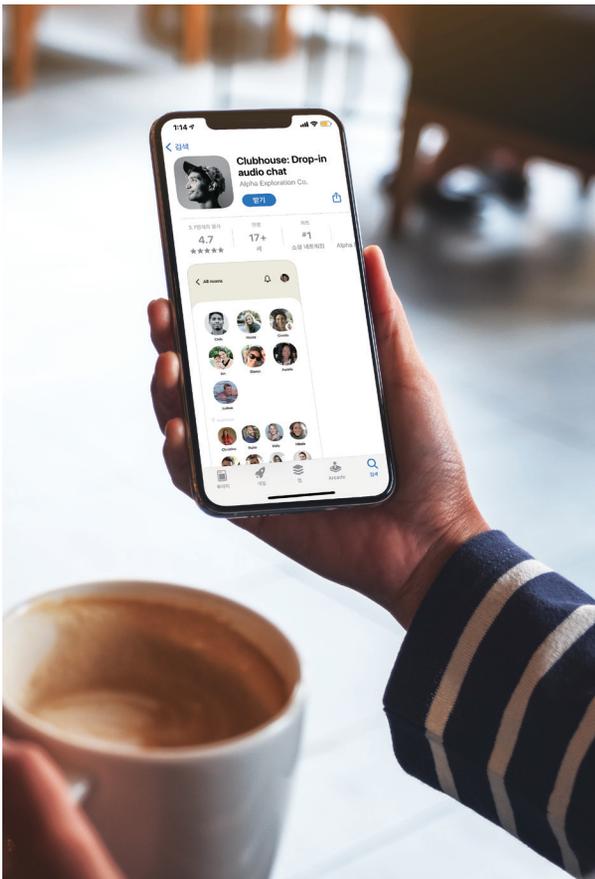
음성 기반 네트워크 서비스, 클럽하우스



지금 SNS 중 가장 트렌디하고, 유저들의 반응이 뜨거운 신문물을 꼽는다면 단연 클럽하우스일 것이다.

요즘은 너도나도 자신의 새로운 클럽하우스 계정을

기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공개하며 “저도 클럽하우스 시작했어요”를 인증하고 있다.



이 서비스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자면 ‘대화방’에서 수다를 떠는 음성 기반 네트워크 서비스다. 클럽하우스는 오디오북이나 팟캐스트와는 달리 미리 녹음해 놓을 수 없는 생방송 음성 채팅이고 인스타그램이나 브이라이브처럼 영상을 이용할 수 없다. 실시간 대화는 저장할 수 없어 기록도 남지 않는다.

그러면 한 방에 100명이 있을 때 어떻게 대화를 나눌까? 방을 만들고 발언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모더레이터(진행자)이자 스피커다. 몇 명의 스피커가 마이크를 가지고 있어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으며, 말하고 싶은 사람은 ‘손’ 모양의 아이콘을 눌러 발언권을 얻을 수 있다. 듣기만 하는 리스너가 돼도 된다. 모바일폰 번호 연동이라 익명성을 보장받지도 못하며 아이폰 유저만 사용할 수 있는 이 서비스가 이렇게 인기인 이유는 뭘까.

클럽하우스에는 아무나 가입할 수 없다. 기존 사용자에게서 ‘초대장’을 받아야 가입할 수 있는, 다소 폐쇄적인 시스템이다. 그리고 신규 가입자 밑에는 이 사람이 누구 추천으로 가입했는지 ‘추천인’의 이름과 사진이 명함처럼 따라다닌다. 게다가 신규 가입자가 문제를 일으키면 그에게 초대장을 발부한 추천인도 함께 이용 정지를 당하는, 연좌제 시스템까지 갖췄다. 초대장이 없으면 가입을 못 하니 당근마켓에서 클럽하우스 초대장이 2만 원 내외 금액으로 거래되기도 한다. 이 서비스가 미국에서 유명세를 타게 된 것은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와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등 실리콘밸리 CEO들의 이름값이 컸다. 평소에는 만나기도 어려운 사람들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대화방에서 주식이나 미래 기술 산업에 대해 설전을 벌이면서 화제가 된 것이다. 한국도 유명인들이 이용한다. 스윙스·딘딘·쌈디·배두나·임수정도 클럽하우스를 시작해 방을 만들어 스피커가 됐다. 특히 쌈디는 여러 주제의 방을 돌아다니며 스피커나 리스너로 참가하는 소통왕이다. 딘딘·김지훈은 이 서비스를 “권력화된 소통, 과거 귀족들의 클럽을 떠올리게 한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지만 말이다. 소통과 홍보가 중요한 선거 직전의 정치인도 클럽하우스에 가입해 방을 개설하고 대화를 나눈다.

### 내 목소리를 들려주기 싫어

기자로 일하면서 취재와 섭외 등의 업무를 전화로 하다 보니 전화포비아가 생긴 나의 경우에는 이 서비스 초대장을 받고도 한동안 이용하지 못했다. 진짜 내 목소리로 사람들과 대화해야 한다고? 이 서비스를 ‘인싸’들의 서비스라고 하는 이유도 바로 그 즉각적인 음성 기반 서비스라는 점에 있을 것이다. 라이브로 모르는 사람과 음성 대화를 하는데, 그걸 재밌어하며 어떻게나 많이 가입하다니!! 사진 기반의 인스타, 텍스트 기반의 페이스북·트위터 모두 자신이 보여주고 싶은 것을 시간을 들여 포장해 노출할 수 있다. 텍스트는 업로드 전에 생각을 다듬어 정리할 수도 있지만 음성 대화는 아니다. 친한 친구가 전화를 해도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누르는 나 같은 방구석 아웃사이드에게는 이 ‘인싸’ 천국 대화방의 인기가 이해도 안 되고 생경한 노릇이었다. 그런데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죄다 클럽하우스로 몰려가 이 서비스가 재밌어 죽겠다고 홍보를 하니 비사용자들은 트렌드에서 뒤처지는게 싫단 압박에 일단 시작하게 된다.

SNS란 서비스 개발자의 계획대로 자라지 않는다. 가입자들이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모양이 변하고 종횡으로 자라는 생물이자. 클럽하우스 역시 사용자가 대폭 증가하면서 계속 변할 것이다. 같은 시간대에 일대일로 대화하는 게 불가능한 유명인들과 같은 방에 접속해 있다는 특별함을 제공하기도 하고,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목소리로 서로를 위로하기도 한다. 이곳을 통해 인맥을 쌓고 커리어를 확장하고 업계 동료끼리 정보를 주고받을 수도 있다. 방을 만든 모더레이터의 목적에 따라 방마다 다른 분위기다. 클럽하우스는 같은 방에 있

는 사람들에게 일시적인 연결감을 준다. 말하기, 듣기가 중요한 채널이라 음악 주제 방도 많은데, 전문 디제이가 일방적으로 음악을 틀어주는 게 아니다. 유튜브에서 1990년대 <인기가요> 채널이 다시 흥한 이유가 웃긴 댓글창이었던 것처럼, 같은 취향의 사람들이 동 시간에 같은 음악을 듣는다는 그 감각이 중요하다.

가입을 하긴 했는데, 뭐가 재밌다는 건지 도통 모르겠더니 요샌 나 역시 몇 시간씩 클럽하우스를 켜놓기도 한다. 주로 웃긴 방에 들어가 대화를 엿듣는다. 최근 가장 재미있게 들었던 채팅방은 ‘남성분들 프사 평가해드립니다’라는 이름의 방이었다. 개그감 충만한 여성들이 같은 방의 남성 프로필을 풍자하는 방이었다. 클럽하우스는 라이브이기 때문에 대본 따위는 없다. 코미디언도 아닌데, 이렇게 즉각적으로 남의 사진을 보고 배꼽 빠지게 응수하다니, 어찌나 말을 차지게 들 하는지 최다 인원 500명이 방에 꽉 들어차 새벽까지도 와글와글 떠들었다. 남성들은 직접 자기 프로필 사진을 올리고 “5단계 매운맛으로 평가해주세요”라고 자청한다. 프로필에는 인스타그램 주소까지 오픈돼 있어 누구나 목소리 주인공의 실생활에 접속할 수도 있다. 아, 이 얼마나 위대한 ‘핵인싸력’인가.

방금 클럽하우스에 들어가 보니 ‘한국대중문화 속 시간, 역사 방’이 개설됐고 스피커로는 <기생충> 아카데미 통역으로 유명한 샤론최와 철학자, LG유플러스의 직원과 영문학자가 들어가 있다. 또 ‘테크기업에서 글을 쓰고 싶다? 테크니컬 라이팅 팀이 알려드려요’도 눈에 띈다. 통역가와 영문학자와 철학자가 대중문화 콘텐츠를 대해 대화 나누는 방과 IT 기업의 카피라이터들이 일하는 방식을 알려주는 방, <햄릿> 낭독방과 블랙 커뮤니티의 래퍼방(영어방)도 리스트에 섞여 있다. 어떻게 보면 폐쇄적이고, ‘끼리끼리’이고 과시적인데, 또 어떻게 보면 경계 없이 누구와도 실시간 연결될 수 있다. 새로운 서비스의 출현이지만, 어차피 SNS의 본질은 똑같다. 2000년대 초반의 ‘스카이 러브’ 지역 채팅방, 윈앰프(Winamp) 프로그램 라디오도 연상된다. 집에 초고속 랜을 처음 깔고 지역 채팅방에 들어가 ‘여인2’ 따위의 닉네임으로 채팅을 하던 그 시절에도 우리는 어디의 누구와도 연결되는 낯선 신문물에 환호했다. 현실 속의 나는 길에서 이웃이나 낯선 사람에게 절대 먼저 말을 걸지 않지만 클럽하우스에서만큼은 누구나 수다쟁이가 된다. 사실 모든 SNS가 그렇지 않은가?

글 김승희 <빅이슈코리아> 편집장, 칼럼니스트

## 피아졸라 이후, 탱고는 클래식이다

탄생 100주년 아스토르 피아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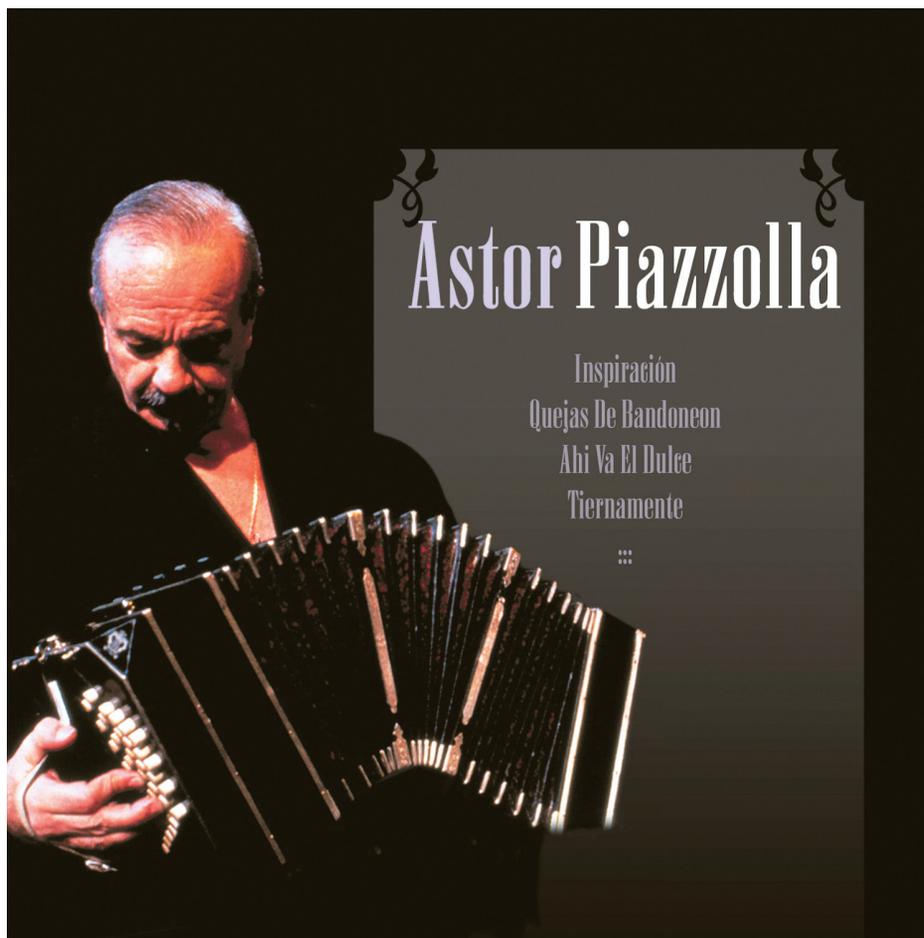


올해 3월 11일 아스토르 피아졸라가 탄생 100주년을 맞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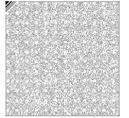
'리베르탱고' '아디오스 노니노' '아베 마리아'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사계' 등 그의 대표작을 들을 기회가 많아질 것이다.

그는 탱고·클래식·재즈 등 다양한 영역의 음악가들과 교류하며 탱고의 지평을 확장함은 물론

그만의 독창적 음악 세계를 구축했다.



앨범 <Astor Piazzolla> 2014년 12월 20일 발매



### 피아졸라의 음악을 하기까지

피아졸라는 1921년 3월 11일 부에노스아이레스 근교에서 이탈리아 이민자 부모에게서 태어났다. 그가 네 살 때 가족은 아메리칸드림을 품고 뉴욕으로 이주했다. 피아졸라의 아버지는 건달들이 드나들던 이발소를, 어머니는 그 건달들의 애인이 오는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생계를 꾸렸다. 뉴욕 뒷골목은 꿈을 이루지 못한 비루한 현실의 무대였다. 피아졸라 음악의 슬픔과 쓸쓸함에는 이 시절이 스며 있다. 탱고 마니아인 아버지는 피아졸라에게 반도네온을 사주고 연습시켰다. 아들의 비범한 음악성을 깨닫고 당대 탱고 스타에게 소개하려고 했다. 그중 <포르 우나 카베사(말머리 하나 차이로)>의 작곡가이자 가수·배우인 카를로스 가르델을 만났다. 피아졸라 부자와 가르델은 동향 사람이라는 공감대로 가까워졌다. 가르델이 피아졸라 부자와 자주 식사했고, 피아졸라의 집은 미국에 거주하는 라틴계 연주자들의 아지트가 됐다. 가르델은 마침 제작 중이던 영화 <당신이 나를 사랑하게 되는 날>에 피아졸라를 신문 배달 소년으로 출연시켰다. 가르델은 1935년 전미 투어에도 피아졸라를 데려가고 싶어 했다. 하지만 열네살밖에 안 된 아들을 멀리 보낼 수 없었던 부모의 반대로 가르델은 피아졸라 대신 호세 코르파스 모레노를 데리고 떠났다. 이들이 탄 비행기는 콜롬비아에서 사고로 한 줌의 재가 됐다. 피아졸라는 “함께 갔다면 구름 위에서 하프를 연주하고 있었을 것”이라 말했다. 가르델의 음악에 대한 직관과 재능, 무엇보다 탱고에 대한 원천적인 사랑은 어린 피아졸라의 음악적 감수성을 성숙시키는 자양분이었다. 1936년, 전운이 감도는 가운데 가족과 함께 아르헨티나로 돌아온 피아졸라는 아니발 트로일로가 이끄는 탱고 앙상블에 들어가 반도네온 솔리스트로 활약했다. 그러던 중 부에노스아이레스를 방문한 피아니스트 아르투르 루빈슈타인의 소개로 피아졸라는 아르헨티나 작곡가 알베르토 히나스테라의 제자가 된다. 이후 6년 동안 스트라빈스키·라벨·버르토크 등을 공부하며 정통 클래식학을 섭렵했다. 1953년 히나스테라의 권유로 출전한 아르헨티나 작곡 콩쿠르에서 우승한 피아졸라는 프랑스 정부의 장학금으로 파리에서 유명한 여성 작곡가 나디아 불랑제에게 배울 기회를 얻는다. 그는 ‘탱고 연주자’라는 경력을 콤플렉스로 여겼다. 그러나 스승 불랑제는 ‘모든 좋은 음악은 평등하다’라는 사실을 일깨워줬다. 선배 작곡가들의 어설픈 모

방보다는 차라리 탱고를 자신의 스타일로 개척하라고 충고했다. “누굴 모방하지 말고 너 자신의 음악을 하라.” 중요한 교훈이었다.

### 음악계에 새로운 감각을 일깨운 반도네온

불랑제 밑에서 18개월간 공부하고 부에노스아이레스로 돌아온 피아졸라. 그는 다시 아니발 트로일로 밴드의 반도네온 주자로 활동하며 탱고의 다양한 가능성을 시도했다. 그의 진보적 연주는 아르헨티나 내 정통파에게 반감을 샀다. 어느 날 피아졸라는 카바레에서 클래식 화성을 즉흥으로 탱고에 가미했다. 함께 연주하던 동료들이 연주를 멈추고 그를 미친 사람으로 몰아세웠다. 견디지 못한 피아졸라는 결국 자신만을 위한 밴드를 결성한다. ‘누에보 탱고’<sup>1</sup>의 시작이다. 그는 유럽을 주 무대로 삼았다. 재즈 피아니스트 칙 코리아의 전자음악과 퓨전 재즈에 영향을 받은 그는 신시사이저 등 새로운 시도로 전자악기를 이용한 실험을 했고, 1975년 9월에는 아르헨티나로 귀국해 전자 8중주단을 결성했다. 신시사이저·전자오르간·일렉트릭기타에 즉흥연주를 허용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한 8중주단은 기존 팬들로부터 비난받기도 했지만 공연은 성공적이었다. 1977년을 기점으로 멤버 간 갈등 등으로 8중주단은 와해됐다. 새로운 5중주단은 전자음악 대신 어쿠스틱 실내악을 연주했다. 피아졸라는 다시 파리로 이주해, 5중주단과 함께 공격적 활동을 펼쳤다. 1980년대 후반에는 영미권 활동에 주력해 몽트뢰, 몬트리올 재즈 페스티벌에도 참여했다. 그는 여러 장르에서 환영받는 명실상부한 월드스타 반열에 올랐다. 피아졸라는 고된 일정을 소화하다, 심장수술을 받을 정도로 건강이 악화됐다. 이즈음 결성해 활동한 6중주단의 음악은 우울한 분위기가 강했다. 1990년 8월, 피아졸라는 뇌출혈로 몸 오른쪽이 마비돼 즉시 귀국, 병원으로 이송됐다. 폐렴과 장출혈까지 겹친 끝에 1992년 7월 4일 세상을 떠났다. 이후 바이올리니스트 기돈 크레머나 첼리스트 요요 마 등이 탱고를 고전음악의 반열로 올리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육감적인 그루브에서 종교적인 영성에 이르기까지 넓은 스펙트럼을 가진 악기 반도네온은 클래식 음악계에 신선한 자극이 됐다.

글 류태형\_음악칼럼니스트 사진 제공 KDM

1 Nuevo Tango, 춤을 추기 위한 탱고가 아닌 감상을 위한 탱고

# 내가 살게 된, 그날

박지완 감독의 <내가 죽던 날>



‘그날’ ‘그시간’에 묻혀, 숨은 쉬지만 결국 죽어버린 날이 있다.  
특 끊어진 희망 앞에 어찌면 더 살아 있을 이유가 없을 것 같아 무기력해진 내게 사람들은 자꾸 힘을 내라고 말한다.  
스스로를 괴롭히지 말고 좀 더 희망을 가지라고,  
노력하면 된다고, 툭툭 털고 일어나라고, 자꾸 그러면 너만 손해라고 이야기한다.  
그런 사람들의 악의 없는 무책임은 무거운 추처럼 어깨를 더 짓누른다.  
이미 죽은 거나 다름없다고 사형선고를 내린 것은 어찌면 나 자신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이다.  
사실, 나는 그날, 그 시간 절박할 정도로 지독하게 살고 싶었다.

※영화의 결말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 죽었던 그날

태풍이 몰아치던 밤, 외딴섬에서 소녀 세진(노정의)이 실종됐다. 죽음을 유추할 수 있는 유일한 단서는 유서 한 장이다. 마비 증상으로 출동 중 사고를 낸 후 복직을 앞둔 형사 현수(김혜수)는 범죄 사건의 주요 증인이기도 한 세진의 실종을 자살로 종결짓기 위해 섬으로 파견된다. 소녀의 보호를 담당하던 형사 형준(이상엽), 연락이 두절된 세진의 가족, 그리고 세진을 마지막으로 목격했다는 섬마을 주민 순천택(이정은)을 만나지만 세진의 실종은 계속 미심쩍다. 그렇게 세진의 죽음을 파헤치던 현수는 외딴섬에서 소녀 혼자 감당해야 했을 두려움과 외로움을 공감하듯이 마주하게 된다.

박지완 감독의 <내가 죽던 날>에는 살았지만 죽은 것과 다름없는 세 여인이 등장한다. 진짜로 죽지는 않았지만 죽은 것과 같은 삶을 살아내야 하는 현수는 그렇게 죽어가는 세진의 표정에서 어쩌면 지독하게 살고 싶다는 애원을 읽는다. 그리고 그들보다 훨씬 앞서 죽은 것과 다름없는 삶을 살아온 순천택이 있다. 스스로 목숨을 잃게 만들 만큼 큰 통증 속에서 식물인간으로 연명하는 조카 하나 건사하면서 살아가는 순천택은 마을 사람들과도 거의 소통하지 않고 묵묵히 죽음과 다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미스터리 형사물의 외형을 하고 자살이라는 미스터리의 퍼즐을 맞춰야 하지만 <내가 죽던 날>은 아주 느린 속도로 사람들의 마음을 따르고 어루만지며 공감하는 영화다. 공감의 온도와 동감의 감각을 함께 아우르기 위해 박지완 감독은 이혼을 앞둔 여성(현수)과 아버지의 범죄 때문에 섬에 갇힌 소녀(세진)의 각각 다른 삶 속에서 도플갱어처럼 똑같은 표정을 관객들이 발견하게 만든다.

## 다시 살게 된 그날

박지완 감독은 세 여인을 둘러싼 대부분의 사람에게 악해서가 아니라 악해서 비겁해지는 우리 모습을 덧씌운다. 결국 현수가 만나는 세진의 주위 사람들은 모두 저 살 궁리만 하는 사람들이다. 세진의 죽음을 애통해하기 앞서 모두 자기는 잘못이 없다며 변명하기에 급급하다. 하지만 순천택은 다르다. 원가를 숨기고 있지만 유일하게 그녀

만이 세진에 대해 온기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실제로 이미 오래전에 삶 속에서 죽기로 결정했던 순천택은 자신처럼 세진이 죽어가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다. 순천택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세진에게 손을 내민 유일한 사람이다. 그리고 아주 어린 삶을 구원하기 위해 두렵지만 용기를 낸다. 그 작은 토닥임은 결국 세진에게 삶을 되돌려 준다. 더불어 그 선의는 현수에게도 새 생명을 전한 셈이다.

박지완 감독은 여고생의 성장을 그린 단편 <여고생이다>로 제10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아시아 단편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그는 첫 장편 데뷔작인 <내가 죽던 날> 속에 미스터리와 성장 드라마를 여유롭게 녹여낸다. 각각 다르지만 어쩌면 하나로 엮인 세 여인의 교류와 교감, 그리고 정서는 배우들의 연기로 단단해진다. 영화의 중심에 단단하게 박힌 김혜수와 눈빛 하나로 모든 이야기를 전하는 이정은, 그리고 대선배들 사이에서 확실한 존재감을 드러내는 노정의의 연기가 그물처럼 엮혔다.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겠지만 연출로는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 몇 가지 아쉬움은 김혜수와 이정은이 말하지 않고 서로 마주한 순간 채워진다.

삶은 건조해서 자주 사람들의 마음이 거칠어진다. 뾰족하게 선인장이 된 사람들은 두 팔 벌려 서로를 안아줄 수가 없다. 그렇게 바스락대는 무관심에 맘이 쏠려 생채기가 난 그곳에 눈을 돌려보면 늘 사람이 있다. <내가 죽던 날>은 마음의 흉터가 표정이 돼버린 지친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영화다. 하늘보다 땅에 가까운 발을 따라가 주는 그런 마음 덕분에 오늘도 숨 쉰 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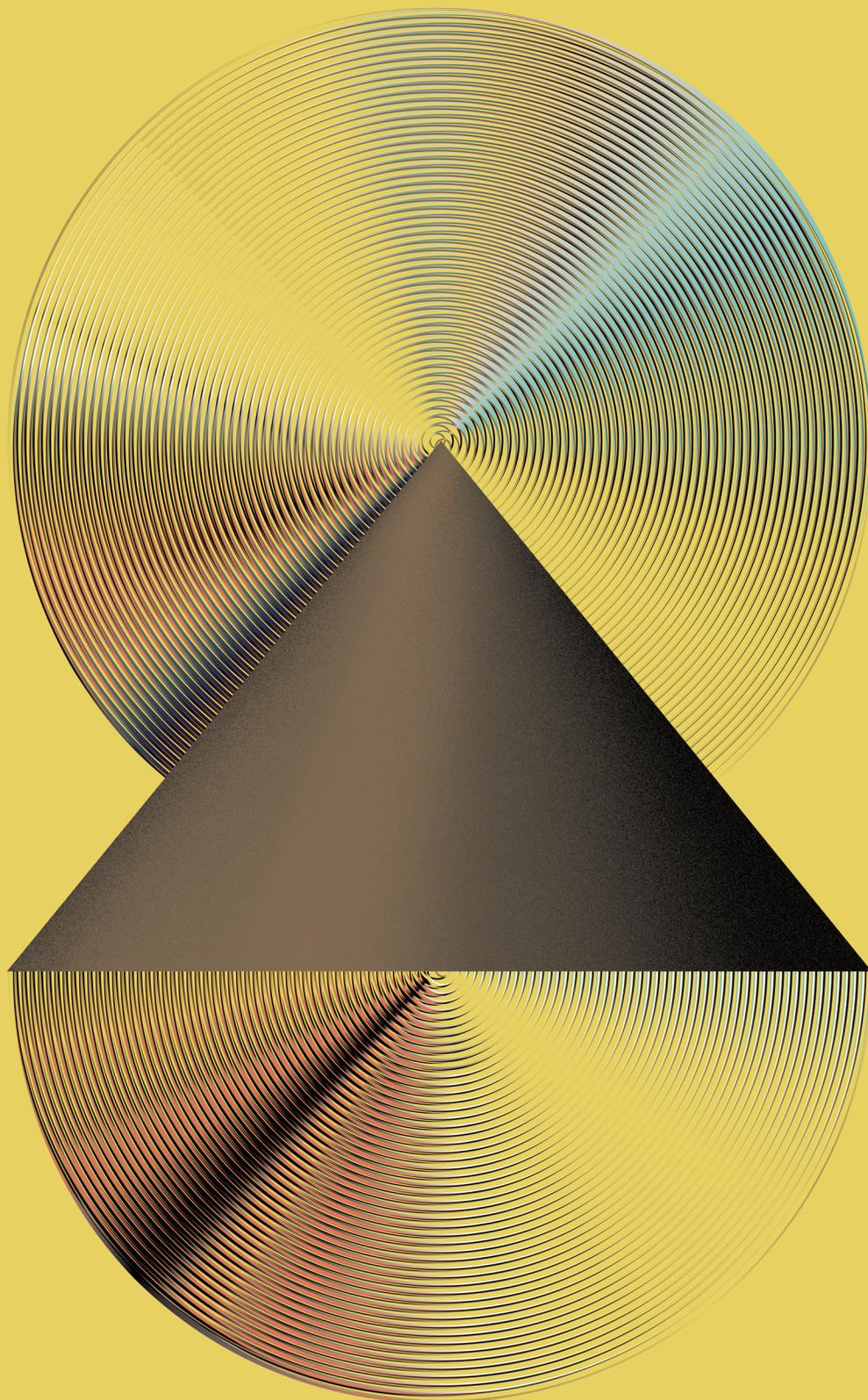
## <내가 죽던 날>(2020)

감독 박지완

출연 김혜수(현수 역), 이정은(순천택 역), 노정의(세진 역),

김선영(민정 역), 이상엽(형준 역)

글 최재훈\_영화감독이 만들어낸 영상 언어를 지면 위에 또박또박 풀어내는 일이 가장 행복한 영화평론가. 현재 서울문화재단에서 근무하며 각종 매체에 영화평론과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2  
0  
2  
1

서울  
예술  
지원

2 차  
공모



---

# WEBZine<sup>+</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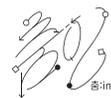
주머니 속 문학잡지 [비유]는 모두에게 열려 있는 책장입니다.  
더 많은 이야기는 웹진에서 만나보세요!

[sfac.or.kr/literature](http://sfac.or.kr/literature)



연극 전문 웹진 [연극in]은 연극을 다양한 감각으로 마주하게 합니다.  
현장과 무대, 공연하는 예술가를 관객과 매개합니다.

[sfac.or.kr/theater](http://sfac.or.kr/theater)



[춤:in]은 무용 전문 웹진으로 정보와 이슈를 제공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무용계 현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제시합니다.

[sfac.or.kr/dance](http://sfac.or.kr/dance)

---



## !, 문학과 우리 삶이 맺는 올통볼통한 매듭

낮익은 문장 부호가 보인다. '!'를 클릭하면 조금씩은 당신의 예상에서 비켜난 이야기가 흘러나온다. 웹진 [비유]의 '!(하다)' 이야기다. '!(하다)'는 매년 프로젝트 공모를 통해 문학적 실험의 과정과 시선을 좇는 연재 코너로, 현재까지 총 26개 팀의 각양각색 프로젝트가 진행됐다. 단 하나뿐인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고민하는 모든 이가 함께 만들고 펼쳐볼 수 있는 페이지라 할 수 있다. 여기서는 더 많은 독자가 동행해 주기를 바라면서 2020년 여름 시작해 최근 연재를 마친 다섯 개의 프로젝트를 훑어본다.

### 1. 대신 산책해 드립니다 <서울 산: 책>

<서울 산: 책>은 2000년대 이후 한국문학에 그려진 공간을 탐방하며 서울에 대한 단상, 시대에 따른 공간의 변천 과정과 숨은 이야기를 살핀다. 프로젝트를 진행한 '경계 없는 작업실'은 서울을 거점으로 활동한 소설가 성해나와 건축학도 원정아가 이룬 팀이다. 김사과 소설《여름을 기원함》과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 김연수 소설《동욱》과 용산, 정용준 소설《선릉 산책》과 선릉 등을 오가면서 문학과 건축의 뚜렷해 보이던 경계가 희미해지며 비로소 생동하는 사람들의 삶을 가까이 느낄 수 있다.

우리가 시장을 찾은 날 역시 사람은 많았지만, 시장의 규모로 짐작해 보건대 코로나로 인해 평소보다 인파가 줄어든 느낌이 들었다. 시장을 한참 누빈 끝에 발견한 청해수산. 소설 속에선 폐업한 가게로 나오지만, 현재도 원활히 운영되고 있다. '도화와 이수가 이곳에서 돛을 샀지.' 떠올리며 그곳을 지났다. <서울 산: 책> 5화 부분

### 2.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이거 나 아냐>

견다 보니 극장 앞이다. 오늘의 무대에 새로운 '나'가 필요하다고 느낀 세 명의 극작가 구하나·박주영·서동민은 창작집단 담이라는 이름으로 <이거 나 아냐>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들은 1화에서 매력적이면서 새로운, 현실에 발붙인 살아 있는 캐릭터를 만드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털어놓는다. 작가로서 무대에 어떤 인물을 세울 것인지 고민하는 장면은 새삼스럽지 않더라도 창작 집단 담과 배우들의 대화, 각기 혹은 함께 욕망하고 상상하고 창조하고자 하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흥미롭다. <이거 나 아냐>가 창조한 인물들-윤성·윤희·은재의 프로필과 기방 속 물건들, 독백 녹음본까지 살피는 동안 좀 헛갈린다. 무대에 오르기 전이지만 드디어 우리가 만났다는 반가움과, 한편으론 살면서 이미 한 번쯤 부대끼며 지낸 사이 같은 생생함이 뒤섞여서.

왜 그렇게 보세요? 10년을 봐온 친구도 이해 못하는 마음을 그날 처음 본 사람에게 이해받으려 했다는 게 그렇게 이상한가요? 그런데 이런 만남은 누구나 꿈꾸잖아요. 무도회장에서 서로를 알아본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수많은 사람 속에서 서로를 알아보고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읽어주는 관계. 그건 꼭 연인들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저도 상상해보는 거예요. 비록, 제가 사람들과 맺는 관계는 연애 감정으로 맺어지는 관계는 아닐지라도요. <이거 나 아냐> 7화 부분



### 3. 매일 예언이 여기로 온다 <P!ng>

“텍스트와 이미지를 주고받으며 서로를 번역합니다. 가능한 멀리까지 공놀이를 지속하며 오해를 확장하고자 합니다.” <P!ng> 프로젝트를 진행한 스튜디오 풀옵션의 프로필에 적힌 문장이다. <P!ng>의 세계는 탄생하기까지의 과정이 독특하고 실험적이다. 시가 불러온 세 장의 이미지(구글 뉴스 데이터를 통해 도출된 세 개의 문장과 연계된 이미지)를 소설가는 ‘예언-이미지’라 명명하며 그 위로 이야기 세계를 탄탄히 쌓아간다. 디자이너가 이야기를 시각화한 이미지를 소설 말미에 덧붙여 독자로 하여금 이야기 너머를 또 한 번 상상하게 한다. 이들의 공놀이가 만드는 낯선 리듬이 당신의 일상을 멀리 던진다. 멀어지고, 멀어지고, 멀어져서, 마침내는 전혀 다른 세계의 기틀이 됩니다. 우리는 기틀 위로 예언과 관련된 다섯의 이야기-쌍둥이와 사민, 진우, 그리고 P-를 쌓고자 합니다. 이들 다섯의 운명은 매달 시가 도출하는 예언-이미지에 따라 조금씩 변화합니다. 우리는 실제와 허구, 텍스트와 이미지의 주고받기를 통하여 문학쓰기의 우연성과 필연성을 함께 즐기고자 합니다. 독자 여러분 또한 규칙을 기억해주시면서, 혹은 완전히 잊은 상태로 이야기를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P!ng> 1화부분

### 4. 소설의 한 장면이 될 당신의 하루 <171小説>

당신의 하루를 멀리, 더 멀리 던질 때 새로운 이야기의 탄생이 가능하다는 것. 창작동인 월과월과월은 <171小説> 프로젝트를 통해 타인의 일기를 수집하고 그 일상 기록을 토대로 소설을 창작했다. 여섯 편의 일기, 그리고 짝을 이루는 여섯 편의 소설은 월과월과월 팀의 생각처럼 일상의 순간과 소설적 순간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님을 잘 말해준다. 또한 누군가의 일기를 읽는 시간, 그 일기로 쓴 소설을 읽는 시간 자체가 나의 하루 속 사소하고 개인적일 수밖에 없는 장면을 불러오고 그 안에 깃든 ‘이야기됨’을 조명한다.

내 일기로 지어진 소설을 읽으며 평행 세계의 나를 만나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찰나에 소멸될 줄 알았던 순간들이 어디선가 계속 다시 쓰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오늘의 재미 할당량을 함박 채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171小説> 8화 부분

### 5. 한 장, 두 장, 세 장, 요 아래 <요 밑 콩>

긴 산책을 끝내면 그날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일기에 쓰고 자리에 눕는다. 요를 깬다. 그런데 등이 배기고 아직 들어야 할 이야기가 남았다고 느낀다면... <요 밑 콩> 프로젝트를 살필 차례다. 모임도토리의 세 사람 계피·이응·옴파는 스스로의 옷과 외양을 그동안과 다른 눈으로 뜯어보고 그와 관련한 기억과 단상을 꿰어가며 옷의 겹 아래 숨은 의미를 이야기한다. 2·3·4화는 각기 다른 세 사람의 옷 이야기를, 5·6화는 서로의 옷을 모방해 입어보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요 밑 콩>을 보고 나면 당신의 내일 입을 옷이 달라질지도 모르겠다. 취향을, 가치관을, 개인적 역사를 말하는 옷, 그리고 그 밑에 깔려 있는 콩, 그러니까 몰랐거나 모르는 척했던 자신의 구석을 살살이 더듬고 난 다음이라면.

<요 밑 콩> 원고를 막 연재하기 시작하면서 공연 때 치마만 입는 자신이 새삼 겸연쩍게 느껴졌다. 마치 개화기의 제일 끝에서 검정 월남치마에 흰색 저고리만 고집하는 구여성으로 사는 기분이었다. 이 바지가 공연할 때 입은 내 첫 바지다. 그전에 바지를 입어도 늘 위에 치마를 받쳐 입었다. 실제로 바지를 입어보니 아무렇지도 않았다. 막상 변화하고 나면 도대체 왜 이전의 것만 그리고 고집했는지 아리송한 기분이 들기 마련이다. 옴파도 그 화려했던 머리키락을 짧게 자르고 이런 기분이었을지 모르겠다. <요 밑 콩> 6화 부분

글 남지은, 웹진 [비유] 편집자

## 아무렇지 않은 공존을 위하여

김초엽·김원영 《사이보그가 되다》

**원영**                   보청기가 없을 때 오히려 초엽님은, 소리를 더 잘 듣고 아니고와 상관없이 자신이 더 온전하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저는 휠체어가 없으면 발가벗은 느낌이 들어요. 누군가 나를 보고 있지 않다고 해도 휠체어 위에 제대로 앉아서 핸드림을 잡고 바퀴를 밀며 움직일 때 내가 한 명의 인격체로서 더 온전하다는 느낌을 받아요.

**초엽**                   보조기와 장애인의 신체를 연결 지어 바라보는 일조차 개인에 따라 너무나 다른, 고유한 경험으로 봐야 할 것 같아요. 어떤 사이보그는 보조기를 몸의 일부로 느끼고, 어떤 사이보그는 보조기와 연결을 끊고 싶어 하는, 그런 다양한 삶의 양식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이보그가 되다》본문 일부

현재 SF소설가로 활발히 활동 중인 김초엽과 변호사이자 작가로, 그리고 필자를 비롯한 공연 관객들에게는 배우이자 무용수로 더욱 친숙한 김원영의 협업이라는 점에서, 게다가 유기체와 기계의 결합을 뜻하는 ‘사이보그’ 개념을 장애 보조기와 함께 살아가는 저자들의 일상과 더불어 사유한다는 점에서 《사이보그가 되다》의 출간은 출판계를 넘어선 예술계 전반에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이 책은 김초엽과 김원영의 글이 교차하는 총 10개의 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본문의 장이 모두 끝나고 난 지점에는 녹취, 편집된 두 저자의 대담이 담겨 있다. 저자들이 보여온 그간의 활동을 반추하며 이번 신간이 내용상 문학과 법률 사이 그 어디쯤에 위치하지 않을까, 내심 기대 반, 곤혹스러움 반으로 마음을 무장해 두었지만, 정작 책의 중심에는 장애학과 과학기술학의 접점을 이루는 동시대 담론(가령, “장애인을 위한 기술이 아니라 장애인과 장애 공동체가 직접 만들고 건설하는 기술 정치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크립 테크노사이언스”(187쪽 등)에 대한 세밀한 고찰과 “자신을 끊임없이 감추고 숨기고자 하는 우리의 현실



세계 속 사이보그들”(135쪽)에 대한 이야기가 놓여 있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사이보그가 되다》속 사이보그의 형상은 누구나 한 번쯤은 상상해 봤음직한 “아이언맨 슈트를 입고 하늘과 바다를 누비는 슈퍼히어로도 아니고, 기계와 인간, 정상과 비정상이라는 경계와 구분을 없애고 횡단하는 잡종적인 존재의 경이로운 상징도”(113쪽)도 아닌, 마치 두 개의 사물을 접합하는 데 가장 간편하고 효과적인 ‘테크놀로지’이자, 어느 집이든 하나쯤은 있게 마련인 청테이프처럼 유연하고 일상적인 관계의 패치워크로서 제시되고 있었다.

그리고 저자들의 생각에 흐름을 만들어내던 그 모든 언어의 밑바탕에는, 또한 ‘결코 쉽지 않은 비유’와 ‘잔여물 없이 분명한 상념’ 사이의 이음새를 만들어내던 그와 같은 언어의 밑바탕에는, 두 저자의 몸과 마음에 오랜 시간 쌓여온 서로 다르며 같은 경험의 커가 있었다. 열여섯 살에 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은 후부터 보청기를 착용하고 있는 김초엽 작가와 골형성부전증으로 한 살 무렵부터 정형외과 치료를 받아야 했던 김원영 작가가 겪어온 장애는 가시성 여부에서 보이는 차이(비가시적 청각장애와 가시적 지체장애)에서부터 보조기기에 대한 개인의 감각 차이(“보청기는 나의 장애가 투영되는 대상이라기보다는 약간 걸리적거리는 보조기기”(김초엽), “휠체어가 없으면 발가벗은 기분”(김원영))에 이르기까지 장애 상태와 그 상태에 놓인 몸에 대한 이해의 균질화(homogenize)를 경계하게끔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두 저자의 경험 인식은 공통적으로 독자로 하여금 신체장애에 대해 특정 신체 부위의 기능적 결합으로만 여기는 일반적인 인식에 대해 재고하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가온다. 김원영 작가의 말처럼 장애는 단순히 신체 기능의 결여라기보다는 오히려 ‘정상이 아닌 몸’이라는 사회적 평가를 획득한 일종의 신분(지위)에 가까우므로 “고도로 발전한 테크놀로지가 기능의 결여를 보완한다 해도 여전히 장애는 존재할 수 있”(155쪽)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김초엽 작가가 장애 중심적 공간 설계와 관련해 “장애가 손상에 따르는 필연적인 결과가 아니라, 공간에 따라 재규정될 수 있는 개념”(194쪽)임을 언급할 때, 우리 일상 속에서 신체장애를 장애라는 특정 상태로, 즉 결여와 불가능의 상태로 환원시키는 요인들에 대해 자연스럽게 재인식하게 된다. 불가능하거나 불가항력적인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초월적 세계가 아닌, 어쩌면 가능할 수도 있는 것들의 허락된 잠재력을 지금, 여기에서 탐구해 보는 것. 다르지 않을 수 있음의 다른 방식들을 소환해 하나씩 실천해 보는 것. 바로 그 지점에서 아래와 같이 김초엽 작가가 그리는 해방적 미래 서사는 환기될 수 있지 않을까.

설령 그것이 아주 어려운 상상이라고 해도 나는 모든 사람이 ‘유능한’ 세계보다 취약한 사람들이 편하게 제 자신으로 존재하는 미래가 더 해방적이라고 믿는다. 어떤 손상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미래보다는 고통받는 몸, 손상된 몸, 무언가를 할 수 없는 몸들을 세계의 구성원으로 환대하는 미래가 더 열려 있다고 믿는다. (281~282쪽)

글 손욱주 공연학자.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연극학, 무용학 전공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무용 오리엔탈리즘에 관한 포스트닥터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현재 학술 연구와 동시에 리서치 파트너와 드라마투르그로 공연 현장에서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춤의 감수성과 문학적 상상력은 서로 맞닿아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춤을 닦은 글을 쓰기 위해 노력한다.

Q 당신은 누구입니까?

**인정주** 저는 11세 큰강물, 4세 해솔 두 아이의 엄마이고요. 무용 안무 작업과 보험 영업 일을 하고 있어요. 기공 수련을 하는 도반이기도 합니다. 평소엔 저를 '에미'라고 소개하죠. 에미가 누군지, 처한 상황이 어떤지 잘 아실 거예요. (웃음) 현재는 육아·예술·자본을 넘나드는 여러 층위의 일을 하고 있지만 개인의 나로서 평생 마음에 품은 꿈은 결국 예술가(무용)일 것 같아요.

**밝넝쿨** 아내인 인정주 씨와 두 아이를 키우며 춤을 추고, 나누고, 만드는 일을 하는 밝넝쿨입니다. 여러 가지 역할이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며 복잡하게 얽혀 있지만 춤을 통해 그것들을 조금씩 풀어나가고 있는 무용가입니다.

Q 이곳은 어디입니까?

**밝넝쿨** 성수아트홀 극장이고 영감부터 작업까지 저희 모든 춤의 과정이 펼쳐지는 공간입니다. 회오리바람이 이는 치열한 공간이면서 짧지만 태풍의 눈 같은 안락과 편안을 주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많은 사람과 춤을 통해 교감하는 공간입니다.

**인정주** 저희 무용단 오마이라이프 무브먼트 씨어터가 올해로 16세가 되었어요. 사람으로 치면 중학교 3학년 정도인데 '서울문화재단 공연장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에 선정된 성수아트홀의 상주단체 4년 차예요. 성수아트홀은 교육특구인 성동의 지역 주민 분들께서 생활에 필요한 활동 혹은 여가를 즐기시는 복지회관 건물에 위치하고 있어요. 성수아트홀 극장 로비에 최근 책마루라는 공간도 생겨나면서 공연 감상부터 책을 통한 사색까지 어우러지는 공간일 수 있다 싶어요. 코로나 시대 이전에는 성동 지역의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했다고 봐요. 제가 예술가로서 체감하는 성수아트홀은 관객을 만나기 위한 최종 목적지인 동시에 무용이라는 모험이 펼쳐지고 있는 근거지이자 베이스 캠프죠. 제가 2012년에 어린이·청소년 무용 작업에 뜻한 바 있어 매우 미미한 시작을 했어요. 공간도 없었고요. 어느덧 시간이 흘러 성수아트홀에서 처음으로 어린이·청소년 무용 작업을 펼칠 수 있어서 뜻깊고 고마운 곳이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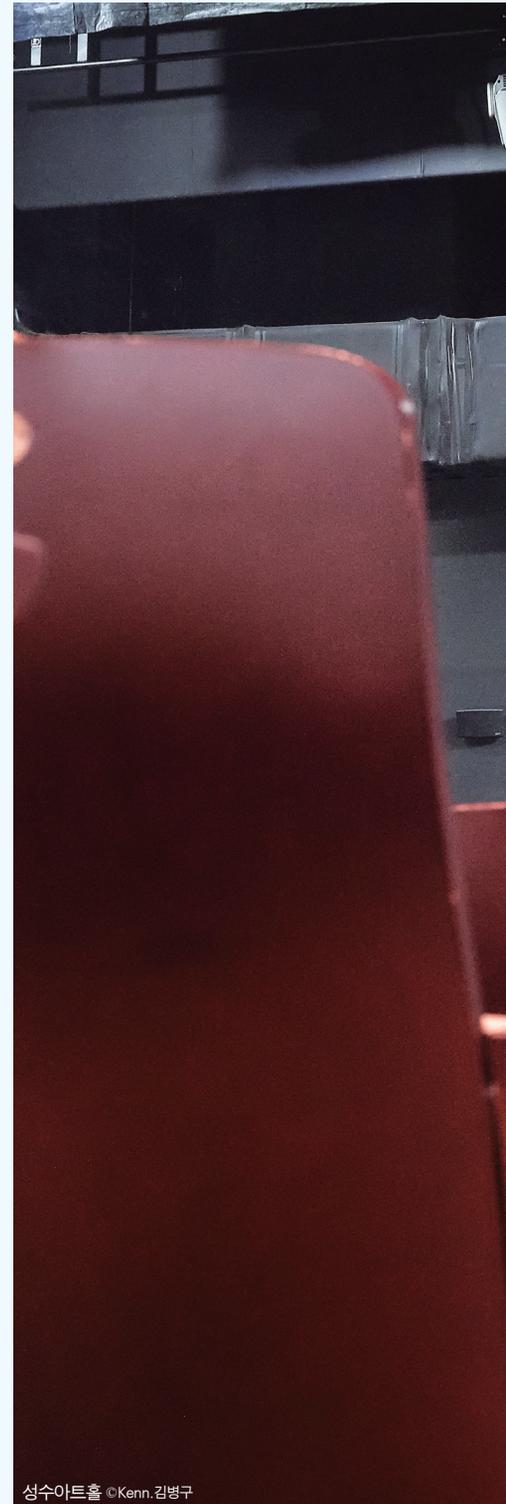
Q 이곳에서 춤은 어떻게 발견되나요?

**밝넝쿨** 집이나 저희가 자주 가는 동네 작은 찻집 같은 공간들이 사색하고, 책을 읽고,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공상을 하는 곳이라면, 이곳은 그동안의 공상과 망상들이 멋진 상상으로 전환되는 장소입니다. 무대와 조명 그리고 객석에서 감지되는 오묘하고 반가운 느낌들... 상상이 현실로 펼쳐지는 공간이죠. 드러나는 것들의 출발점이 되는 거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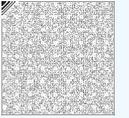
**인정주** 극장 냄새라고 하죠? 근데 진짜로 있는 냄새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극장 냄새 말으면 꼭 좋은 건 아닌데 뇌가 반응을 해요. 예술가 모드가 작동한다고 할까요. 텅 빈 공간, 그 위에 그려보는 몸들. 혹은 움직이는 몸들을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게 돼요. 재밌어요. 안무 작업할 때 극장에 와 있는 것만으로도 춤에 대해 생각하고 영감을 받고 발견하게 돼요.

취재·정리 김연임\_웹진 [춤:in] 편집장

**아티스트 소개** 오마이라이프 무브먼트 씨어터는 '나의 삶과 춤, 그리고 극장'이라는 뜻을 가진 무용 단체로 인정주와 밝넝쿨이 2005년 창단했다. '몸-춤의 가능성에 대한 탐구'라는 주제로 춤의 본질에 다가가는 작업을 해왔다. 2016년부터 '미래를 여는 프로젝트-동심(童心)으로 바라보는 세계관'이라는 화두로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무용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최근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온라인 무용 <동물극장춤>을 발표했다.



성수아트홀 ©Kenn.김병구



춤+여기

# 똥과 땀처럼, 서로를 지탱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좋은 파트너

오!마이 라이프 무브먼트 씨어터, 인정주+밝닝클



웹진 [춤: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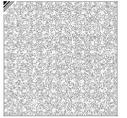
# 03

SFAC  
문화예술공간

-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 금천예술공장
- 대학로연습실
- 문래예술공장
- 삼일로창고극장
- 서교예술실험센터
- 서서울예술교육센터
-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 서울무용센터
- 서울연극센터
- 서울예술치유허브
- 신당창작아케이드
- 연희문학창작촌
- 잠실창작스튜디오
- 청년예술청
- 서울예술교육센터

- SFAC 행사·축제·예술교육·지원 및 협력
- 기타 문화행사

Mon	Tue	Wed
<p><b>1</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뮤지컬 &lt;천로역정&gt;(~3. 1)</li> <li>● 뮤지컬 &lt;세례요한&gt;(~3. 1)</li> <li>● 전시 &lt;스폰지밥의 행복을 찾아서&gt;(~3. 1)</li> <li>● 뮤지컬 &lt;젠틀맨스 가이드&gt;(~3. 1)</li> <li>● 연극 &lt;올드위키드송&gt;(~3. 1)</li> <li>● 연극 &lt;신바람 난 삼대&gt;(~3. 1)</li> <li>● 연극 &lt;환상동화&gt;(~3. 1)</li> <li>● 뮤지컬 &lt;맨 오브 라만차&gt;(~3. 1)</li> <li>● 뮤지컬 &lt;하모니&gt;(~3. 1)</li> <li>● 무용 &lt;1919년, 소녀&gt;</li> <li>● 전시 &lt;Non-Landscape 불경 不景&gt;(~3. 20)</li> </ul>	<p><b>2</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연 &lt;김성혜 바이올린 독주회&gt;</li> <li>● 공연 &lt;홍창준 클라리넷 독주회&gt;</li> <li>● 공연 &lt;화음챔버오케스트라 다큐멘터리 노스텔지어&gt;</li> <li>● 공연 &lt;나의 나라&gt;</li> <li>● 뮤지컬 &lt;인사이드 윌리엄&gt;(~4. 11)</li> <li>● 전시 &lt;장우진: 철, 소음, 구름&gt;(~3. 2)</li> <li>● 전시 &lt;Fine Dust II-14월&gt;(~3. 15)</li> <li>● 전시 &lt;이름 없는 냄새&gt;(~3. 2)</li> </ul>	<p><b>3</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연 &lt;오영란 하프시코드 독주회&gt;</li> <li>● 공연 &lt;디아트윈 정기연주회&gt;</li> <li>● 공연 &lt;최은영 피아노 독주회&gt;</li> <li>● 공연 &lt;임동민, 임동혁 듀오 리사이틀&gt;</li> <li>● 공연 &lt;홍성은 첼로 독주회&gt;</li> <li>● 연극 &lt;미스터셰프&gt;(~3. 7)</li> </ul>
<p><b>8</b></p>	<p><b>9</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연 &lt;김광군 바이올린 독주회&gt;</li> <li>● 공연 &lt;모차르트 인 시네마&gt;</li> </ul>	<p><b>10</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연 &lt;정한빈 피아노 리사이틀&gt;</li> <li>● 공연 &lt;임한나 플루트 독주회&gt;</li> <li>● 공연 &lt;김한, 원재연 듀오 콘서트&gt;</li> </ul>
<p><b>15</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연 &lt;손민수 피아노 리사이틀&gt;</li> <li>● 공연 &lt;강지성 첼로 독주회&gt;</li> </ul>	<p><b>16</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연 &lt;브라스 무브먼트&gt;</li> <li>● 뮤지컬 &lt;블루레인&gt;(~6. 6)</li> <li>● 뮤지컬 &lt;아이위시&gt;(~5. 23)</li> </ul>	<p><b>17</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연 &lt;또모 예고생들 TOP5 콘서트&gt;</li> <li>● 공연 &lt;첼리스트 주연선 리사이틀&gt;</li> <li>● 뮤지컬 &lt;팬텀&gt;(~6. 27)</li> </ul>
<p><b>22</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시 &lt;Out of Photography&gt;(~3. 22)</li> </ul>	<p><b>23</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용 &lt;사나위, 몽&gt;(~3. 28)</li> <li>● 무용 &lt;해적&gt;(~3. 28)</li> <li>● 공연 &lt;경기필하모닉 헤리티지 시리즈 I -슈만 &amp; 베토벤&gt;</li> </ul>	<p><b>24</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연 &lt;울 댓 베토벤 &amp; 팬텀&gt;</li> <li>● 공연 &lt;김지현 &amp; 임현정 피아노 듀오 리사이틀&gt;</li> </ul>
<p><b>29</b></p>	<p><b>30</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극 &lt;테스트랩&gt;(~6. 6)</li> </ul>	<p><b>31</b></p> <p><b>만가만 관객있길</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극 &lt;크리미널&gt;(~3. 31)</li> <li>● 연극 &lt;나의 PS 파트너&gt;(~3. 31)</li> <li>● 연극 &lt;사춘기 메들리&gt;(~3. 31)</li> <li>● 연극 &lt;오백에 삼십&gt;(~3. 31)</li> <li>● 연극 &lt;연애하기 좋은날&gt;(~3. 31)</li> <li>● 연극 &lt;자취&gt;(~3. 31)</li> <li>● 뮤지컬 &lt;씨니텐&gt;(~3. 31)</li> <li>● 뮤지컬 &lt;도서관에 간 사자&gt;(~3. 31)</li> <li>● 연극 &lt;NT Live 리어왕&gt;(~4. 4)</li> </ul>



Thu	Fri	Sat	Sun
<b>4</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연 &lt;박지형 기타 리사이틀&gt;</li> <li>● 공연 &lt;정진희 바이올린 독주회&gt;</li> <li>● 공연 &lt;김성훈 피아노 독주회&gt;</li> <li>● 공연 &lt;황소명 피아노 독주회&gt;</li> <li>● 공연 &lt;강남문화재단 제132회 클래식 품격콘서트&gt;</li> <li>● 연극 &lt;해가 지는 곳으로&gt;(~3. 7)</li> <li>● 연극 &lt;리마에 갈 때는 머리에 꽃을&gt;(~3. 14)</li> </ul>	<b>5</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연 &lt;피가로의 결혼&gt;</li> <li>● 공연 &lt;코리안윈드오케스트라 신년음악회&gt;</li> <li>● 공연 &lt;2021 서울시향 임지영의 스코틀랜드 환상곡&gt;</li> <li>● 공연 &lt;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실내악시리즈&gt;</li> <li>● 공연 &lt;한승아 오보에 독주회&gt;</li> <li>● 무용 &lt;춤의 향기&gt;(~3. 7)</li> <li>● 연극 &lt;키스&gt;(~3. 21)</li> <li>● 연극 &lt;나와 할아버지&gt;(~4. 18)</li> </ul>	<b>6</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극 &lt;수상한 외갓집&gt;(~3. 6)</li> <li>● 공연 &lt;뮤지컬 옴니버스&gt;</li> <li>● 공연 &lt;김현미 바이올린 독주회&gt;</li> <li>● 공연 &lt;김준 피아노 독주회&gt;</li> <li>● 공연 &lt;이준성 피아노 독주회&gt;</li> <li>● 공연 &lt;슬릭 콘서트&gt;</li> <li>● 공연 &lt;양승희 바이올린 독주회&gt;</li> <li>● 무용 &lt;왜곡&gt;(~3. 7)</li> </ul>	<b>7</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뮤지컬 &lt;그날들&gt;(~3. 7)</li> <li>● 뮤지컬 &lt;스모크&gt;(~3. 7)</li> <li>● 뮤지컬 &lt;명성황후&gt;(~3. 7)</li> <li>● 연극 &lt;제인&gt;(~3. 7)</li> <li>● 연극 &lt;현혹&gt;(~3. 7)</li> <li>● 공연 &lt;빈센트를 위하여&gt;</li> <li>● 공연 &lt;박현정 플루트 독주회&gt;</li> <li>● 공연 &lt;팬텀 오브 클래식&gt;</li> </ul>
<b>11</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연 &lt;룩스 트리오 연주회&gt;</li> <li>● 공연 &lt;2021 예술의전당 11시 콘서트&gt;</li> <li>● 공연 &lt;나무, 물고기, 달&gt;(~3. 21)</li> <li>● 연극 &lt;취송&gt;(~3. 24)</li> </ul>	<b>12</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연 &lt;백건우 피아노 리사이틀&gt;</li> <li>● 연극 &lt;적의 화장법&gt;(~3. 14)</li> <li>● 연극 &lt;코스모스&gt;(~3. 28)</li> <li>● 전시 &lt;Beam Me Up!&gt;(~4. 18)</li> </ul>	<b>13</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연 &lt;최수지 클라리넷 독주회&gt;</li> <li>● 공연 &lt;소프라노 김현희 독창회&gt;</li> <li>● 뮤지컬 &lt;최치폭폭 민요유림&gt;</li> <li>● 공연 &lt;양인모 바이올린 리사이틀&gt;</li> <li>● 공연 &lt;9와 숫자들 콘서트&gt;</li> <li>● 공연 &lt;포르테 디 파트로 콘서트&gt;</li> <li>● 연극 &lt;진구는 게임 중&gt;(~4. 25)</li> <li>● 뮤지컬 &lt;브라더스 가라마조프&gt;(~6. 6)</li> <li>● 전시 &lt;유령패션&gt;(~3. 13)</li> <li>● 뮤지컬 &lt;명동 로망스&gt;(~6. 20)</li> <li>● 전시 &lt;MY Q 마이큐 개인전&gt;(~4. 23)</li> </ul>	<b>14</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시 &lt;유미의 세포들 특별전&gt;(~3. 14)</li> <li>● 뮤지컬 &lt;고스트&gt;(~3. 14)</li> <li>● 뮤지컬 &lt;베르나르다 알바&gt;(~3. 14)</li> <li>● 연극 &lt;굿나잇 케플러&gt;(~3. 14)</li> <li>● 공연 &lt;백건우 버르토크 협주곡&gt;</li> <li>● 공연 &lt;황규연 비올라 독주회&gt;</li> <li>● 전시 &lt;아크로벳&gt;(~3. 14)</li> </ul>
<b>18</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연 &lt;유해리 호른 리사이틀&gt;</li> <li>● 공연 &lt;코리안 브라스 앙상블의 다이얼로그 II&gt;</li> </ul>	<b>19</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시 &lt;산책자들&gt;(~3. 19)</li> <li>● 연극 &lt;장수상회&gt;(~4. 4)</li> </ul>	<b>20</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연 &lt;소프라노 김남영 독주회&gt;</li> <li>● 공연 &lt;김세미의 수궁가 추담제&gt;</li> </ul>	<b>21</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뮤지컬 &lt;알사탕&gt;(~3. 21)</li> <li>● 연극 &lt;비프&gt;(~3. 21)</li> <li>● 연극 &lt;얼음&gt;(~3. 21)</li> <li>● 뮤지컬 &lt;큐로이저택엔누가살고있을까&gt;(~3. 21)</li> <li>● 뮤지컬 &lt;그레이트 코멧&gt;(~5. 30)</li> </ul>
<b>25</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연 &lt;백주영, 이진상 리사이틀&gt;</li> <li>● 공연 &lt;2021 서울시향 최수열과 임선혜&gt;(~3. 26)</li> </ul>	<b>26</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연 &lt;살롱음악회&gt;(~3. 26)</li> <li>● 공연 &lt;최정섭 색소폰 독주회&gt;</li> <li>● 연극 &lt;NT Live 한여름 밤의 꿈&gt;(~3. 28)</li> </ul>	<b>27</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극 &lt;코미디헤이븐쇼&gt;(~3. 27)</li> <li>● 공연 &lt;볼체파르티트 연주회&gt;</li> <li>● 공연 &lt;박희정 피아노 독주회&gt;</li> <li>● 전시 &lt;Filtering&gt;(~3. 27)</li> </ul>	<b>28</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극 &lt;죽어야 사는 남자&gt;(~3. 28)</li> <li>● 연극 &lt;안나라수마나라&gt;(~3. 28)</li> <li>● 뮤지컬 &lt;몬테크리스토&gt;(~3. 28)</li> <li>● 뮤지컬 &lt;붉은 정원&gt;(~3. 28)</li> <li>● 뮤지컬 &lt;내 친구 유관순&gt;(~3. 28)</li> <li>● 연극 &lt;파우스트 엔딩&gt;(~3. 28)</li> <li>● 공연 &lt;오! 2021&gt;</li> <li>● 전시 &lt;싸우는 여자들, 역사가 되다! 역사를 뒤흔든 여성 독립운동가 14인의 초상&gt;(~3. 28)</li> </ul>

※해당 공연·전시·행사 등의 일정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전시 <유령패션>**

중진 작가 안창홍이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창작 기법으로 2년 동안 준비한 디지털펜화 드로잉전을 선보인다. 스마트폰으로 창작한 수백 점의 디지털펜화 중 50점을 공개한 이번 전시는 '비움의 미학' 대신, '비워짐의 허망함'을 고발한 것이다.

**일시** 2월 15일(월)~3월 13일(토)  
 화~토 오전 10시~오후 6시(일·월·공휴일 휴관)  
**장소** 호리아트스페이스·아이프라운지  
**관람료** 무료  
**문의** 02-518-8026



**전시 <Filtering>**

작가 정고요나는 팬데믹 상황에서 '필터링(filtering)'이란 행위를 통해 SNS에서 사회적 네트워킹에 집착하는 현상 및 정서를 동시대 텍스트로 시각화한다. 형식적으로는 회화 작가로서의 오랜 고민과 실천을 기반으로, 언택트 시대의 가상으로 통하는 자기 최면화된 모호한 관계와 욕망을 드러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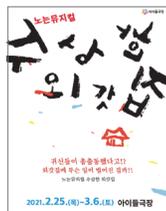
**일시** 2월 18일(목)~3월 27일(토)(일·월·공휴일 휴관)  
**장소** CR Collective(세알콜렉티브)  
**관람료** 무료  
**문의** 02-333-0022



**전시 <아크로벳(Acrobat)>**

전시 제목 '아크로벳'은 우리말로 곡예사다. 작가 신정균은 영상 작품 속에서 낯선 움직임으로 사유가 담긴 몸짓을 보여준다. 그는 우연과 즉흥이 섞인 곡예로 육체가 눈앞에 나타나고 있음을 강조한다.

**일시** 2월 18일(목)~3월 14일(일)  
 화~일 오후 12시~6시(월 휴관)  
**장소** 통의동 보안여관  
**관람료** 무료  
**문의** 02-720-8409



**뮤지컬 <수상한 외갓집>**

할미 혼자 집을 지키는 오래된 집. 집 지킴이 신들이 총출동했다. 오랜만에 외갓집에 온 손주를 위해 집지킴이 신들이 셀프 지신밟기를 하며 활기를 찾지만, 할미가 급한 일로 잠시 외출하게 된다. 집지킴이 신들은 손주들과 외갓집을 무사히 지켜낼 수 있을까.

**일시** 2월 25일(목)~3월 6일(토)  
 목 오후 4시 | 금 오후 7시 30분 | 토 오후 2시(일~수 휴관)  
**장소** 아이들극장  
**관람료** 전석 2만원  
**문의** 02-2088-4290



**전시 <산책자들>**

누크갤러리에서 열리는 2021년 첫 전시다. 유근택 작가와 그 제자들 박능생·박형진·조민아·진현미·조원득·채효진이 참여한다. '그리기'의 본질과 소통의 문제를 직면하고 있는 시대에 여기 '산책자들'은 저마다 현재의 다양한 태도를 작품에 반영했다.

**일시** 2월 26일(금)~3월 19일(금)  
 화~토 오전 11시~오후 6시(일·월 휴관)  
 공휴일 오후 1시~6시  
**장소** 누크갤러리  
**관람료** 무료  
**문의** 02-732-7241 | nookgallery1@gmail.com



**연극 <굿나잇, 케플러>**

지구와 비슷한 환경의 외계 행성을 찾기 위해 광활한 우주를 끝없이 떠도는 케플러, 우주망원경. 지구를 연구하기 위해 머나먼 우주에서 지구로 보내져 홀로 힘겹게 활동 중인 외계인, 지금 이름은 김연수.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한 남자의 슬픈 메아리가 우주 가득 퍼진다.

**일시** 2월 27일(토)~3월 14일(일)  
 평일 오후 8시 | 주말 오후 4시(월 휴관)  
**장소** 나운씨어터  
**관람료** 전석 3만원  
**문의** 02-3675-3677



### 뮤지컬 <인사이드 윌리엄>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해피엔딩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작가 셰익스피어. 그러나 원고 밖을 빠져 나온 줄리엣·햄릿·로미오를 통제할 수 없다. 재기 발랄한 상상력과 판타지가 만난 뮤지컬 <인사이드 윌리엄>은 셰익스피어의 《햄릿》과《로미오와 줄리엣》을 능청스럽게 비튼 패러디로 의외성과 원작의 문학성을 함께 지녔다.

**일시** 3월 2일(화)~4월 11일(일)  
화·수·금 오후 8시 | 목·오전 4시·8시  
토·일 오후 3시·6시 30분(월 휴관)  
**장소** 대학로 아트원씨어터 1관  
**관람료** R석 6만 6천 원, S석 5만 5천 원, A석 4만 4천 원  
**문의** 02-766-6007



### 연극 <미스터 슈이프>

극작가 차근호의 희곡 <미스터 슈이프>는 단순함과 복잡한 이면이 결합돼 있다. 기성세대를 상징하는 슈이프는 최고 권위자이며 자존감이 하늘을 찌르는 인물이다. 제자를 자청해 찾아온 젊은 아가씨는 발랄하고 요리에서조차 파격을 구사하려고 한다. 정통을 고집하는 슈이프와 제자의 갈등과 화해의 이야기가 흐른다.

**일시** 3월 3일(수)~7일(일)  
수~금 오후 7시 30분 | 토 오후 3시·6시 | 일 오후 3시  
**장소** 동숭무대소극장  
**관람료** 전석 3만 원  
**문의** 010-7124-8625



### 연극 <리마에 갈 때는 머리에 꽃을>

우리 사회는 고령화되고 있고, 현실은 그 속도에 비례해서 빠르게 달라지고 있다. 이 연극의 소재는 소외되고 힘없는 자들의 삶이다. 연극은 그들이 삶의 원천을 무엇으로부터 이끌어내는지 보여준다.

**일시** 3월 4일(목)~14일(일)  
평일 오후 8시 | 주말 오후 4시(월 휴관)  
**장소**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관람료** R석 5만 5천 원, S석 4만 4천 원  
**문의** 010-9182-7736



### 2020 서울문화재단 창작활동지원사업 선정작

**김복희무용단 창단 50주년 기념공연 <춤의 향기>**  
춤에서의 현대성, 현대 춤에서 한국성을 추구한 한국 현대무용가 김복희의 '김복희무용단'이 2020년 창단 50주년을 맞이했다. 그 의미를 새기는 무대로, 1997년 초연된 가르시아 로르카의 소설을 원작으로 만든 '김복희무용단'의 대표 레퍼토리 <피의 결혼>과 불교에서 수천 년 만에 핀다는 상상의 꽃을 상징한 남지심 작가의 소설 <우담바라> 무용을 선보인다.

**일시** 3월 5일(금)~7일(일)  
평일 오후 8시 | 주말 오후 4시  
**장소**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관람료** R석 5만 원, S석 3만 원  
**문의** 02-2263-4680



### 연극 <나와 할아버지>

연극 <나와 할아버지>가 6년 만에 대학로로 돌아왔다. 미니멀한 무대 위에서 리얼리티 가득한 대사와 함께 한 편의 수필처럼 솔직하고 담백하게 풀어놓는 '준희'와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삶'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며 깊은 여운을 남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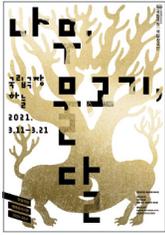
**일시** 3월 5일(금)~4월 18일(일)  
화~금 오후 8시 | 토 오후 3시·6시  
일 오후 2시·5시(월 휴관)  
**장소** 아트원씨어터 3관  
**관람료** 전석 5만 원  
**문의** 02-6498-0403



### 무용 <왜곡>

대한민국무용대상 대통령상에 빛나는 로댄스프로젝트가 2년 만의 신작 <왜곡>으로 돌아온다. 작품 <왜곡>은 안무가 노정식의 '기억' 연작으로, 전작 <Memory>에서 파생된 <타인의 기억> <파편>으로 구성된 옴니버스 형식이다.

**일시** 3월 6일(토)~7일(일) 오후 3시  
**장소**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관람료** 전석 2만 원  
**문의** 070-8807-0608



**국립창극단 <나무, 물고기, 달>**

국립창극단은 남다른 상상력이 빛나는 연출가 배요섭, 장르를 넘나드는 소리꾼 이자람과 손잡았다. 동양의 오랜 이야기들이 만나 탄생한 <나무, 물고기, 달>은 소원나무로 향하는 여정을 꿈결같이 그린 작품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며 그것을 얻게 된다면 과연 행복해질 수 있는지, 자신의 마음을 찬찬히 들여다볼 사유의 시간을 건넨다.

**일시** 3월 11일(목)~21일(일)  
 평일 오후 7시 30분 | 주말 오후 3시(월 휴관)  
**장소** 국립극장 하늘극장  
**관람료** 전석 3만 5천 원  
**문의** 02-2280-4114



**전시 <Beam Me Up!>**

금천예술공장 12기 입주작가 문이삭 개인전이다. <Beam Me Up!>은 공간 이동 시 발생하는 특수한 사건을 상상하고, 인공적 사물의 다층적인 이미지를 중첩함으로써 또 다른 사물의 가능성을 실험한다.

**일시** 3월 12일(금)~4월 18일(일)  
 화~일 오전 10시~오후 6시(월 휴관)  
**장소** 금호미술관  
**관람료** 4천 원  
**문의** 02-720-5114



**연극 <코스모스: 여명의 하코타테>**

1945년 7월, 일본 홋카이도의 탄광, 아오모리의 노동자 선술집 '마구로'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사람들의 노래가 들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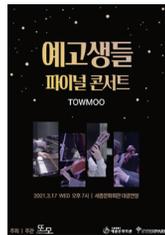
**일시** 3월 12일(금)~28일(일)  
 평일 오후 8시 | 주말 오후 4시(월 휴관)  
**장소** 예술공간 혜화  
**관람료** 전석 4만 원  
**문의** 02-6012-2845



**뮤지컬 <브라더스 까라마조프>**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 뮤지컬로 재탄생했다. 다양한 인물 군상과 크고 작은 사건들, 무수한 에피소드를 담은 방대한 규모의 원작을 4명의 형제를 중심으로 영리하게 집약했다. 삶과 죽음, 선과 악, 인간 본성에 대해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제공한다.

**일시** 3월 13일(토)~6월 6일(일)  
 평일 오후 8시 | 토 오후 3시·7시 | 일 오후 2시·6시(월 휴관)  
**장소** YES24 스테이지 1관  
**관람료** R석 6만 6천 원, S석 4만 4천 원  
**문의** 0507-1319-9637



**공연 <또모 예고생들 TOP5 콘서트>**

클래식 유튜브 채널 '또모'가 기획한 오디션 프로그램 <예고생들>로 클래식을 알리고, 동시에 한국 클래식 음악계를 이끌어갈 예비 음악 인재를 발굴한다. 심준호 첼리스트·한수진 바이올리니스트 등 저명한 아티스트의 심사를 거쳐 선발된 팀과 솔로 연주자가 무대를 장식한다.

**일시** 3월 17일(수) 오후 7시  
**장소**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관람료** 전석 2만 원  
**문의** 02-399-1111



**2021 정동극장예술단 무용 <시나위, 夢(몽)>**

무속음악에 뿌리를 둔 전통음악 양식이자, 정해진 선율이 없이 즉흥적 가락으로 이루어진 기악합주곡을 뜻하는 '시나위'. <시나위, 夢(몽)>에서는 시나위의 유동적인 특성을 독창적이고 신선한 움직임으로 표현하며, 굿의 형식과 방법을 빌려 무거운 생을 살아가는 오늘날의 우리를 위로한다.

**일시** 3월 23일(화)~28일(일)  
 평일 오후 8시 | 주말 오후 3시  
**장소** 정동극장  
**관람료** 전석 4만 원  
**문의** 02-751-1500

산

책

자

들

nook<sub>gallery</sub>

2021.02.26 - 03.19

박능생 박형진 유근택 조민아 조원득 진현미 채효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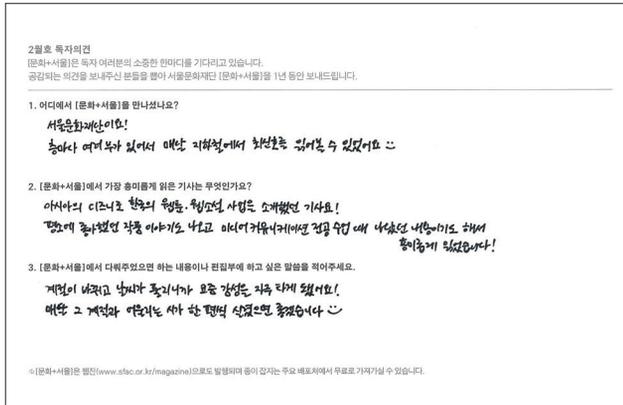
# 함께 만들어갑니다 [문화+서울]

웹진 [문화+서울] [www.sfac.or.kr/magazine](http://www.sfac.or.kr/magazine)

좀 더 나은 [문화+서울]을 만들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가장 좋았던 기사나 지적하고 싶은 점, 제안하고 싶은 것들, 어떤 의견이든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을 주신 분들께 [문화+서울]을 1년 동안 보내드립니다.



## 독자 엽서

심지연 님(서울특별시 서초구)

### 1 어디에서 [문화+서울]을 만나셨나요?

층마다 여러 부가 있어서 매달 지하철에서 최신 호를 읽어볼 수 있었어요^^

### 2 [문화+서울]에서 가장 흥미롭게 읽은 기사는 무엇인가요?

아시아의 디즈니로 한국의 웹툰·웹소설 사업을 소개했던 기사요!  
평소에 좋아했던 작품 이야기도 나오고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전공 수업 때 나왔던 내용이기도 해서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 3 [문화+서울]에서 다뤄주었으면 하는 내용이나 편집부에 하고 싶은 말씀을 적어주세요.

계절이 바뀌고 날씨가 풀리니까 요즘 감성을 자주 타게 됐어요!  
매달 그 계절과 어울리는 시가 한 편씩 실렸으면 좋겠습니다^^

## 편집 후기

Happy birthday to SFAC, Happy birthday to me.  
이규승 서울문화재단 홍보팀장

삼월은 조금 싱거워도 괜찮은, 삼삼한 달이길.  
김영민 서울문화재단 홍보팀장

새 학생은 아니지만 새 학기 같이!!  
홍지형 서울문화재단 홍보팀장

3월은 봄동 넣고 끓인 된장국이 제일 맛있을 때예요!!  
모두 건강하길 바랐으면 좋겠습니다!!  
심유진 서울문화재단 인턴

말로 하는 SNS가 유행해도 글로 이야기합니다.  
전민정 객원 편집위원

3월, 몸과 마음에 훈풍이 불어오길 기대합니다.  
이아림 객원 기자

문화예술이 모두에게 즐겁게 다가가기를.  
장영수 객원 기자

## 주요 배포처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국립극장, 국립중앙박물관, 금천예술공장, 두산아트센터, 문래예술공장, 백성희장민호극장, 백암아트홀, 삼일로창고극장, 상명아트센터, 서교예술실험센터, 서서울예술교육센터,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서울도서관, 서울무용센터, 서울문화재단(본관),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시 자치구 문화재단 및 문화원, 서울연극센터, 서울예술교육센터, 서울예술치유허브, 시민청, 신당창작아케이드, 아르코미술관, 연희문학창작촌, 예술가의 집, 잠실창작스튜디오, 정동극장, 중앙아트갤러리, 청년예술청, 한국공연예술센터, KT&G 상상마당, LG아트센터 등.

[문화+서울]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지는 무가치로 발간되므로 별도의 구독 요청이 불가합니다. 주요 배포처에 방문하셔서 비치된 잡지를 무료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2021 KUMHO  
3.12 — 4.18

노은주 RHO EUNJOO  
문이삭 MOON ISAAC

YOUNG ARTIST

4.30 — 6.6

배혜음 HEJUM BÄ  
정진 JUNG JIN

